이투데이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ECONOMY TODAY

etoday.co.kr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 ISSN 2383-6652

2017년 8월 25일 금요일 제1717호

true friend 한국투자증권
BanKIS®
※투자 전 설명 청취 ※원금손실 유의

文정부 '크루즈 육성정책' 실종사건

'해양 新산업' 단골메뉴였지만
30일 해수부 업무보고서 빠져
정부 '홀대론'에 中 사드보복 영향
크루즈정책 전면 수정 가능성까지
국적 선사 출범도 '감감무소식'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크루즈산업 육성정책이 문재인 정부 들어 자취를 감췄다. 이는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경제 보복으로 정책 탄력에 힘이 빠진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무관심까지 더해져 생긴 현상으로 풀이된다.

25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등의 법적 장치를 마련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크루즈 정책이 전면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기류는 문재인 정부 들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해수부가 제주도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5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이 이날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하지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이 대표적 사례라는 지적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이날 개막식에 참석하기로 했지만 지역 해양수산 단체장과 간담회를 하는 등 제주 해양수산 관련 현장방문 성격이 더 짙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주영 장관의 경우 포럼에 참석하고 기자들과 간담회까지 하면서 크루즈 정책을 밝혔던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인 모습이다.

해수부는 이달 30일로 예정된 새 정부의 첫 부처 업무보고에서도 크루즈 산업과 관련한 내용은 뺀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 정부에서 해양 신산업과 관련해 크루즈가 해수부 업무보고의 핵심을 차지한 것과는 대비된다.

해수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크루즈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지 못하는 것은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 영향이 적지 않다. 일례로 제주를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의 90% 이상은 중국인 관광객으로,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3월 중순 이후 단 한 척도 입항하지 않고 있다. 해수부가 올해 초 업무계획에서 크루즈 관광객 유치 목표를 200만 명으로 잡았지만 올 상반기 유치 관광객이 목표치의 15.9%에 불과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73만5751명보다 41만여 명이 적은 수치다.

정부가 크루즈 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웠던 국적 크루즈 선사 출범은 올해도 아무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문재인 정부가 크루즈정책을 홀대한 것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주요 국정과제에서 크루즈정책과 관련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게 관련 업계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역대 장관들이 크루즈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 역효과가 난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곽도흔 기자 sogood@

'비트코인' 2차 분할설·이더리움 대규모 업데이트

가상화폐 또 요동치나

'세그윗2X' 그룹, 11월 하드포크
3종류 비트코인 공존 가능성 커

분열을 겪었던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또 한번 쪼개질 조짐을 보이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증폭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 또한 내달 대규모 업데이트가 결정돼 가상화폐 전체 시장이 요동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관련기사 3면

25일 KDB산업은행은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분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산업은행은 이슈브리핑 리포트에서 "2017년 말에는 일부 채굴자의 '비트코인 캐시(BCH)', 핵심 개발자 진영의 '세그윗(Segwit) 비트코인', 소유자와 다수의 채굴자가 합의한 '세그윗 2X(Segwit2X) 비트코인' 등 3종류 비트코인의 공존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달 초 분열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분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산업은행은 비트코인이 처리 지연으로 인해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로 분리된 이후에도 세그윗과 세그윗2X 지지자가 각각 다른 비트코인을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준영 산업은행 미래전략개발부 차장(연구원)은 "2X만을 주장하는 비트메인(Bitmain) 연합이 이달 1일 '비트코인 캐시(BCH)'를 도입하면서 1차 하드포크(업그레이드)가 현실화했다"며 "11월 순차 도입 합의에 따른 블록 확대 시점에서 세그윗만을 주장하는 핵심 개발자의 미참여로 2차 하드 포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개발자 진영은 '세그윗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반면, 주류 채굴자들이 '세그윗 2X 비트코인'를 원하면, 일부 채굴자가 지지하는 비트코인 캐시와 함께 총 3종류의 비트코인이 존재하게 된다.

한편 가상화폐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도 다음 달 대규모 업데이트를 단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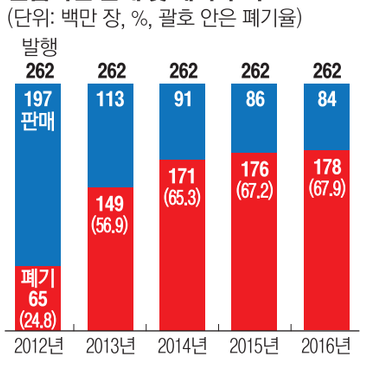
가상화폐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마다 가격이 큰 폭으로 움직였다. 이더리움이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분열될 때 급격한 가격 하락을 겪었고, 비트코인도 비트코인 캐시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급등락을 반복했다.

전문가들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업데이트가 이뤄지는 시점을 전후로 시장이 급격히 움직일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강 연구원은 "내부 대립으로 신뢰가 상실되고 이로 인한 생태계 파괴는 비트코인에 있어 본질적인 리스크(위험) 요인"이라며 "내부 신뢰가 깨지는 순간 모든 것이 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우람 기자 hura@

연금복권 3장중 2장 못팔고 허공에 날려

연금복권 판매 및 폐기 추이
(단위: 백만 장, %, 괄호 안은 폐기율)



작년 1억7800만장 전량 폐기
판매량 2배 훌쩍…인쇄비 37억
"판매 고려한 적정 발행량 필요"

지난해 시중에 풀린 연금복권 2억6200만 장 가운데 8400만 장만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3장 중 2장꼴로 팔리지 않고 폐기되면서, 나랏돈으로 부담한 인쇄비용 37억 원도 날리게 됐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재부 소속 복권위원회는 2억6200만 장의 연금복권 가운데 8400만 장만 팔리자, 판매량보다 곱절 많은 나머지 1억7800만 장은 전량 폐기했다.

1등 당첨금을 매월 500만 원씩 20년간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연금복권은 2011년 출시된 이래 매년 2억6200만 장씩 발행됐다. 그러나 판매량과 폐기량은 2013년 역전돼 폐기량이 판매량을 크게 웃돌고 있다.

판매량은 2012년 1억9700만 장, 2013년 1억1300만 장, 2014년 9100만 장, 2015년 8600만 장 그리고 지난해 8400만 장까지 지속적으로 줄었다. 동시에 폐기량은 2012년 6500만 장, 2013년 1억4900만 장, 2014년 1억7100만 장, 2015년 1억7600만 장, 지난해 1억7800만 장까지 계속 증가했다. 이에 따른 폐기율은 2012년 24.8%에서 2014년 65.3%, 지난해 67.9%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팔리지도 않은 연금복권(장당 20.99원)을 찍어내는 데에 쓰인 돈만 37억 원에 달할 것이란 게 기재위 추산이다.

기재부는 연금복권의 당첨 확률이나 당첨금 배분비율 등을 감안할 때 발행물량을 줄이기 쉽지 않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기재위는 판매량의 감소 추세가 너무나 뚜렷한 데도 매년 복권을 과다발행하는 건 문제라는 입장이다. 기재위 전문위원들은 "판매량을 고려해 적정 발행량이 결정될 수 있도록 당첨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미영 기자 bomnal@

삼성·법원…긴장감 흐르는 서초동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일인 25일 서울 서초구 삼성사옥이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왼쪽). 서울중앙지법에도 통로 일부가 폐쇄되는 등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이 부회장의 선고공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서울구치소에 다시 수감돼 항소심 재판을 준비해야 하며 무죄나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190일 만에 자택으로 돌아갈 수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이동근 기자 foto@

시련의 190일, 이재용 1심 판결…삼성 미래는

李 부회장 구속과 함께 컨트롤타워 사라져 계열사 혼란
초대형 투자銀 진출·대형 M&A 등 사실상 중단 상태
삼성전자 사상 최고 실적에도 전반적 분위기는 침체

그야말로 암흑의 190일이었다. 겉으론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상할 대로 상했다. 당분간 추가 혼란도 불가피하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2심과 3심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뒤 삼성은 사업마다 빨간불이 켜졌다. 삼성증권은 초대형 투자은행 사업 진출에 발목이 잡혔다. 대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을 받는 상태라며 금융당국이 발행어음 사업 심사를 보류한 탓이다. 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길게는 수년간 심사 자체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셈이다.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진두지휘했던 하만 인수합병 이후 제대로 된 대형 M&A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상반기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을 인수하려고 눈독을 들였지만, 총수 공백으로 사실상 모든 M&A를 미뤘다.

이 부회장의 구속과 함께 그룹 컨트롤타워가 사라져버린 것도 각 계열사가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다. 62개 계열사, 연 매출 300조 원, 임직원 50만 명에 달하는 기업집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계열사별로 자율 경영을 시작했지만, 이는 한계가 있다. 계열사 간 협업이나 그룹 사업 재편 등을 위한 교통정리는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총수 부재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금융, 전자, 바이오 '삼각편대'로 구성된 사업재편이 모두 멈췄다. 지난해 12월 초로 예정됐던 사장단 인사 역시 무기한 연기됐다.

삼성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인 삼성바이오로직스도 4·5공장 건설 논의가 답보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올 2분기 삼성전자의 경영 전략과 대규모 투자, M&A 등을 결정하는 사내 경영위원회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인 2차례만 열렸다.

또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으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엑소르 이사회에서 차기 이사진에서 제외됐으며 보아오 포럼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지난달 열린 앨런앤코 선밸리 미디어 콘퍼런스에도 못 갔다. 재계 관계자는 "전 세계 기업들이 인맥 구축에 나서는 상황에서 향후 삼성의 경쟁력이 뒤처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말했다.

삼성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올 상반기 반도체 슈퍼 호황에 힘입어 사상 최고 실적을 냈지만, 총수 부재로 인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침체된 것은 사실"이라며 "삼성이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전문경영인의 역할과 오너의 역할은 분명 다르다"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한국기업 '괌 태양광사업' 암초

4000억 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
SPEJ "입찰과정 문제" 이의 제기
괌 중재기관 결정 때까지 사업중단

한국전력과 LG CNS, 한화에너지 등 한국 기업들이 미국 괌에서 수주한 4000억 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암초를 만났다.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입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다.

25일 괌 중재기관(OPA)에 따르면 상하이 파워 일렉트릭 재팬(SPEJ)은 21일 미국 괌 전력청(GPA)을 상대로 국제 신재생에너지 입찰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재입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OPA에 이의를 제기했다. 괌에서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이의 제기를 신청하고 OPA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GPA는 지난달 초 국제 신재생에너지 입찰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연계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입찰 공고를 내고 한국전력과 LG CNS 컨소시엄, 한화에너지 등 한국 기업들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 당시 한전·LG CNS 컨소시엄은 60MW 규모 태양광 발전소와 42MWh 규모 ESS를 결합한 발전 사업을 따냈다. 총 사업비는 2억 달러(약 2300억 원) 수준이다. 한화에너지도 전체 사업 규모 1억5000만 달러(약 1700억 원)의 60MW 규모 태양광발전소와 65MW 규모 ESS를 결합한 발전 사업을 수주했다.

괌 전력청은 당초 1개 사업을 발주했지만 1차 심사를 통과한 한전·LG CNS 컨소시엄과 한화에너지의 기술력을 인정해 사업을 추가 발주, 2개 업체를 모두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SPEJ는 GPA가 입찰 공고를 낼 당시 발표했던 태양광발전 사업 규모와 최종적으로 배정된 규모가 다르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번 SPEJ의 이의 제기에 따라 OPA의 결정이 있기까지 괌 태양광 프로젝트는 잠정적으로 중단되게 됐다. OPA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프로젝트의 지속 여부도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한화에너지 관계자는 "(이번 이의 제기에 따라) 금전적 손실은 없지만, 프로젝트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이슈 & 인물 ▶15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골프&골퍼 ▶21
김영일 동아회원권 회장

위너스 클럽 ▶23
서문동군 토필드 대표

정용진 부회장 ▶9 이민화 이사장 ▶13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etoday.co.kr 온라인뉴스는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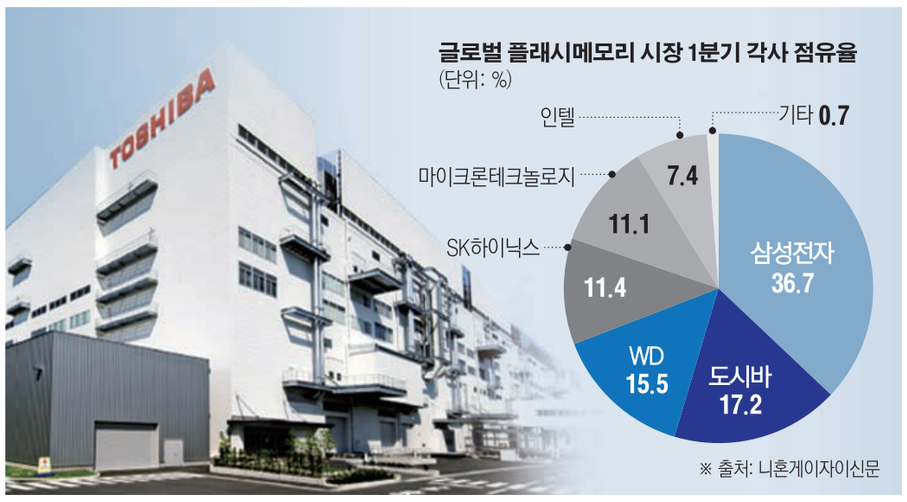
‘삼성 독주’ 위기감에… 도시바, WD와 재결합?

〈웨스턴 디지털·미국 파트너社〉

메모리 매각 우선협상자 변경 왜

집안싸움하다 삼성에 점유율 뺏길라
갈등 빚던 WD에 협상권 ‘막판변심’
이달 말까지 최종합의 목표로 속도전

‘韓·美·日 연합’ 대신 ‘新 美·日 연합’
‘다 된 밥’ SK하이닉스 인수무산 위기



반도체 메모리 사업 매각을 둘러싸고 대립하던 일본 도시바와 파트너인 미국 웨스턴디지털(WD)이 재결합하게 된 배경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시바는 도시바메모리 매각과 관련해 24일(현지시간) 경영회의를 열어 우선협상대상자를 기존 SK하이닉스 등이 포함된 한미일 연합에서 WD 진영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양측은 이달 말까지 최종 합의를 목표로 인수 금액과 WD의 출자 형태 등 세부사항을 논의할 방침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도시바가 이처럼 돌연 ‘변심’을 한 배경에는 플래시메모리 분야 세계 1위인 한국 삼성전자가 독주하면서 양사 모두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당초 도시바는 6월 SK하이닉스와 미국 사모펀드 베인캐피털, 일본 민관펀드인 산업혁신기구(INCJ) 등 한미일 연합에 우선협상권을 줬다. 그러나 WD가 자사 이외 다른 진영에 도시바메모리를 매각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매각에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WD는 국제중재법원과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원 등에 도시바메모리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걸기도 했다.

사실 도시바와 WD는 서로 떼어낼 수 없는 관계다. 도시바의 욧카이치 메모리 공장은 양사가 각각 절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기술진이 정보를 공유해 제품을 개발해왔으며 특허 교환도 이뤄졌다. WD는 하드디스크(HDD) 부문에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해왔지만 데이터 저장 매체가 플래시메모리로 대체되는 추세 속에서 돌파구로 지난해 5월 샌디스크를 인수했다. 이에 따라 샌디스크와 도시바가 맺고 있던 파트너십을 그대로 승계받았다. 시장조사업체 IHS마르키트에 따르면 낸드플래시메모리 세계시장 규모는 지난해의 367억 달러(약 41조3976억 원)에서 2021년에는 40% 확대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도시바메모리 매각을 놓고 대립이 첨예했던 이달 초, 도시바가 욧카이치 공장의 새 생산설비를 단독으로 투자하겠다고 선언하자 WD에 위기감이 고조됐다. WD는 메모리 생산을 욧카이치 공장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참여하지 못하면 최신형 메모리를 조달하는 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도시바 역시 WD와 대립이 계속되면 메모리 사업 경쟁력이 저하될 위험을 안고 있다. WD로부터 기술 정보를 받지 못하면 그만큼 새 메모리 개발이 지체되기 때문. WD가 인수한 샌디스크와 과거 손을 잡았던 것도 삼성에 대항하기 위해서다.

욧카이치 공장 생산설비를 도시바와 WD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것도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WD 이외 제3자가 도시바메모리를 인수하면 권리 관계가 복잡해지고 공장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갈등 속에서 삼성은 세계 1위 자리를 더욱 굳혔다. 올해 1분기 글로벌 플래시메모리 시장에서 삼성의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2.9%포인트 높아진 36.7%를 기록했다. 2위 도시바는 4.5%포인트 낮아진 17.2%, 3위 WD는 0.5%포인트 떨어진 15.5%였다.

삼성이 독주 체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양사 모두 도시바메모리 매각을 둘러싼 대립이 장기화하면서 제품 개발과 투자 계획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고, 결국 도시바와 WD는 원점으로 되돌아와 관계 복원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WD가 도시바메모리를 인수하면 점유율이 단숨에 30%를 넘어 삼성을 견제할 수 있다.

WD 진영은 미국 사모펀드인 KKR와 INCJ, 일본정책투자은행 등과 연계해 도시바메모리 인수에 2조 엔(약 21조 원) 정도의 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각국의 반독점 심사 통과를 위해 WD는 의결권 없는 사채 등의 형태로 자금을 투입할 전망이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데이터 뉴스 DataNews

세계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 증시 변동추이

	7월 24일	8월 23일	증감률
한국 코스닥	677.32	643.71	-4.96%
한국 코스피	2,451.53	2,366.40	-3.47%
일본 닛케이	19,975.67	19,434.64	-2.71%
인도 뭄바이	32,245.87	31,568.01	-2.10%
미국 나스닥	6,410.81	6,278.41	-2.07%
미국 S&P500	2,469.91	2,444.04	-1.05%
대만 가권	10,461.28	10,406.81	-0.52%
독일 DAX	12,208.95	12,174.30	-0.28%

코스닥, 세계 주요증시 중 하락폭 최대

지난 한 달간 한국 증시가 세계 주요 증시와 비교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제금융센터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달 24일 사상 최고치인 2451.53을 기록한 뒤 하락, 이달 23일까지 3.47% 내린 2366.40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코스닥은 4.96% 내렸다. 이는 세계 주요 증시 중 최대 하락폭이다.

같은 기간 일본 닛케이지수는 2.71% 하락해 코스피 다음으로 하락폭이 컸고, 인도 뭄바이지수(-2.10%)와 미국 나스닥지수(-2.07%)가 뒤를 이었다. 가장 크게 오른 증시는 브라질 보베스파로, 8.26% 상승했다. 러시아 RTSI(3.08%)와 홍콩 항셍(2.07%)도 상승곡선을 그렸다.

최근 한국 증시의 하락 폭이 컸던 원인은 8개월 연속 상승세였던 코스피가 조정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코스피는 올 상반기 18.0% 올랐지만, 한 달간 코스피에서 IT주를 중심으로 3조2580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코스피 하락을 부추겼다.

다만 최근 흐름은 조정일 뿐, 전반적인 상승세가 꺾인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가 크고, 저평가돼 있어,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이민호 기자 minori3032@

‘잭슨홀 미팅’ 내일까지

잭슨홀 회의의 주요 테마 ※출처: 니혼게이자이신문

1978년	세계 농업무역 성장 잠재력
1982년	1980년대 금융정책 문제
1985년	미국 달러와 신개발에 대한 전망과 정책 대안
1997년	세계 경제에서의 금융안정 유지
1999년	금융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련
2005년	그린스펀 시대와 미래에 대한 교훈
2007년	주택, 주택 관련 금융과 정책
2009년	금융안정과 거시경제 정책
2013년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글로벌 측면
2016년	미래를 위한 강력한 금융정책 체계 설계
2017년	역동적인 글로벌 경제 촉진

미팅 주제는 ‘경제활성 드라이브’ 진짜 주제는 ‘통화긴축 속도조절’

美·유럽·日 은행장 한자리에… 양적완화 축소 ‘신중모드’ 예상

올해도 ‘잭슨홀 미팅’의 계절이 돌아왔다. 미국 와이오밍 주의 산골 리조트에는 24일(현지시간)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과 경제학자들이 모여들었다. 이날부터 사흘간 열리는 올해 잭슨홀 미팅의 공식 주제는 ‘글로벌 경제의 역동성 강화’이지만 시장은 회의 자체보다는 중앙은행 수장들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힌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과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 등이 모처럼 총출동해 시장의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수년 만에 금융완화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정치적 리스크도 고조되고 있는 만큼, 이들 중앙은행 수장들이 시장을 혼란시키지 않기 위해 최대한 신중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중앙은행 총재들은 그동안 잭슨홀 미팅을 정책 협의와 시장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는 장(場)으로 활용해왔다. 1998년 회의에서는 러시아 외환위기와 대형 헤지펀드들의 파산 사태와 관련, 앨런 그린스펀 당시 연준 의장이 다른 중앙은행 총재들과 통화정책 완화를 긴급히 논의했고, 2010년에는 벤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이 2차 양적완화 실시를 예고했다.

시장은 25일 ‘금융안정’을 주제로 강연하는 옐런 의장의 입에 주목한다. 현재 시장에서는 연준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자산규모 축소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3년 만에 회의에 참석하는 드라기 총재에게도 시선이 집중된다. 옐런과 같은 날 연설에 나서는 드라기 총재는 2014년 참석 당시, 사전에 준비된 원고에 없던 ‘인플레이션 기대 저하’를 언급해 추가 완화 기대로 시장을 술렁이게 했다. ECB는 현재 양적완화 축소를 검토 중이며 드라기 총재는 7월 기자회견에서 “성명서 문구 변경 등의 논의는 가을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드라기가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도 금융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언급할지 시장 관계자들이 주시하는 이유다.

그러나 ECB는 전통적으로 정례 통화정책회의 직후 열리는 총재 기자회견 이외에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는 소극적이었다. 더구나 3년 전 드라기 총재의 발언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만큼 이번에는 더욱 신중한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는 정치적 리스크도 중앙은행 수장들에게 고려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지정학적 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권 운영 혼란 등이 최근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멕시코 국경장벽과 건설에 의회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연방정부 셧다운도 불사하겠다고 위협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 후보자에 박성진

이론·실무 겸비 産學 전문가 '벤처생태계 조성 적임' 평가

대기업·벤처기업 현장 경험 풍부
포스텍 기술지주 대표이사 활동
"中企·벤처 활성화 책임감 느껴"
40대 젊은피 발탁… 업계 "환영"

새 정부가 내세운 '일자리 창출' 정책 과제를 수행하는 핵심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초대장관 후보자로 40대의 재야 학자인 박성진(49) 포스텍 교수가 깜짝 지명됐다. 이로써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된 지 34일 만에 내각 인선이 마무리됐다.

청와대는 24일 "기계공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공학자"라면서 "20년 전부터 대기업과 벤처기업에서 현장 경험을 쌓아온 학자이면서 포스텍 기술지주 대표이사로서 기술벤처에 대한 투자와 지원 사업을 해온 벤처가"라고 박 후보자의 지명 배경을 밝혔다.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하게 되면 박 후보자는 벤처·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하는 중기부의 수장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된다. 박 후보자는 "국민과 중소벤처 기업의 염원을 담은 부처의 첫 장관 후보자가 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지명 소감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을 2배 늘리고 투자 중심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규 벤처펀드를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추경에서 정부는 중기부에 3조4000억 원을 투입해 힘을 실어주며 이러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올해 총 11조6526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는 영향력 있는 부처로 거듭났다.

박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새 정부의 핵심 일자리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의 강한 반발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최우선적으로 주어진다. 또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논의가 상징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이 문제를 다루는 동반성장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도 긴밀히 조율하면서 창업기업 지원과 청년일자리 창출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지명 직후 중소벤처기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벤처기업계는 벤처와 창업 경험이 풍부한 교수 출신 인사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안도하는 분위기다. 벤처기업협회는"박 후보자는 신설 중기부가 활발한 혁신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벤처기업이 성공하기 위한 창업-혁신-성장-성공-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벤처 생태계 구축을 진두지휘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실제로 포스텍 1회 입학생이자 수석 졸업생 출신으로 벤처기업 등에서 경험을 쌓다 모교로 돌아온 박 후보자는 포스텍 기술지주 대표로서 올 초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패스트팔로어에서 퍼스트무버 국가로 성장하려면 대기업만으론 안 된다. 벤처가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 포스코보다 큰 동문 기업이 나와 이들이 교육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과학계 일각에서는 박 후보자가 기독교 근본주의에 기초해 진화론을 부정하는 단체로 알려진 한국창조과학회 이사로 활동한 이력을 문제삼고 있어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효점 기자 gradually@

가상화폐 거래소-銀行 '뒤바뀐 甲·乙관계'

수천억~수조원 현금거래 이뤄지자
수수료 수익에 현금예치 효과까지
은행들 앞다퉈 가상계좌 발급 경쟁
거래소, 가상화폐 열풍에 '귀한 몸'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연간 수백 억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면서 각 은행들이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일부 은행은 '명성 리스크'를 이유로 가상계좌 계약을 해지했지만, 대다수 은행은 자금 유치에 방점을 찍고 있다.

거래소는 고객이 거래하기 위해 현금을 받는 과정에서 은행의 가상계좌를 주로 이용한다.

고객이 거래소 자산계좌에 현금을 입금하기 위한 가장 편리한 방법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

최근 국내 최대 거래소 빗썸은 가상계좌를 발급해주던 KB국민은행으로부터 일방적인 제휴 해지 통보를 받았다.

국민은행은 빗썸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자 함께 거론될 경우 은행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빗썸에서는 회원 개인정보를 담은 개인컴퓨터(PC)가 해킹당해 약 3만 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빼돌린 정보 중에는 약 500억 원의 계좌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은 유출된 고객 정보가 이용돼 자사 고객들이 2차 피해를 받을 것을 우려해 이를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계좌 발급 제휴로 얻는 이익보다 이미지 실추에 따른 손실이 클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다른 거래소인 코인원도 산업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 발급 해지를 통보받아 약 2주간 신규 가상계좌를 발급하지 못하다, 새로운 은행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코인원은 며칠 내로 새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부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좌 발급 제휴를 끊고 있는 것과 달리, 대다수 은행에선 '귀한 몸'이 됐다.

신한은행은 빗썸에 가상계좌 발급을 독점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빗썸에 가상계좌 발급에 문제가 될 만한 중대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발급 중단을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코빗은 사업 초기부터 우리은행에서 가상계좌를 발급하는 중이다.

거래액이 크지 않은 시절 계좌 발급 수가 수시로 제한돼 애를 먹었지만, 최근 우리은행은 코빗의 가상계좌 발급을 위한 기술적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거래소 가상계좌 발급 제휴에 적극적인 은행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이 이 시장을 잡으려는 것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막대한 현금을 유통하는 창구가 됐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월 단위로 가상계좌를 발급해준 후 익월 초 수수료를 정산받는다.

수수료 수익뿐 아니라 현금 예치효과까지 볼 수 있다.

거래소 고객들은 연간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까지 가상화폐 계좌를 통해 현금을 이동하고 있다. 이때 거래소의 주요 계좌는 막대한 현금을 임시로 보관하게 되며, 자금예치 효과가 부수익으로 발생한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과거에는 은행들이 가상계좌 발급을 해주지 않으려 했지만, 지난 5월부터 거래량이 급격히 늘면서 은행 각 지점에서 제휴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우람 기자 hura@

주택가격전망 CSI, 하락폭 역대 최대

'8·2 부동산대책' 여파 시장 급랭… 소비자심리지수 7개월만에 꺾여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에 주택가격전망 소비자심리가 직격탄을 맞았다. 월별 하락폭이 역대 최대치를 보이며 장기평균치를 5개월 만에 밑돌았다. 소비자심리도 7개월 만에 소폭 내림세로 돌아섰다.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반영된데다 그간 상승에 따른 일부 조정 성격이라는 관측이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 기대감에 임금수준전망 심리는 4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이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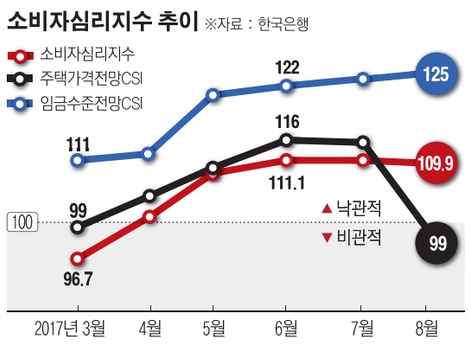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중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 대비 1.3포인트 하락한 109.9를 기록했다. 이는 1월 0.8포인트 하락 이후 첫 내림세다. 전달에는 111.2까지 오르며 2011년 1월(111.4) 이후 6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CCSI란 CSI 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로 2003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장기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해 이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부문별로는 경기에 대한 기대감 축소가 상대적으로 컸다. 6개월 전과 현재를 비교한 현재경기판단 CSI는 3포인트 내린 93을 기록해 1월 4포인트 하락 이후 처음으로 떨어졌다. 현재와 6개월 후를 비교한 향후경기전망 CSI도 5포인트 떨어진 104를 나타내 2개월 연속 하락했다. 지난달에도 3포인트 하락을 기록했었다.

현재생활형편과 생활형편전망 CSI도 각각 1포인트 내린 94와 2포인트 떨어진 102를 보였다. 이는 각각 1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한 것이다. 반면 가계수입전망 CSI는 전월과 같은 103을 보였고, 소비지출전망 CSI는 1포인트 오른 109를 나타냈다.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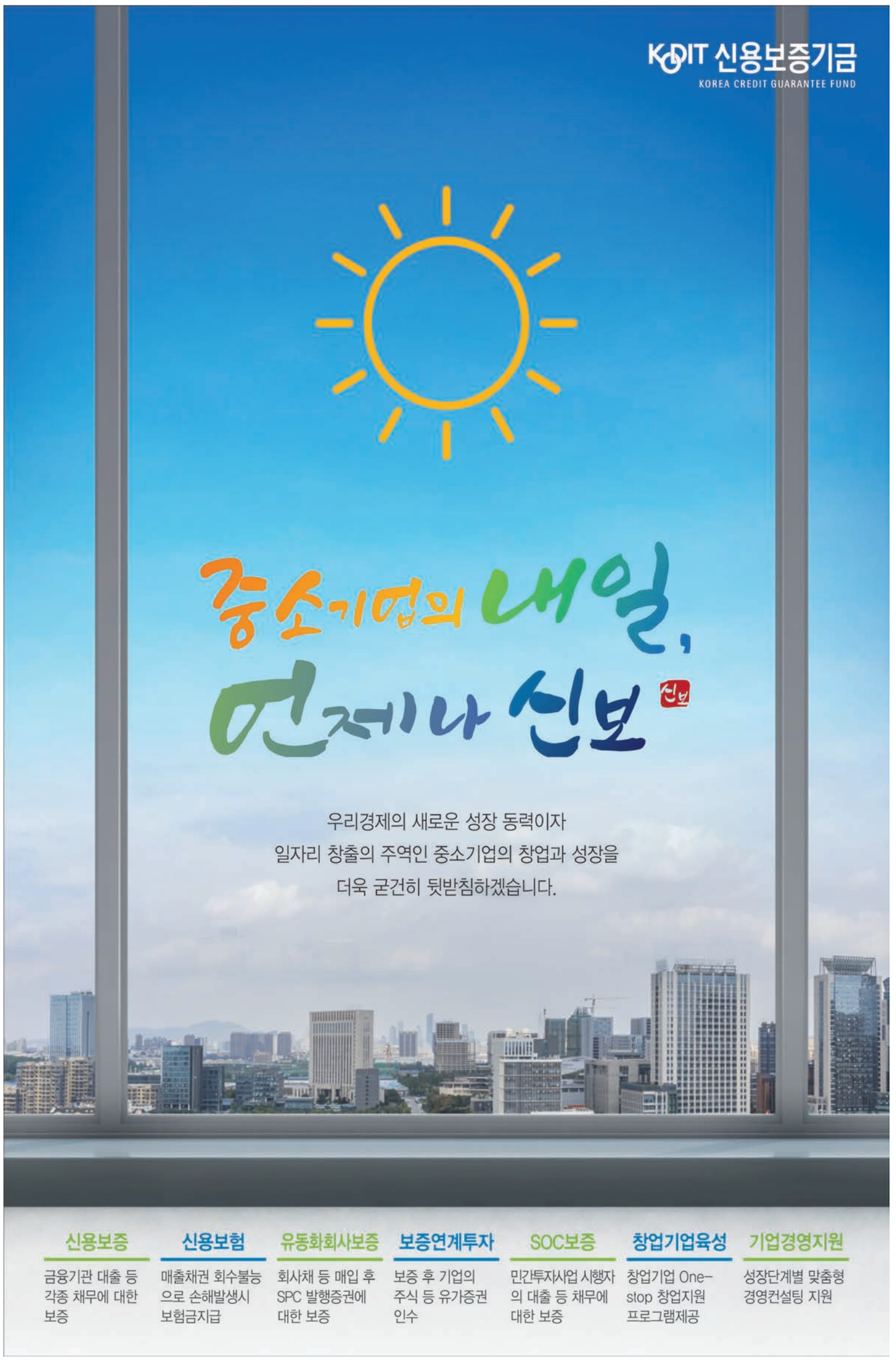


주택가격전망 CSI는 16포인트 급락한 99를 기록했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다. 직전 최대 하락은 미국 금리인상 등 영향에 11포인트 떨어졌던 2015년 12월이다.

임금수준전망 CSI는 1포인트 상승한 125를 보였다. 이는 5월 사상 처음으로 120으로 올라선 이래 4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다.

박상우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최근 북핵 관련 문제로 현재 경기판단과 향후 경기전망을 중심으로 하락했다. 올 1월 이후 상승세가 지속됐다는 점에서 약간의 조정으로 본다"며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주택가격전망 하락폭이 컸다. 반면 정부 정책 기대감에 임금수준전망은 넉달째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덧붙였다.

김남현 기자 kimnh21c@



文대통령 18억2200만원 장하성 수석 93억 '최고'

靑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文, 대선후보 때와 비슷
조국 49.8억으로 두번째
하승창 3.1억 가장 적어
17명 평균 19억7892만원
朴정부 퇴직인사보다 적어

문재인 대통령의 현재 재산이 18억22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후보 때 신고했던 재산(18억6402만 원)과 거의 비슷했다. 청와대 참모들 중에서는 장하성 경제정책실장이 9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조국 민정수석이 49억80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의 재산 신고액은 약 3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문 대통령을 포함해 5월 임명된 청와대 참모진의 평균 재산은 19억7892만 4133원이었다.

문 대통령의 재산은 2016년 19대 국회의원 퇴직 당시 15억700만 원이었으나, 대통령 취임 후 한 재산신고에서는 18억2200만 원으로 3억1500만 원가량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5억6600만 원이던 예금이 3억 원가량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의 재산은 대부분 본인과 가족이 소유한 부동산이었다. 보유 건물의 가액은 총 7억5800만 원으로, 양산 자택 3억2600만 원과 김정숙 여사 소유의 서울 홍은동 자택 2억8500만 원이 포함됐다. 보유 토지로는 경남 양산의 대지·답·잡종지·주차장·도로 등으로 3억2300만 원을 신고했다. 예금은 본인 이름으로 5억2100만 원, 김정숙 여사 이름으로 3억2200만 원, 어머니 강한옥 여사 이름으로 2300만 원 등이었다. 부채로는 문재인 펀드 보관계좌에 1억9147만 원과 김 여사 개인채무 9000만 원 등 2억8147만 원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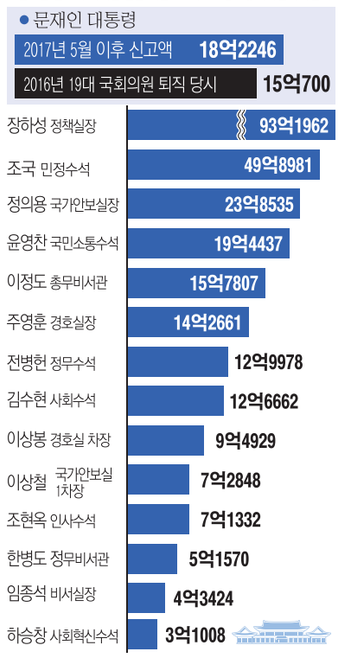
아들 문준용 씨의 재산은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따로 고지되지 않았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은평뉴타운의 아파트와 예금 등으로 4억3400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청와대 재산공개 대상자 중 가장 많은 93억1900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부친, 장남 이름으로 총 53억7000만 원 상당의 유가증권을 보유했으며, 가족 명의의 예금으로 23억3100만 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석비서관급 중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이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등 10억 원가량의 건물과 예금 20억 원을 포함해 총 49억8900여만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다음으로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19억4400여만 원, 전병헌 정무수석이 12억9900여만 원, 김수현 사회수석 12억6600만 원 등의 순이었다. 가장 신고액수가 적은 인사는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으로 3억1000만 원이었다.

한편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서 일하다 이번에 퇴직한 인사 17명은 이번에 재산을 신고한 현 정부 인사들보다 평균 4억6800만 원 정도 많은 24억4700만여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

청와대 주요 인사 재산 현황(단위 : 만 원)
*8월25일 관보에 게재된 인물 기준 ※자료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전·현 청와대 주요 인사 재산 평균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24억4799	19억7892

與野 바뀌면 생각 바뀌는 '국회선진화法'

국민의당 "개정" 주장에 민주당 "환영…적극 논의"
한국당 "두 당 과반의 힘으로 의회 운영 독점" 반발
지난 정부 땐 서로 반대 입장…'아전인수 주장' 빈축

정치권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퍼지고 있다.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형국이다.

국민의당은 2월에 이어 국회선진화법 개정 카드를 들고 나왔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2일 "적대적 양당제의 산물인 국회선진화법은 개정돼야 한다"며 "다당제 현실에 맞게 단순과반으로 고치고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3일 "환영하고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20대 국회 의석 분포를 보면 △민주당 120석 △자유한국당 107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이다. 어느 당도 단독으로는 안건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당인 민주당의 경우 안건 처리 기준을 낮춰야만 원활한 국정운영을 추진할 수 있다. 국민의당은 '캐스팅보트'로서의 존재감을 발휘하기 위해 개정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당이 사실상 민주당의 거수기 노릇을 하는 상황에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면 민주당은 과반의 힘을 가지게 된다"며 개정 작업에 반기를 들었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도 "지금 법 개정은 여당과 이에 동조하는 특정 정당만이 의회 운영을 독점해 의회정치의 혼란과 후퇴만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 5월부터 적용된 국회선진화법은 다수 의석으로 입법을 밀어붙이던 관행을 깨고자 만든 법이다. 법안의 통과 문턱을 의석수의 60%(180석) 이상으로 높인 게 골자인데, 입법 취지와 달리 역작용이 일고 있다.

주요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한 채 국회에 발이 묶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 때문에 '동물 국회'는 막았으나 '식물 국회'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를 둘러싼 각 당의 입장은 뒤바뀌었다. 야당일 때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반대했던 민주당은 여당이 된 뒤 개정 논의 쪽으로 선회했다.

반면 여당 시절 국회선진화법이 식물국회의 원인이라며 개정을 추진했던 보수야당은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광호 기자 khlee@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24일 저녁 서울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한 후 밝게 웃으며 악수하면서 식당을 나오고 있다. 이날 만찬에는 추 대표가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8월 17일)을 맞아 문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참모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한국당 "이번 정기국회는 文정부 100일 평가"

오늘까지 의원·당협위원장 연찬회
'朴 출당' 현안으로 언급은 안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머리를 맞댔다. 한국당은 올해 처음 야당으로서 '공수(攻守)'를 바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치른다.

한국당은 24~25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 교육원에서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이 참석하는 연찬회를 진행했다. 당 집행부는 이번 연찬회의 목적을 대여(對與) 정책 설정에 맞췄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문재인 정부 100일을 평가하는 일"이라며 "이를 제대로 짚고 민심에 호소해 나갈 것인가 하는 데 연찬회의 목표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출당' 등 인적청산은 이번 연찬회에서 주요 현안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홍준표 대표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3심 판결 확정까지 기다리자는 말은 같이 망하자는 말"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박 전 대통령 출당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 향후 혁신위원회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천안=정용욱 기자 dragon@

국회 복도서 기재부 과장과 입법조사보 간 고성 오간 까닭은

미래전략국 '수용비' 내역 놓고
"그렇게 집행 해석할 수 있냐"
"의원도 동의한 사항인데 왜"
행정·입법부 간 자존심 대결
국회공무원 '갑질문화' 지적도

8월 결산국회가 한창인 23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회의실 바깥 복도에서 고성이 섞인 언쟁이 벌어졌다. 기획재정부 미래경제전략국의 한 과장과 기재위의 한 입법조사보 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이 입법조사관보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미래전략국이 지난해 예산에서 일반수용비 집행 내역에 포럼·간담회 등의 '음식점 도시락' 구매 비용이 포함된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날 소위에서 기재부 측은 의원들에게 "예산집행 지침상 행사를 위한 음식점 도시락은 일반수용비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고 의원들은 이를 수용해 지적 내용을 "수용비로 잘 사용할 것"으로 변경하라고 지시했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다. 이 건에 대한 논의가 끝난 다음 해당 입법조사관보가 복도로 나와 "수용비 집행을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며 큰소리를 냈다. 이에 담당 과장은 "예산 집행지침 수립과 해석은 기재부 권한이며 전 부처에서 수용비로 행사도시락을 구매하고 있다"며 "잘 모르는 것 같으니 더 설명해 주겠다"고 응수했다. 그러자 이 입법조사관보는 분을 참지 못하고 계속 화를 내다가 결국 자리를 떴다.

이를 두고 기재부를 비롯한 관가에서는 "국회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갑질문화가 도를 넘었다"는 해석이 흘러나왔다. 이 상황을 지켜본 한 공무원은 "의원들의 동의로 지적사항의 내용이 바뀌었음에도 경력도 20년이나 많고 직급도 2등급이나 높은 행정부 고참 총괄과장을 대상으로 분풀이를 한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회 공무원들은 국회의원에 이어 국회의 제2 권력으로 통한다. 이 때문에 그동안 입법권한을 무기로 부처를 대상으로 한 고압적 업무지시나 요구가 빈번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국회 안팎에선 "입법조사관의 권리인 '예산집행 내역 지적'에 콧대 센 기재부가 민감하게 반응한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 결국 서로 물고 물리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 해묵은 '자존심 대결'일 뿐이라는 것이다. 기재위의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권한이 없음에도 지시하는 것이 갑질"이라며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

살충제 계란 사태, 구충제 닭으로 번지나

간수치 증가·자궁내막암 등 유발
톨트라주릴 허용 기준치 6배 검출
2만1000마리 유통… 회수 못해

살충제 계란 사태가 구충제 닭고기로 번질 조짐이다. 기준치의 최고 6배에 달하는 구충제 성분이 검출된 일부 닭고기가 그대로 시중에 유통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한발 늦게 대응하는 방역당국은 닭고기 살충제 검사를 전국 산란계 농장으로 확대키로 했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유통 닭고기 잔류물질 검사 결과 허용 기준치의 6배에 달하는 구충제 톨트라주릴이 검출됐다.

더욱이 해당 닭고기 2만1000마리가 시중에 유통됐지만 지금까지 한 건도 회수되지 못했다. 유통기한이 10일 이내로 짧은 닭고기의 특성상 유해물질 잔류검사 결과가 나올 때는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경우가 많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문제가 된 톨트라주릴은 허용 기준치가 0.1㎎/㎏이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해당 닭고기에서는 0.6㎎/㎏이 검출됐다. 유럽의약품청(EMA)은 톨트라주릴이 동물용 의약품으로 체중 60㎏의 성인이 하루 0.12㎎ 이상 섭취하면 독성을 일으킨다고 경고하고 있다.

실험용 쥐에서 간수치 증가, 심비대증, 태아기형 유발, 발암·림프종, 자궁내막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난 맹독성 물질이다.

살충제 계란에 이어 닭에서도 DDT(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와 톨트라주릴이 잇따라 검출되면서 정부는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도축장에서의 DDT 등 잔류물질 검사를 모든 산란계 농장에서 출하하는 닭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농가 전수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온 52곳에서만 해당 검사를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육계, 오리, 메추리에 대해서도 도축장에서의 DDT 등 잔류물질 검사를 올해 540건에서 1000건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정필 기자 roman@

현대車 취업… 어떻게 해야죠

현대자동차 잡페어(Job Pair)가 24일 경기 고양시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열린 가운데 구직자들이 현대차 직원들에게 취업상담을 받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에너지 최적화… '살아있는 건물시대' 온다

에너지公, '맞춤형 에너지 절감 분석' 서비스

한국에너지공단이 스마트 에너지관리 시대를 맞아 건물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에너지 절감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에너지공단은 24일 서울 쉐라톤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스마트 에너지 분석 캠페인'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캠페인 참여기관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스마트 에너지 분석 캠페인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을 통해 에너지설비 데이터, 실시간 전력사용량 등 에너지 빅데이터를 분석해 건물 운영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이행한 건물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건물 사용자가 직접 에너지관리시스템, 원격검침 등으로 얻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손쉽게 에너지 사용 현황과 패턴을 파악하고 스스로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기존 건물에너지 컨설팅을 위해서는 많은 진단 인력과 장비가 동원되는 등 적지 않은 비용이 투입되고 긴 시간을 할애해야만 했으나 이번 캠페인 사업으로 기업들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게 된 셈이다.

24일 쉐라톤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열린 '스마트 에너지 분석 캠페인' 발대식에서 한국에너지공단 강남훈 이사장(중앙)과 경찰병원 이경인 부장(좌측), 이화여자대학교 이동훈 교수(우측)가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공단은 올해 약 70여 개 건물에 대해 에너지 분석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5~10%의 에너지·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남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건물 부문에서도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이 결합돼 건물 스스로가 에너지를 최적화하는 '살아 있는 건물시대'가 눈앞에 왔다"며 "스마트 에너지 분석 캠페인이 이를 앞당기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엘리 기자 ellee@

활력 떨어진 제조업, 신생률·소멸률 '동시하락'

'세계 최초 제품' 선보인 기업도 줄어

국내 제조업의 신생률과 소멸률이 동시에 하락하면서 제조업 활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4일 발표한 '국내 제조업의 신진대사 진단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 신생률은 2006~2010년 사이 연평균 18.1%였지만 2011~2015년에는 연평균 14.9%로 하락했다. 소멸률도 같은 기간 11.7%에서 10.1%로 낮아졌다.

신생률과 소멸률을 합친 교체율은 2011~2015년 기준으로 연평균 25.0%를 기록해 독일(53.8%)이나, 미국(46.9%)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또 2000년 이후 새로 생긴 국내 제조업체 중 올해 기준으로 포브스 글로벌 2000순위에 진입한 기업은 2개에 불과해 미국(22개사)이나 일본(11개사)보다 크게 적었다. 세계 최초인 제품을 선보인 기업도 줄었다. 2009~2011년에는 지난 3년간 세계 최초인 제품을 내놓은 적이 있다는 기업의 응답률이 5.0%였지만 2013~2015년에는 3.2%에 불과했다.

사업부문별 영업이익률이 5% 이하인 사업부문의 비중이 67%나 됐고 15% 이하인 비중도 96%였다. 이는 미국이 5% 이하가 32%, 15% 이하는 54%로 활발한 사업재편을 통해 고수익 사업 구조를 구축하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현상이다.

곽도흔 기자 sogood@

원자력학회 "전력 설비 예비율 높은 독일도 대규모 정전 사태"

정부 '전력수급계획' 정면 반박

흐린 날씨·바람 없으면 발전량 대폭 줄어
신재생에너지 확대 위해 예비율 올려야
산업부 "산업 육성으로 전력 부족 해소"

탈(脫)원전·탈석탄 정책을 추진 중인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며 설비 예비율을 낮춘 것에 대해 '블랙아웃(대정전)'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원자력학회는 25일 "발전소 설비 예비율을 낮출 경우 대규모 정전사태를 맞을 수 있다"며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확대될 경우, 전력 공급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예비율을 오히려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의 초안을 만드는 전력정책심의위원회는 2030년 적정 설비 예비율을 20~22% 수준으로 내다봤다. 이는 기존 7차 수급계획의 적정 예비율(22%)보다 최대 2% 낮아진 것으로 원전 2기 만큼의 설비가 필요없게 된 것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주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2년마다 향후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맞춰 전력 설비, 전원 믹스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다.

예전에는 통상 적정예비율을 15% 수준으로 인식해 왔지만 정부는 5차 전력수급계획에서부터 20%대의 예비율을 설정하기 시작했다. 과소 예비력으로 인한 전국 단위 블랙아웃 등 취약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실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대부분의 선진국은 설비 예비율(신재생에너지 제외)이 20%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온 독일은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설비 예비율이 120%가 넘는다.

학회 측은 "신재생 확대를 지속적으로 높여온 독일이 화력 발전을 계속 확대하는 이유는 '간헐성(間歇性) 발전'인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아 백업(Back-up) 전원이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독일은 전력 설비 예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1월 24일 대규모 정전 사태까지 몰렸다. 흐린 날씨에 바람 없는 날이 지속되는 등 예상치 못한 기상 영향으로 풍력과 태양광 발전량이 갑자기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학회는 "우리나라는 독일과 비교해 전력예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주변국에서 전력 수입이 안 되는 만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오히려 예비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목표대로 2030년 신재생 발전량 2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45GWe 이상의 태양광과 풍력발전기를 건설해야 하는데 이를 반영한 실제 설비 예비율은 5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대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해 원전 해체에 따른 전력 부족분을 해결할 것"이라며 "설비 예비율을 낮추고 전력 수요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선진국 추세"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엘리 기자 ellee@

주요 국가별 설비예비율 현황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신재생 비중	10	24	24	31	41	45	46
예비율 (간헐성 신재생 제외)	11	47	35	33	73	32	98
예비율 (간헐성 신재생 포함)	16	47	54	46	128	124	175

※ 출처: Electricity information 2016 (IEA)

대우조선 "7조 분식회계 고의 아냐" 과징금 불복

금융위 '45억 처분' 취소 소송
"원가 절감 지시인데 오해" 주장
CFO 해임 권고도 안받아들여

대우조선해양이 수조 원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 45억여 원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6월 5일 금융위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통보 취소'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심리는 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가 맡았다. 아직 첫 변론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대우조선 측은 금융위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과 증선위의 김열중(59) 부사장 해임 권고 조치 등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와 증선위의 제재가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금융위가 대우조선에 매긴 과징금은 단일 기업 기준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최고액은 2013년 8월 경남제일저축은행에 부과한 66억 9200만 원이다.

대우조선 측은 재판에서 분식회계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조선 경영진은 원가 절감 지시를 '회계 조작'으로 오해받아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는 2월 23일 열린 임시 1차 회의에서 대우조선에 과징금 45억4500만 원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다. 고재호(62) 전 대우조선 사장 1600만 원, 정성립(67) 사장 1200만 원 등 전·현직 임원에게 총 2800만 원의 과징금도 각각 물렸다.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 부사장에 대한 해임도 권고했다.

증선위 조사 결과 대우조선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산과 매출을 부풀리고 부채를 줄이는 방식으로 7조7000억 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4월 5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대우조선에 45억45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한 증선위 결정을 확정했다.

현재 대우조선 전 경영진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고재호(62) 전 사장은 2013~14년도 회계사기를 묵인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달 18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남상태(67) 전 사장은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7개 죄명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도 6월 30일 금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 1년'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심리는 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가 맡았다. 첫 변론기일은 10월 20일 오전 10시 50분에 열린다.

앞서 금융위는 대우조선 분식회계를 묵인했다는 이유로 안진에 대한 업무정지 1년 처분을 확정했다.

이새하 기자 shys0536@

기아차 운명의 31일 통상임금 1심 선고 쟁점은 역시 '신의칙'

"경영상 타격" vs "원래 받을 돈"

기아자동차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최대 3조 원대 통상임금 청구소송 결과가 이달 3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24일 가모 씨 등 기아차 노동자 2만74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특별기일에서 "31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 측이 제출한 엑셀 표를 확인한 뒤 문제를 발견하면 29일 한 차례 더 기일을 열기로 했다.

소송의 쟁점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인정하는지다. 대법원은 2013년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사건 판결에서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에서 빠졌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했을 때,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기업이 경영에 큰 타격을 입을 경우에는 노동자에게 통상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기아차 측은 이날 '신의칙'을 적용해 달라고 재차 주장했다. 기아차 대리인은 "이번 소송은 쉽게 생각하면 근로자가 약정한 대로 돈을 가져야 하는데 약정을 뒤집은 것"이라며 "약정하지 않은 것을 달라고 하고 있다"고 했다.

노조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 대리인은 "통상임금은 기존에 받았어야 할 임금으로, 대법원에서 확인해줬다"라면서도 "(대법원이) 다만 신의칙을 내세워 많은 비판이 있었다"고 했다.

노조 측은 2013년 대법원 판결에 의하더라도 이번 사건에 신의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대법원은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불이익이 예상되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신의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라며 "1년 6개월 만에 나온 감정 결과를 보더라도 기아차가 그런 경영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기아차 노동자들은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애초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17일로 잡았으나, 원고 목록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두 차례 기일을 더 열면서 선고일이 연기됐다.

이새하 기자 shys0536@

㈜한화·한화테크윈 고강도 세무조사

'K9' 사고 탓이냐 防産사정 확대냐

요원 100명 서울·창원 동시 투입
회장 집무실 문건까지 가져가
"조사4국 나서, 정기조사 아냐"

국세청이 한화그룹 방위산업 계열사 2곳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은 ㈜한화와 한화테크윈이다.

25일 관련 업계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100여명을 서울 중구 장교동에 소재한 한화빌딩 본사와 경남 창원 소재 한화테크윈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 및 회계 관련 자료를 예치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은 이날 세무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회장 집무실에 보관된 문건 등을 다량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심층(특별)조사로 분석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조사에 나섰다면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 성격과는 거리가 멀다"며 "조사대상 기업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한화테크윈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방산업계에서는 최근 사격훈련 중 폭발로 군 장병 2명이 숨지는 사고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K-9 자주포를 생산한 업체가 한화테크윈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일각에서는 KAI(한국항공우주산업)가 방산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KAI 조사를 계기로 방위산업 분야 전반으로 정부의 사정이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다.

한화테크윈은 2015년 6월 기존 최대주주였던 삼성전자 외 특수관계인 4인이 보유한 지분을 ㈜한화로 매각한 후 한화테크윈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 현재에 이르고 있다.

방산부문 사업은 국내에서 장기계약을 통해 K9 자주포와 K10 탄약운반차 등을 납품하고 있으며, 해외로는 필리핀, 폴란드, 인도, 이집트 등에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매출은 방산사업이 51.5%로 가장 많고, 엔진사업 33.8%, 산업용장비 8.5%, 에너지장비산업 3.6%, 시큐리티 2.5% 등으로 구성돼 있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모유 먹고 쑥쑥 컸어요

24일 강원 강릉 라카이 샌드파인 리조트에서 열린 '제15회 강원도 건강한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의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날 대회에는 생후 4~6개월의 유아 75명이 참가했다. 연합뉴스

복지부 장관의 弔問… 장애인단체, 광화문 농성 5년만에 푼다

"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할 것"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 지하도에서 5년째 농성 중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공동행동)이 다음 달 5일 농성을 풀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약속해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농성장을 찾아 복지 사각지대에서 목숨을 잃은 장애인 사망자 등 18명의 영정에 조문을 하고, 단체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공동행동 측에서 요구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또 최근 발표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부양의무제의 단계적 폐지에 대해 설명하고 단체들의 협조를 구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19년부터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 2022년부터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중증장애인 가구로 기초생활보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부양의무제 폐지를 향한 단계적 첫발을 놓았지만, 앞으로 더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면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빈곤사회연대 등 17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동행동은 2012년 8월 21일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를 요구하며 5년 넘게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 지하역사에서 농성을 이어왔다.

공동행동이 정부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농성을 해제하기로 한 9월 5일은 장애인 인권단체인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설립된 지 10년 되는 날이다.

박은평 기자 pepe@

전깃불만큼이나
반딧불이도 많은
청정한 세상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고,
흘려보내던 전기를 저장했다
필요할 때 다시 사용하는 기술
지금 우리 세대를 위한 혁신을 넘어
다음 세대의 더 나은 삶에도 기여하는 혁신
LG의 에너지 솔루션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옳은미래.
EV
ESS
전기차 배터리 / 부품
고효율 태양전지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스마트 빌딩 시스템
Innovation for a Better Life
LG

금감원 회계부원장보 내부서 뽑을까

박희춘 위원 내년 2월 임기 만료
4년 전부터 내부 인사로 채워
정용원·박권추 국장 등 거론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거론되면서 그가 회계담당 부원장보에 내부 인사를 승진시킬지 주목되고 있다.

25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회계담당 전문심의위원(부원장보)은 2013년 최진영 보험연수원 원장 때부터 내부 인사로 채워졌다. 이전까지는 모두 외부인사가 금감원의 회계담당 임원을 맡았다. 최 원장 전에는 권혁세 전 금감원장과 가까운 사이였던 김호중 건국대 교수가 해당 자리를 역임했다.

이처럼 금감원 회계담당 임원이 내부에서 승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신임 금감원장의 인사 방향에 회계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희춘 회계담당 전문심의위원의 임기는 내년 2월에 끝난다.

김 전 사무총장이 감사원 출신인 것을 고려하면 회계감리 경험과 역량을 임원 인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감리 경력이 풍부한 내부 인사가 회계담당 임원으로 승진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인물로는 정용원 조사2국장, 박권추 회계심사국장 등이다.

증권감독원으로 입사한 정 국장은 회계 품질관리팀장, 제도실장, 심사국장 등 올해 1월 조사2국장으로 발령나기 전까지 회계분야만 맡은 전문가다. 특히 그는 과거 대우사태 때 감리를 맡았을 뿐 아니라 이번 대우조선해양 감리도 담당했다. 박 국장 역시 회계총괄팀장 등을 맡은 공인회계사 출신이며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 박 국장은 대우조선해양과 딜로이트 안진의 감리를 최종 마무리했다.

금감원은 회계담당 임원의 내부 승진이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지만 외부 출신이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새 금감원장이 개혁에 방점을 둘 경우, 주요 임원 자리 중 상당 부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금감원장에 감사원 출신을 고려하는 것 자체가 해당 조직과 금융·회계 검사 부문을 개혁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형 회계법인 관계자는 "회계의 경우 주요 개혁의 대상이 기업의 허술한 회계 관행이나 회계법인으로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내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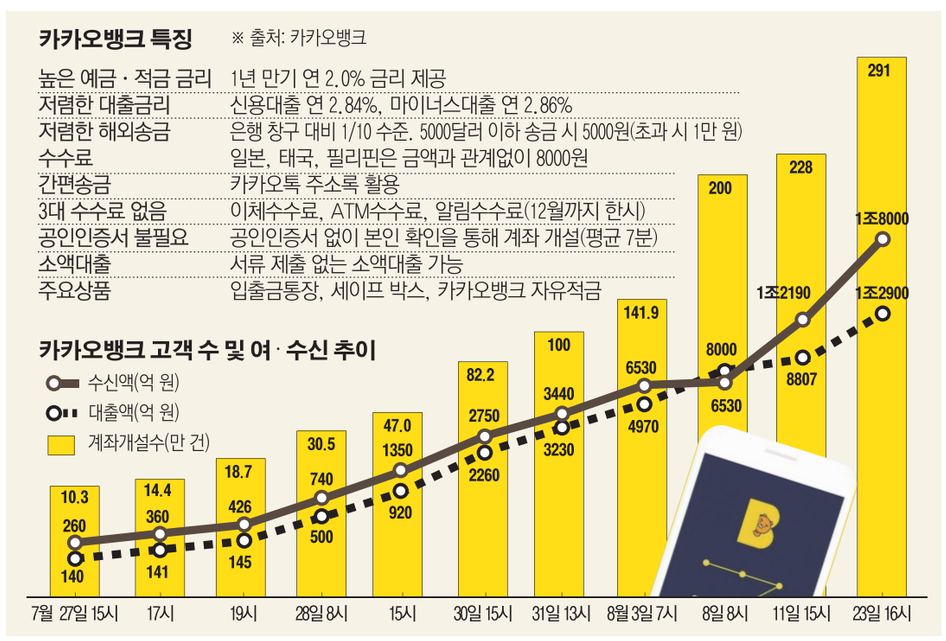
최재혁 기자 freshphase@

카뱅 300만명… 은행권 '메기 효과'

〈출범 한달 새〉

먼저 문 연 케이뱅크 가입자 5배 달해
해외송금 수수료 기존 10분의 1 수준
파격 서비스에 시중은행 수수료 내려

신용대출 시스템 먹통 현상 등 불안정
고객상담 사칭전화 보안성 개선 필요



카카오뱅크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됐지만 열풍은 식을 줄 모른다. 가입자 수와 여·수신액은 가파르게 상승했고, 카카오뱅크의 기세에 화들짝 놀란 시중은행들은 변하기 시작했다.

다만 카카오뱅크가 '메기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취약한 보안성, 빈약한 상품 라인업, 시스템 불안정, 건전성 확보 등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

◇연일 계속된 진기록 행진 =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가 출범 한 달째인 오는 27일 가입자 수가 300만 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이는 영업을 시작한 지 넉 달이 넘은 인터넷 전문은행 1호 케이뱅크의 현재 가입자 수보다 5배가량 많다. 후발주자인 카카오뱅크가 시장의 변화를 더 빠르게 주도한 셈이다.

카카오뱅크는 이달 23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예·적금 등 수신액 1조8000억 원, 여신 규모는 1조2900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더불어 계좌개설 수는 291만 건, 실질이용률을 가늠할 수 있는 체크카드 발급신청은 204만 건으로 나타났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영업을 개시한 지난달 27일 초반 1시간 만에 1만 명이 가입했다. 이후 출범 5일 만에 가입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고, 2주차에는 200만 명이 계좌를 만들었다.

출범 보름 만인 이달 11일 오후 3시 기준으로는 신규 계좌개설 건수 228만 건, 수신액 1조2190억 원, 여신액 8807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시중銀 해외송금 수수료 낮추고 편의성 강화 = 시중은행들은 편의성 중심으로 모바일뱅킹을 전면 개편하고 비대면 신용대출 한도를 상향하거나 우대금리를 더 얹어주는 등 서비스 향상으로 맞서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해외송금 시장이다.

카카오뱅크는 해외송금 수수료를 시중은행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였다. 시중은행 영업 창구에서 해외로 5000달러를 보낼 경우 총 5만4960원을 수수료로 내야 하지만 카카오뱅크는 5000원으로 낮췄다. 5000달러 초과 송금 시에는 1만 원만 받는다.

카카오뱅크의 파격 서비스에 시중은행들도 잇달아 '맞불'을 놓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동남아시아 15개국을 대상으로 송금수수료는 1000원, 수취수수료는 10달러로 낮추는 서비스 상품을 최근 출시했다.

우리은행은 연말까지 일정 금액(500달러) 이하의 해외 송금 수수료를 카카오뱅크보다 아예 적게(2500원) 받기로 했다. 해외 송금액 500달러 초과 3000달러 이하는 5000원을 받는다.

NH농협은행의 경우 자동화기기(ATM)를 통해 500달러 이하 송금 시 최저 10달러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성공 장담하긴 일러… 금감원 이례적 현장점검 = 금융권에는 카카오뱅크가 초반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영향력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미지수라는 관측이 많다. 카카오뱅크는 지금까지도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과 상담시스템이 불안정하다. 일각에서는 시스템 먹통 현상이 급증하는 대출 속도를 늦추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카카오뱅크의 마이너스통장은 최저금리 연 2% 후반대, 1억5000만 원의 한도를 제공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한도만 받아놓고 실제 대출이 없는 경우가 많아 카카오뱅크 입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자는 받을 수 없는데 대출로 취급돼 충당금을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는 대출이 몰리자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어 자본 확충을 위해 5000억 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명의도용 등 비대면 본인인증의 허점이 드러났고, 고객 상담 직원을 사칭해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급기야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검사역들을 파견해 경영실태를 점검했다. 금감원은 컨설팅 차원의 점검이라고 밝혔지만 금융권에는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불편한 문제들이 지속되면 찻잔 속의 태풍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라는 큰 산도 넘어야 하는 만큼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공을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장효진 기자 js62@ 김보름 기자 fullmoon@

NH농협카드, 렌털료 할인 'Rental&바디프랜드' 카드

NH농협카드는 헬스케어 전문기업인 바디프랜드의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NH올원 Rental&바디프랜드' 카드를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카드는 전월 실적에 따라 바디프랜드 렌털료를 월 최대 3만 원을 청구 할인 해주는 서비스와 전국 주요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최대 50% 현장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하나로클럽, 마트, NH-OIL, a마켓, 목우촌, 농협홍삼, NH여행 등 농협판매장 이용 시 추가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도 가능하다.

사진제공 NH농협카드

'카드모집인 교육시험' 시행 1년… 불법 모집 여전

길거리 모집 등 신고 접수 상반기 127건
작년보다 오히려 늘어…시험 실효성 의문

여신금융협회가 1년 전 도입한 '카드모집인 교육시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과다한 경품 제공', '길거리 모집' 등 불법 카드모집 관련 신고 접수는 올해 상반기 총 12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3건보다 14건 늘었다.

2016년 8월부터 여신금융협회가 카드모집인 지원자를 대상으로 자격시험을 시행했지만 큰 효과가 없었던 셈이다.

앞서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별로 제각각이던 카드모집인 채용 기준을 일원화해 불법 카드모집을 예방하는 취지로 '카드모집인 교육시험'을 도입했다. 협회가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한 카드모집인에게 공신력 있는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카드모집인 교육은 총 10시간 분량의 온라인 강의로 이뤄져 있다. 5일간 수강하면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여신금융협회 측은 2월 현재 카드모집인 시험 합격률이 84.3%라고 밝혔다. 최근 운전면허 필기시험 합격률은 88% 수준이다.

그러나 불법모집 예방의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의 제재 관련 공시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은 카드모집인은 총 398명에 달한다. 교육시험이 불법 행위자를 걸러내는 '허들'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 불법모집과 교육시험을 직접적으로 연관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기존 불법모집 사례 중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카드모집인의 인식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교육시험의 목표는 무지로 인한 불법행위를 줄이는 거지 불법모집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김벼리 기자 kimstar1215@

‘갤노트8’ 체험존 북적북적… 대박조짐

삼성전자가 미국 뉴욕에서 갤럭시노트8을 공개한 가운데 24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딜라이트숍에서 고객들이 갤럭시노트8을 체험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삼성 서초 딜라이트숍 등 고객 몰려
다음달 6일까지 ‘사전접수’ 이벤트
블루투스 스피커·할인쿠폰 등 증정
이통사 다음달 15일 1호 개통행사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 공개에 맞춰 삼성모바일스토어와 주요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체험존을 열고 본격 마케팅에 돌입했다.

24일 삼성 서초 사옥 딜라이트숍과 광화문 KT스퀘어에 마련된 갤럭시노트8 체험존에는 궂은 날씨에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특히 사전예약이 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되는 데도 미리 전화번호와 이름을 적어 놓고 가는 사전접수 고객들도 많았다.

삼성디지털프라자 역시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갤럭시노트8 사전접수 이벤트를 연다. 사전접수 고객은 내달 7일 이후 안내전화를 받은 후 매장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56GB 제품 구입 고객에게는 AKG 블루투스 스피커 혹은 네모닉 프린터를, 64GB 구매 고객에게는 삼성 이벤트몰 10만 원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 삼성전자와 별도로 이통 3사는 스마트폰 케이스와 보조 배터리 등 자체 사은품을 준비 중이다.

체험존을 찾은 소비자들은 S펜의 ‘라이브 메시지’와 후면 듀얼 카메라의 ‘라이브 포커스’ 등 노트 시리즈 최초로 적용된 기능들에 특히 관심을 가졌다. 방문객들은 체험존 위에 설치된 미니 조형물을 라이브 포커스 모드로 찍거나 라이브 메시지 기능을 이용해 S펜으로 직접 쓴 글자로 ‘움짤(GIF)’을 만들기도 했다. 또 언팩 행사에서 소개된 골드 색상 제품이 왜 없는지 묻는 고객도 있었다. 메이플 골드 색상과 128GB 용량 제품은 국내 출시에서 제외됐다.

상반기에 출시된 갤럭시S8 시리즈와 디자인만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는 반응도 나왔다. 펜을 활용한 기능과 듀얼 카메라만 제외하면 기능 역시 갤럭시S8 시리즈와 거의 같다.

이통3사는 다음 달 15일 갤노트8 출시를 앞두고 7일부터 예약 판매에 돌입한다. 15일부터 25%의 예약 할인이 시행될 예정인 만큼 예약자 대상의 우선 개통은 15일부터 진행된다. 이통사의 1호 개통 행사도 같은 날 열린다.

한편, 갤럭시노트8은 6.3인치 ‘인피니티 디스플레이’ 화면, 라이브 메시지·문장 번역 등의 기능이 추가된 S펜, 1200만 화소의 후면 듀얼 카메라 등으로 눈길을 끈다. 이 밖에도 빅스비, 삼성 덱스, 생체인증, 유무선 급속 충전 등의 기능도 지원한다. 관심을 모았던 배터리는 갤럭시S8시리즈 3500mAh보다 다소 줄어든 3300mAH 용량으로, 다중 안전 설계와 까다롭고 엄격한 ‘8포인트 배터리 검사’를 통해 배터리의 안전성을 강화했다. 송영록 기자 syr@

정용진 “이케아도 월 2회 의무휴업… 복합쇼핑몰 규제 포함해야”

〈신세계그룹 부회장〉

‘스타필드 고양’ 개장 행사 참석
외국계 기업과 역차별 작심 비판

국내 유통업계를 이끄는 정용진〈사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정부의 유통업 규제와 외국계 기업과의 역차별을 작심하고 비판해 주목된다.

정 부회장은 24일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고양 그랜드오픈 기념식에서 “(복합쇼핑몰 규제로) 쉬라면 쉬어야 한다”며 “만들어지는 법 테두리 안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기업인들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쉬운 부분은 (월 2회 의무휴업 규제와 관련해) 이케아가 안 쉰다는 것”이라며 “이케아도 쉬어야 한다”고 역차별 문제를 제기했다.

스웨덴에 본사를 둔 이케아는 세계 28개국, 340개 점포를 운영한다. 2014년 12월 광명점을 시작으로 국내에 진출했으며 10월에는 스타필드 고양 인근인 고양시 덕양구 원흥지구에 2호점을 열어 스타필드 고양과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이케아는 스타필드처럼 복합쇼핑몰과 유사한 형태로 가구 이외에도 다양한 생필품을 취급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케아 광명점의 지난해 매출은 3450억 원으로 전 세계 이케아 매장 중 1위를 차지했으며 특히 전체 매출 중 생활용품 비중이 50% 이상으로 알려졌다. 내부에 자체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완구류까지 판매한다. 하지만 가구 전문점으로 분류되는 탓에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외국계 기업과의 역차별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세계 1위 면세점 듀프리는 2013년 꼼수를 통해 김해공항 면세점 운영권을 따냈다. 동반성장 정책에 따라 대기업을 배제한 중소·중견기업에만 입찰 자격을 줬으나 듀프리는 국내에서 자본금 1000만 원에 유한회사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를 설립했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중견기업 확인서를 받아 결국 사업권을 획득했다.

‘스타필드 고양’ 그랜드 오픈일인 2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스타필드 개장식에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가운데)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같은 해 급식업계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졌다. 연매출 15조 원 규모의 세계 3위 미국계 급식업체 아라마크는 한국에 100% 자회사 아라코를 만들어 10여 개 공공기관의 구내식당 운영권을 따냈다.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국내 대기업 참여를 막은 덕분이다.

식품업계에서는 제과·제빵이 문제가 됐다. 제빵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확장 자제 권고가 내려진 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 적용으로 거리 제한까지 있어 국내 제빵 프랜차이즈는 손발이 묶였다. 그러자 외국계 프랜차이즈인 콘트란쉐리에, 매그놀리아베이커리, 살롱드몽슈슈, 몽상클레르 등이 국내에 우후죽순으로 매장을 냈다. 조남호 기자 spdran@

최태원 SK 회장 “바꾸는 시늉만 하지 말고 바꿔라”

“기술선도 기업 되려면 근본적 변화 필요”… 이천포럼 참석 ‘딥체인지’ 재차 강조

“바꾸는 시늉만 해서는 안 되고 완전히 새로운 변화, 구조적 프레임을 바꾸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최태원〈사진〉 SK그룹 회장이 급격하게 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변화인 ‘딥체인지(Deep Change)’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24일 경기도 이천시 SKMS 연구소에서 열린 ‘딥 체인지의 이해’를 주제로 열린 ‘2017 이천포럼’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포럼을 통해 SK가 존경받는 기업,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려면 한층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말했다.

이천포럼은 SK그룹이 구성원들의 비즈니스 통찰력을 키워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에 발맞추고 미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포럼이다. 올해 포럼에는 과학·기술·정치·외교·경영·사회 등 각 분야의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 50여 명과 SK에선 최 회장과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각 위원회 위원장, 관계사 CEO 등 최고위 경영진과 임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최 회장은 딥 체인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아직 딥 체인지에 대한 내부 이해도와 변화 수준이 충분치 못하다는 생각에서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를 알아보는 포럼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이천포럼을 딥 체인지의 동력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세상의 변화를 읽고 통찰력을 키우자면서 1년에 한 번 모여 포럼을 개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천포럼의 분야별 하위(Sub) 포럼을 만들어 연중 수시로 공부하고 토론하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각 관계사가 포럼에서 논의한 △기술 변화 △사회적 가치 창출 △글로벌 이슈 등 다양한 영역의 변화 추진 과제를 경영과 접목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또한 최 회장은 “앞으로 이천포럼의 외연을 확장해 외부 인사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자”고 제안했다.

SK는 향후 이천포럼 운영기획단을 발족해 차기 포럼 의제 등을 미리 발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현대·기아차 노조 내달 새 집행부 선거… 임단협 이달 중 담판?

통상임금·노동조합 파업·사드 문제 등 국내외에서 외우내환을 겪고 있는 현대·기아자동차에 또 다른 변수가 생겼다. 노조의 새 집행부 선거가 내달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양사의 노조는 내달부터 나란히 새 집행부를 선출하는 선거 절차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이 노조와 임금 단체협상을 하기 위한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현대·기아차 측에서는 이달 내로 교섭을 끝내지 못할 경우, 교섭 상대가 바뀌어 결국 원점에서 다시 교섭을 진행해야 할 상황과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로 사측에서 이번 집행부와 교섭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교섭이 느슨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고 예상하는 이도 적지 않다.

현대·기아차 노조는 9월이 되기 전 회사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현대차는 이달 5차례 부분파업을 했고, 기아차 노조도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따라 파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22일에 부분적으로 일손을 놓았다. 현대차그룹 계열사 17곳의 노조 간부들도 22일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상경집회도 열기도 했다. 양용비 기자 dragonfly@

가보니 뉴욕 마케팅센터 ‘삼성 837’

사람들이 미국 뉴욕에 위치한 ‘삼성 837’의 VR(가상현실)체험존에서 서핑을 체험하고 있다.

1년반 만에 방문객 55만명 ‘VR 삼매경’에 빠진 뉴요커

삼성 제품·콘텐츠 체험존 인기
VR체험존 ‘와우’ 감탄사 연발

지난해 2월 맨해튼의 미트패킹 지역에 문을 연 뉴욕 마케팅센터 ‘삼성 837’이 개관 1년 6개월 만에 누적 방문객 수 55만 명(7월 기준)을 넘어섰다. 한때 250여 개의 도살장과 육가공 공장이 모여 있던 곳이지만, 현재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즐거움이 넘쳐나는 곳으로 탈바꿈했다.

22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제품과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미국 뉴욕의 ‘삼성837 마케팅센터’를 방문하니 삼성전자의 IT 기기를 체험하는 사람들로 공간은 북적였다. 습한 더위를 피해 시원한 공간에서 삼성전자의 IT제품을 마음껏 체험해볼 수 있는 ‘삼성 837’은 서초동 삼성 사옥에 마련된 딜라이트숍과 비슷한 개념의 공간이다.

총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이뤄진 이 공간은 지하 1층부터 3층까지는 체험·전시 공간으로 활용되고, 4층부터 6층은 사무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다양한 제품 체험공간 중 사람들의 이목을 가장 끈 곳은 VR(가상현실) 체험존이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VR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반영해 VR 체험 공간을 대폭 넓혔다”고 설명했다. 1층 우측에 위치한 VR체험존은 4D체험존과 VR시어터로 구분된다. 4D체험존은 서핑과 봅슬레이를 VR기기를 통해 체험할 수 있으며, VR시어터에서는 우주전쟁 콘텐츠를 관람할 수 있다.

오감으로 느끼며 생생하게 즐길 수 있는 VR 체험을 한 외국인들은 연신 “WoW”라는 환호성과 감탄사를 연발했다. 특히 서핑 VR존은 천장에서 바람이 나오게 만들어 실제 물을 맞는 듯한 느낌을 주도록 했다.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도 기어VR를 쓰고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들을 보며 즐거워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사물인터넷(IoT)이나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전 세계 VR 시장은 올해 67억 달러(약 7조8360억 원) 규모에서 2020년 700억 달러(약 81조865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기어VR 전용으로 UFC 등 스포츠 경기의 생중계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게임개발자를 초대해 개발자 회의를 여는 등 VR 콘텐츠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디지털 미디어 매체 버즈피드·나우디스와 파트너십도 체결했으며, 6월에는 삼성 넥스트를 통해 VR 콘텐츠 관련 인재를 발굴해 삼성 실리콘 밸리 연구소(SRA)에 채용했다.

뉴욕(미국)= 오예린 기자yerin2837@

LG전자 美 테네시 세탁기 생산공장 조감도. 사진제공 LG전자

LG, 美 테네시주에 세탁기 공장 건설

2억5000만달러 투입… 연간 생산능력 100만대 이상

LG전자의 美 테네시주(州) 세탁기 생산공장이 착공에 들어갔다.

LG전자는 현지시간 24일 신공장이 들어설 테네시주 클락스빌(Clarksville)의 예정 부지에서 LG전자 세탁기 생산공장 착공식을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2월 말 LG전자는 대지면적 125만㎡(제곱미터)에 건물 연면적 7만7000㎡ 규모의 세탁기 생산공장을 짓기 위해 테네시주와 투자 협약을 맺었고 2019년 1분기까지 2억50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전자는 2010년부터 미국 생활가전 생산지를 검토해 왔으며, 인력 확보, 기반 시설, 원가경쟁력, 세제 혜택 등을 고려해 여러 후보지에 대한 사업 경쟁력을 검토해 온 끝에 올해 초 미국 중남부에 있는 테네시주 클락스빌을 최종 선정했다.

LG 세탁기가 미국 중남미 지역의 판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신공장의 공급망 관리가 보다 유리해져 LG전자가 현지 가전 수요에 맞춰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 공장의 연간 생산능력은 100만 대 이상이다. 10초에 세탁기 1대꼴로 생산할 수 있도록 자동화 설비에도 적극 투자해 생산 효율을 높인다. 미국 신공장이 가동된 이후에도 경남 창원에서 생산해 미국에 판매하는 물량은 유지된다.

LG전자는 완공 시점까지 건설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비롯해 본격 가동 이후에는 세금 납부, 현지 부품 조달 등은 물론 연관 산업 파급 효과들이 이어져 현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완공 이후의 신공장 고용 인원은 600명 이상이다. 정유현 기자 yhssoo@

역세권·숲세권 못잖은 '스타필드 ★세권'

하남·고양 부동산 시세 견인 뚜렷
삼송 소형 아파트 6000만원 올라
입점 예정 안성·청라도 집값 들썩

신세계 대형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의 창원시 입점을 바라는 시민들이 19일 경남 창원시청에서 입점 찬성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신세계그룹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쇼핑테마파크 '스타필드'의 주변 지역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해당 지역뿐 아니라 주변 수요까지 흡수하는 초대형 쇼핑몰의 등장으로 일대 부동산이 들썩이며 향후 오픈할 지역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5일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정보에 따르면 2015년 9월 3.3㎡당 1155만 원이었던 경기도 하남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스타필드 하남'이 오픈한 지난해 9월 3.3㎡당 1439만 원으로 300만 원 가까이 상승했다.

고양시의 경우도 2015년 5월 3.3㎡당 941만 원에서 '스타필드 고양' 계획이 발표된 지난해 5월 988만 원으로 상승했다. 이어 올해 5월에는 1043만 원까지 오르는 등 이른바 '스타필드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삼송지구는 과거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렸지만, 스타필드를 비롯해 대형 쇼핑시설이 속속 오픈을 준비하고 있고 교통망이 개선되면서 서울 인접지역에서 가장 '핫'한 곳으로 떠올랐다.

때문에 '스타필드 고양' 인근의 '동산마을 22단지 호반베르디움' 전용 84.95㎡ 매매가는 지난달 기준 5억5500만 원(5층)으로 지난해 대비 (4억9000만 원) 6000만 원 이상 상승했다. 스타필드가 지역 내 명소로 자리매김하면서 유동인구와 상주인구가 늘어 주변 시세가 오르는 선순환 효과가 생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스타필드 고양'에는 프리오픈한 18일 하루에만 6만여 명이 방문하는 등 기존 쇼핑몰을 압도하는 방문객을 자랑하고 있다.

스타필드가 주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하남과 고양은 물론, 향후 스타필드가 들어설 예정인 안성, 청라 지역의 분양 물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스타필드 고양'이 입점한 고양 삼송지구에서는 역세권 주상복합 아파트인 '삼송역 현대 헤리엇'이 공급된다. 현대BS&C(현대비에스앤씨)가 삼송지구 M-4블록에 전용면적 59㎡형 총 364가구를 분양한다. 또 '스타필드 하남'이 위치한 하남시에서는 9월 대우건설이 하남시 미사 업무지구 6블록에 지하 6층~지상 23층, 총 1090실로 구성된 '미사역 마이움 푸르지오 시티'를 선보인다.

'스타필드 안성'(2019년 개점 예정)이 들어서게 될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에서는 우방건설산업이 '안성 공도 우방아이유쉘'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인천 청라국제도시에도 현대BS&C가 청라지구 C9-1-1블록에서 '현대썬앤빌 더테라스' 상업시설을 분양 중이다.

구성헌 기자 carlove@

Maxim

KANU ICE

입안 가득 진하게 퍼지는 카누의 풍미. 카누 아이스와 함께라면 여름의 풍경이 달라집니다

"8·2 소나기 일단 피해" 강남 재건축 속도 조절

신반포 센트럴자이·청담삼익 롯데캐슬 등
대형단지 4곳 분양 한두 달씩 미뤄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될 '상한제' 부담
조합·시공사 분양가 낮출지도 논의

8·2 부동산대책 발표로 시장에 냉기류가 흐르며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이 속속 분양을 연기하고 있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남권의 대형 재건축단지 4곳이 분양 일정을 연기했다. 8·2 대책이 강남 재건축시장의 거래를 막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당장 부동산대책의 소나기를 피하려는 이유로 풀이된다.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은 기존에 산정했던 높은 분양가를 내리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8·2 대책의 직격탄을 맞은 강남권 재건축아파트는 지난주 매매가가 0.13% 하락했다.

삼성물산이 개포동의 개포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하는 2296가구의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는 8월 마지막 주에 실시하려던 분양일정을 9월로 미뤘다. 이 단지는 당초 3.3㎡당 4500만~4600만 원의 분양가가 책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시세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조합과 시공사는 3.3㎡당 분양가를 300만 원가량 낮추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GS건설이 신반포한신6차아파트 757가구를 재건축해 짓는 '신반포 센트럴자이'도 이달 예정된 분양을 9월로 미뤘다. 이곳과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는 8·2 부동산대책 이후 처음으로 나오는 강남 재건축 물량이다. '신반포 센트럴자이'는 당초 3.3㎡당 4600만~4700만 원의 분양가를 산정할 계획이었다. 이곳 역시 대책 이후 투자심리가 경색되고 거래가 어려워지자 200만 원가량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청담동의 '청담삼익 롯데캐슬'(1230가구) 역시 9~10월로 예정돼 있던 분양일정을 11월로 미뤘다. 대림산업과 현대건설이 선보이는 초대형 재건축단지인 강동구 상일동의 '고덕주공3단지'(4066가구)도 이달에 계획됐던 분양일정을 다음 달 말로 연기했다.

하지만 분양일정을 미루는 방법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계획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땅값에 정부가 정한 건축비 등을 반영해 일정 금액 이상의 분양가를 책정하지 못하도록 막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입주권을 가진 조합원은 추가분담금을 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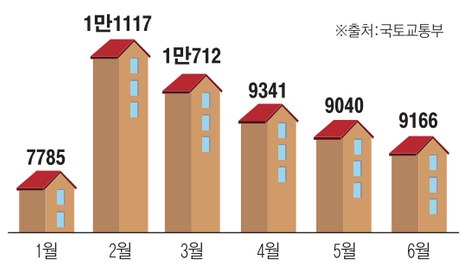
분양가상한제가 예고되면서 시공사와 조합 간의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전에 분양가를 낮춰서라도 일찍 분양하는 것이 이득이다. 이에 반해 조합은 일반분양 수입을 늘리기 위해 분양가를 내리길 꺼리고 있다.

김정웅 기자 cogito@

공급 과잉·조선 불황에 경남 집값 10개월째 하락

평균 매매가 1000만원가량 뚝
미분양 다소 줄었지만 9000가구대

2017년 경남 지역 월별 미분양 가구 수 (단위 : 가구)



경남 지역의 주택시장 침체가 계속될 전망이다. 8·2 대책의 직접적인 영향은 비켜 갔지만, 지역 경제 악영향에 공급과잉이 맞물려 약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5일 부동산114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5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가장 많은 5512가구의 입주물량이 쏟아졌던 경남에 내달 다시 3471가구의 입주물량이 나온다.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공급량이다.

경남의 올 한 해 총입주물량은 지난해보다 1만 가구가량 많은 3만8500가구다. 올해 전국 입주물량의 10%를 차지한다. 경남 지역의 주택 공급과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내년에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3만8510가구가 쏟아지는 데 이어, 2019년에도 3만 가구가 넘는 공급량이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미분양 역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남 지역 미분양 가구수는 2015년 3000가구 수준을 유지했지만, 지난해 초부터 점차 늘어나기 시작해 올해 2월 1만1117가구로 치솟았다. 이후 지속적인 진정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3개월 연속 9000가구를 넘고 있다. 수도권인 경기도를 제외하면 전국 최대 적체량이다. 조선·해운업종의 불황과 구조조정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데다 무분별한 분양이 맞물리면서 나타난 결과다.

실제 경남의 연도별 분양물량은 2014년(3만3393가구), 2015년(3만5785가구) 모두 3만 가구를 훌쩍 뛰어넘는다. 지난해에는 무려 5만 가구에 육박한다. 3년간 나온 분양물량만 총 12만 가구로 같은 기간 부산(7만6349가구)에 공급된 양보다 1.6배 많다.

공급과잉 여파에 경남 지역 집값은 지속적인 내림세를 보여 왔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경남 지역의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지난해 9월 1억9381만 원을 기록한 이후 10개월 연속 내려앉아 7월 기준 1억8000만 원대를 보이고 있다.

이현수 부동산114 연구원은 "입주물량이 집중된 경남과 울산은 조선·해운업 불황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줬고, 공급물량 집중과 맞물리며 부동산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며 "8·2 대책의 직접적 영향은 비켜 갔지만 지역 경제 악화 영향에 당분간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SH공사, 유엔 해비타트 '청년창업주거' 시설 지원 협약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유엔(UN) 해비타트와 청년 주거문제 해결과 창업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SH공사는 청년의 주거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인간정주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유엔 해비타트와 '청년 창업 및 주거 관련 협력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SH공사는 창업 공간이자 시제품 개발센터인 팝업랩(Pop-up Lab)을 설치해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유엔 해비타트가 추천한 청년에게 도전숙(SOHO Rental Housing)을 제공키로 했다. 유엔 해비타트는 SH공사가 제공한 팝업랩을 글로벌 비즈니스 기업의 네트워크 장소로 운영하게 된다. 두 기관은 청년 창업과 주거를 결합한 SH공사의 청년 창업 플랫폼 사업모델을 유엔의 정식 프로그램으로 표준화해 아시아 등 해외로 확산키로 했다.

변창흠 SH공사 사장(오른쪽)이 더글라스 라간 UN 해비타트 청년위원장과 청년 창업 및 주거 협력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SH공사

변창흠 SH공사 사장은 협약식에서 "청년이 우리의 희망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청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청년 주거와 일자리를 해결하는 SH공사의 사업모델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웅 기자 cogito@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KB금융그룹

모두를 위해 태어났다!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자산을 포트폴리오로

가입금액은 **낮추고** 위험은 **분산하고** 수익엔 **집중하는**

모두를 위한 자산관리의 탄생! 지금 바로 가입하세요!

KB able Account

가입고객 경품이벤트 [기간 : 2017.7.3~2017.10.31]

※별도의 이벤트 신청 없이 서비스 가입 시 자동 참여

1등	2등	3등
최고급 승용차 1명 (BMW 730dxDrive)	냉장고 2명 (삼성 셰프 컬렉션 메탈쿨링)	공기청정기 10명 (다이슨 퓨어쿨링크TP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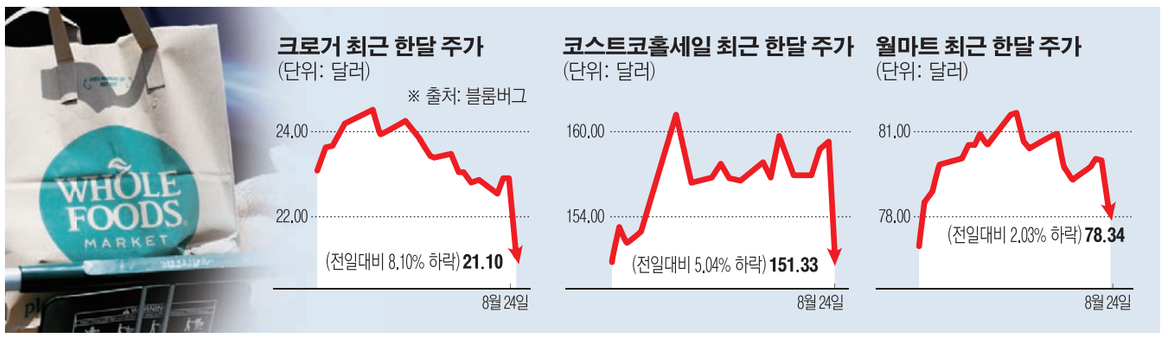
※가입고객대상으로 2017년 11월초 추첨 예정(홈페이지 공고) ※제세공과금(22%)은 당사 부담(단, 1등 경품은 본인부담)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7-02869호(2017년06월30일) *당사는 이 랩 계약에 관해 충분한 설명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충분한 설명 청취 후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자료는 계약의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계약의 권유는 약관, 계약권유문서에 따릅니다.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보수 및 위험관리 기준에 관하여 약관, 계약권유문서 등 관련된 제반자료를 꼭 숙지바랍니다. *투자일임자산은 고객 계좌별로 관리 운용되며 투자의 결과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서비스의 가입시점에 따라 계좌별 운용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랩수수료(선취 : 0% ~ 1.3% / 후취 : 연0% ~ 연1.3%)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KB증권

식품시장까지 먹어치우는 아마존… 경쟁업체는 직격탄

아마존, 홀푸즈 식품가격 인하… "친환경·유기농 비싸"
잘 팔리는 닭·아보카도부터 값 내린 뒤 품목 점차 확대
'아마존 프라임' 회원 혜택… 온라인 연계·직접 픽업도
"가뜩이나 마진 낮은데…" 식품업체 주가 일제히 하락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24일(현지시간) 유기농 식품 전문 유통업체 홀푸즈마켓의 식료품 가격 인하 정책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수순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아마존의 공격적인 가격 정책에 유통업계는 물론 식료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날 아마존은 28일부터 홀푸즈의 다양한 식료품 가격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홀푸즈마켓의 인수·합병(M&A)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식료품 가격을 인하하겠다는 이야기다. 이날 결정은 홀푸즈 이사회가 아마존의 137억 달러 규모의 M&A를 승인하고,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양사 합병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시카고 소재 금융회사 김미 크레디트의 캐롤 르벤슨 애널리스트는 "합병 절차를 끝낸 첫날 과감한 움직임에 나서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제프 윌케 아마존 소비자 사업부문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건강한 유기농 식품을 모두에게 합리적 가격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마존은 당장 닭과 계란, 아보카도, 친환경 양식 연어 등 홀푸즈 매장에서 가장 잘 팔리는 식품을 위주로 가격을 할인해 점차 범위를 늘릴 방침이다.

그간 미국 소비자 사이에서는 홀푸즈의 식품 가격이 비싸다는 인식이 컸다. 유기농이나 친환경 제품이다 보니 다른 경쟁업체보다 가격이 비쌌고, 이는 곧 회사 성장의 걸림돌로 지적돼왔다. 이에 아마존은 자사의 기존 유통망과 회원제 프로그램, 홀푸즈의 오프라인 매장 등의 강점을 총동원해 홀푸즈의 가격 경쟁력 끌어올리기에 나선 것이다. 회사는 또한 아마존 유료 회원제인 '아마존 프라임' 회원이 홀푸즈 식품을 구매할 때마다 아마존 리워드 포인트가 적립되도록 했다.

모건스탠리 집계에 따르면 홀푸즈 고객 중 약 62%가 아마존 프라임 회원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해당 리워드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받는 고객들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온라인에서도 홀푸즈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배송은 기존 아마존 유통 시스템인 아마존프레스, 프라임나우 등을 이용해 보다 빠르게 배송하기로 했다. 더 싸고 더 빠르게 소비자에게 제품을 전달하기 위해 판매와 물류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홀푸즈는 미국 전역에 460여 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두고 있는데, 아마존은 이 매장 내에 온라인에서 주문한 물건을 직접 픽업할 수 있는 로커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로써 고객들은 더 저렴하게 유기농 식료품을 구매하고, 포인트까지 적립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아마존의 이같은 선언은 가뜩이나 마진이 낮은 식료품 업계에는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아마존의 온라인으로 무장한 파괴력과 홀푸즈 브랜드 역량이 합쳐져 점유율 확대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다. 리서치업체 울프 리서치의 스콧 무스킨 애널리스트는 향후 식품업계 경쟁에 대해 "매우 잔인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소비하는 물건을 사는 방식 자체가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증시에서 아마존 경쟁업체 크로거는 8.10%, 코스트코홀세일은 5.04% 하락했다. 슈퍼밸류는 6.60% 추락했고, 잉글스마켓은 3.54% 하락했다. 특히 식품 유통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타깃은 3.99% 떨어졌고, 가격할인 면에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던 월마트조차 2.03% 하락했다.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아마존의 공격적 행보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캘리포니아 등 일부 생산자 사이에서는 '아마존 불매운동'도 점차 확산하고 있다. 미국 농산물시장은 8000억 달러로, 인터넷 판매는 5% 정도다. 일부 생산자들은 아마존의 농산물 시장 진입으로 가격 압박이 거세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유기농 제품을 소량으로 납품하는 업체들의 우려가 크다. 이들은 그간 품질 좋은 제품을 비교적 비싼 가격에 판매해 수익을 냈는데 가격경쟁력을 우선시하는 아마존의 등쌀에 유통 가격이 하락하면 수익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친환경 유제품 생산업체 대표는 "규모의 경제로 무장한 아마존이 진입하면서 가격 하락 압력이 강해질 것"이라고 경계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테크 인사이트 **글로벌 해운업계 자율운항시대 눈앞**

조타수 조작없이 스스로 항해…비용절감·안전 개선 기대

日 닛폰유센 후년 무인선 실험
유사시 대형 인명 피해 줄 듯

글로벌 해운업계도 자율운항 시대를 맞아 준비가 한창이다. 머지않아 조타수 조작 없이 스스로 항로를 찾아 태평양을 건너는 선박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최대 해운사인 닛폰유센(Nippon Yusen K.K.)은 2019년 태평양을 건너는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선박을 실험 운항할 계획이라고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즉 향후 일본과 북미를 오가는 컨테이너 선박을 무인선으로 실험 운항하겠다는 것이다. 닛폰유센의 자회사이자 선박 안전과 연료 효율 등을 연구하는 모노하코비 기술 연구소의 안도 히데유키 기획본부장은 이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밝히면서 시험운행이라는 점을 감안해 안전 대비 차원에서 선박에 일부 인원이 탑승해 대기하는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닛폰유센은 이미 레이더 제조업체 후루노전기, 통신장비 업체 재팬라디오, 도쿄계기 등과 협력 관계를 맺고 선박 충돌위험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연구에 착수했다.

현재 글로벌 해운업계는 비용절감과 선박 안전 개선 차원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무인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선박 엔진 제조사 롤스로이스홀딩스, 광산업체 BHP빌리턴, 화학 비료 제조업체 야라인터내셔널 ASA 등은 자율주행 선박 도입과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야라의 경우 5월에 2019년 해안가에서 자율주행 선박을 시험 운행할 목표를 밝히기도 했다.

일본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6월 일본 노동부와 해운업계 조선사는 공동으로 2025년까지 자율주행 운항 선박 250척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정부는 자동운항 선박 개발을 '일본재흥전략'에 포함했다. 이에 일본 2, 3위 해운사인 미쓰이 O.S.K와 가와사키키센(KKK)도 자율주행 선박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율주행 선박이 개발된다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운항 오류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334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해운업계의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에만 미국 해군 군함이 태평양에서 개입된 대형 사건은 4건에 달하며 이 과정에서 인명 피해는 물론 기계적 훼손 등이 발생했다. 지난주에도 원유를 실은 민간 상선이 미 해군 구축함인 USS 존.S.매케인 함과 말라카 해협에서 충돌했으며 이 과정에서 10명의 미국 국적 선원이 실종되고 5명이 부상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트럼프 "내 인생 최고의 개기일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생 최고의 개기일식이라며 트위터에 올린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자신의 팬이 만든 4장짜리 합성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다. 사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얼굴을 서서히 가린 이른바 '인간 개기일식' 모습이 담겼고, 맨 아래에 '사상 최고의 일식(THE BEST ECLIPSE EVER!)'이라는 자막이 적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문제로 공화당과 마찰을 빚어 언짢았는데 이 사진 덕에 기분이 좋아졌다는 후문이다. 트럼프 트위터

阿 드론 배송 선도하나… 르완다·탄자니아, 물류혁명 시동

완전 자동화 계획… 의약품 배송

첨단 기술의 발상지라 하면 흔히 미국 등 선진국을 연상한다. 그러나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배송, 즉 '드론 물류혁명'에 있어서는 아프리카의 빈국들이 선도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탄자니아는 내년 초 완전 자동화한 드론으로 의약품을 오지에 보내는 드론 배송을 실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이날 발표했다. 이는 르완다에 이어 동아프리카에서는 두 번째로 드론 배송에 나서는 것이다. 탄자니아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짚라인(Zipline)과 손잡고 드론 관제센터 4곳을 세우고 100기 이상의 드론으로 하루 2000회의 비행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드론업체와의 파트너십도 논의하고 있다.

짚라인의 켈러 리나우도 최고경영자(CEO)는 "모두가 로봇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통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부자들에 의해, 또 부자들을 위해 이뤄진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적 역량과 인적자원이 가장 풍부한 나라(미국)에서 이런 주요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현대적 규제 개혁과 기꺼이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 더 많은 변혁을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김용 세계은행(WB) 총재가 르완다에서 의약품을 실은 드론이 이륙하기 직전 이를 살펴보고 있다. 출처 WB 유튜브 캡처

실제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처럼 광범위한 드론 배송 프로그램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드론 배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아마존은 지난해 12월에 영국에서 첫 배송 시험비행을 완수했을 뿐이다. 다른 기업도 미국과 뉴질랜드, 스위스, 중국 등에서 제한된 실험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아직 드론 배송이 법제화되지도 않았다. 다른 나라들도 아직 관련 규정을 세워야 할지 모색하는 단계에 있다.

탄자니아 정부도 초기에는 드론 배송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관리들은 배송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지, 그리고 드론이 얼마나 많은 짐을 나를 수 있을지 등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이웃 국가 르완다의 성공에 자신감을 갖게 됐다. 탄자니아는 매년 6억 달러(약 6767억 원)에 달하는 의약품을 주로 트럭에 의존해 전국 곳곳에 보냈는데 도로 인프라 사정이 열악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13억달러 투자하고 겨우 50명 고용하는 애플

트럼프 일자리 창출 압박으로
아이오와에 데이터센터 건립

애플이 미국 아이오와 주에 13억 달러(약 1조4664억 원) 규모의 새 데이터센터를 설립할 것이라고 2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압박에 못 이겨 울며 겨자 먹기로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CNN머니가 보도했다.

애플은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의 데이터센터가 있는 아이오와 주에 13억 달러를 들여 데이터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이번 투자로 애플은 정규직 50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내년 초 착공할 예정이며 2020년부터 가동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워키 지역에 들어설 데이터센터의 총 부지는 2000에이커(약 244만 평)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사진)는 "새로운 데이터센터는 앱스토어의 지속적 성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애플과 함께 아이오와 주도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이오와 주 정부는 2억700만 달러의 세제 혜택을 애플에 제공하기로 했다. 또 아이오와경제개발청은 이날 오전 회의를 통해 1956만 달러의 투자 세액공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아이오와경제개발청의 데비 더햄 대표는 "우리는 오늘이 아이오와 주를 대표하는 기념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애플의 투자를 반겼다.

미국 주 정부가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최근 위스콘신 주는 세계 최대 전자기기 위탁생산기업인 대만 폭스콘에 대한 세제 혜택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다. 폭스콘은 100억 달러를 투자해 수년 안에 1만3000명의 직원을 고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의 아이오와 데이터센터 건설도 폭스콘과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트럼프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애플의 쿡 CEO는 나에게 큰 공장 3개를 약속했다"며 "아주 큰 공장"이라고 장담했다. 애플은 이미 캘리포니아, 오리건,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대도시에 데이터센터를 소유하고 있는데, 굳이 새로 데이터센터를 세운다는 점도 트럼프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추측을 뒷받침한다.

주목할 건 13억 달러를 쏟아부으면서 애플이 밝힌 일자리 창출 규모가 50개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캘리포니아 주의 샌프란시스코나 워싱턴 주의 시애틀 같은 곳은 정보·기술(IT) 붐의 핵심지로 엔지니어 수요가 많다. 그러나 아이오와 주의 경우 첨단 기술 산업이 샌프란시스코 같은 지역처럼 활성화하지 않아 일자리 수요도 그만큼 많지 않다. 애플이 아이오와 주에서 지급해야 하는 최저시급은 29.12달러로 결코 적지 않다.

다만 아이오와 주는 비교적 저렴한 에너지와 풍부한 풍력을 에너지원으로 실리콘밸리 경영진 사이에서는 인기 투자처로 꼽힌다. 구글은 25억 달러를 들여 데이터센터를 설립했고, 페이스북은 지난 5월 아이오와 주 알투나 지역에 15억 달러를 투자해 자사 최대의 데이터센터를 짓겠다고 발표했다. 애플은 아이오와 주에 지을 데이터센터의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국내법 惡用하는 수입차…나쁜 버릇 들였다”

‘한국판 레몬법’ 도입 주장한 김필수 대림대 교수

부품·공임비 국산차와 최대 10배차…국내 소비자는 ‘봉’

소비자 권리 강화해 자동차 문화 선진국으로 발돋움해야

국내에서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자동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교환이나 환불을 할 수가 없다. 차량을 사기 전에는 맛있어 보이는 오렌지였지만 막상 사고나면 먹을 수 없는 레몬이었던 셈이다.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수년 전부터 한국판 ‘레몬법’ 도입을 피력하는 사람이 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다.

차량을 구매하고 한 달 사이에 중대 결함이 수차례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소비자권리 보호법 가운데 레몬법이 가장 강력한 법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같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 같은 법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대림대 연구실에서 만난 김 교수는 “국내 브랜드는 차량을 대량 생산하면서 AS센터 구축이 잘돼 있다”며 “수입차 브랜드의 경우 AS센터가 부족해 지방에 사는 소비자가 불편함을 많이 겪는다”고 운을 떼며 수입브랜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서비스센터가 멀리 있다 보니 사설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받지 않을 경우 나중에 무상 AS를 받을 수도 없게 된다”며 “부품이나 공임비가 국산차에 비해 3~10배 높은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본격적으로 말을 이어나간 그는 “국내 소비자가 ‘봉’이나 ‘마루타’로 불릴 정도로 홀대받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수십 년간 자동차 산업을 재벌과 브랜드 중심으로 키우다 보니 아직도 그 관행이 남아있어 자동차 문화가 후진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자동차 선진국은 자동차 산업과 문화가 선진형으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가 주장한 것은 한국형 레몬법 도입의 필요성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가 한국판 레몬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 교수는 “레몬법 발의만 벌써 네 번째다. 이번에도 통과가 안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신차의 경우 소비자에게 부동산 다음으로 큰 재산인데 왜 이리 무심한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해외 국가 중에서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 대한 권리가 가장 센 미국은 차량 결함이 발생하면 회사 측이 차량에 결함이 없음을 밝혀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차량 결함이 발생하면 소비자가 그 결함을 증명해야 한다. 징벌적 보상제도가 있어 자동차 회사가 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천문학적 벌금을 물게 돼 있다.

김 교수는 국내의 법 실정이 수입 브랜드의 ‘버릇’을 잘 못 들였다고 말한다. 그는 “수입차 브랜드가 국내 법에 능숙해져 한국의 법대로 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차량 결함이나 문제가 발생해 법적 다툼이 생기면 소송을 장기간 끌고 가려고 한다”며 “법적 다툼이 길어질 경우 개인인 소비자가 겪는 피로도가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수입차 브랜드가 국내에서 나쁜 습관을 배웠다고 부연했다.

이에 그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문성 있는 시민단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교수는 “자동차 문화가 선진형으로 갈 수 있도록 전문성이 있는 시민단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상태에서 정부의 도움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소비자 중심의 자동차 공공기관을 설립해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용비 기자 dragonfly@

한국여성 인물사전 〈183〉박완서(朴婉緖)

집합적 기억으로 統合해 전쟁체험 재구성

박완서(朴婉緖·1931~2011)는 1970년 ‘나목(裸木)’으로 여성동아 여류 장편소설 응모에서 당선, 등단하였다. 경기도 개풍(개성)인 작가의 고향은 어린 시절 행복했던 ‘박적골’로 형상화되기도 하고, 5대에 걸친 개성 상인의 흥망성쇠를 다룬 역사소설의 배경(‘미망’)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숙명여고를 나와 서울대 국문과에 진학했으나 전쟁으로 다니지 못하였다. 1981년 ‘엄마의 말뚝’으로 이상문학상을, 1990년 ‘미망’으로 대한민국문학상을 수상하였다.

박완서는 40세의 늦은 나이에 주부로 여성잡지를 통해 등단한 특이한 이력에다 대중성과 문학성을 모두 지닌 작가로 손꼽힌다. 박완서의 소설은 크게 전쟁체험을 다룬 자전적 소설과 중산층 도시 소시민의 속물성과 허위의식을 다룬 작품들, 여성문제를 다룬 소설 등으로 나뉜다.

중산층 도시 소시민의 삶을 다룬 소설로는 ‘지렁이 울음소리’,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포말의 집’, ‘닮은 방들’, ‘휘청거리는 오후’, ‘도시의 흉년’ 등을 들 수 있다. 주로 초기 작품에서는 중산층 생활양식의 변화와 속물성, 허위의식 등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데 주력하였다.

특히 ‘휘청거리는 오후’(1977)에서는 초희, 우희, 말희 세 딸의 결혼을 통해 중산층 가정의 신분 상승 욕망이 만들어내는 가족 갈등과 도덕적 붕괴 과정을 잘 포착하고 있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1983)는 전쟁기에 버린 여동생 오목(수인)을 또다시 버리는 언니 수지의 이야기를 통해 중산층 만들기의 배타성과 속물성을 냉정하게 파헤친다. 박완서의 중산층을 다룬 작품들은 타자에 대한 배제를 통해 중산층의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우리 문학사에서 독특한 지위를 지니고 있다.

전쟁체험 소설로는 ‘나목’, ‘목마른 계절’, ‘엄마의 말뚝 1,2,3’,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그 남자네 집’ 등이 있다. 증언의 문학, 집합적 기억의 기록 등으로 평가되는 전쟁체험 소설들은 자전적 소설인 등단작 ‘나목’ 이후 조금씩 변형되면서 다시 쓰기를 지속해나간다. 전쟁체험의 다시 쓰기는 박완서 글쓰기의 핵심이라 볼 수 있다.

작가는 좌우로 분리된 채 형제간에도 총을 들이대야 했던 한국전쟁을 ‘짐승의 시간’으로 기억한다. 그녀의 작품은 빨갱이 콤플렉스에 갇혀 오랫동안 침묵해야 했던 짐승의 시간을 다시 쓰기라는 서사 전략으로 재소환하고 재통합하고자 하는 지난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문제를 다룬 소설로는 ‘살아있는 날의 시작’, ‘서 있는 여자’,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등이 있다. 여성문제 소설은 계몽성이 좀 더 앞선 작품들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1980, 90년대 페미니즘의 영향과 함께 박완서 소설의 독특한 현실의식, 균형감각 등을 보여주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선옥 숙명여대 기초교양대학 교수

이투데이 역사·여성·미래 여성사박물관건립추진협의회

美 복권 사상 최고액 당첨된 50代 여성

“내 몽상이 현실화…당장 직장 그만두겠다”

파워볼서 7억5870만 달러 당첨

미국 복권 사상 최고 당첨금인 7억5870만 달러(약 8558억 원)를 받게 된 주인공이 나왔다. 50대 여성인 그는 “직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숫자 맞추기 복권 ‘파워볼’을 운영하는 멀시트세이트 복권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 주 치코피의 머시 메디컬센터 직원 메이비스 웨인치크(53·여)가 당첨됐다고 발표했다.

파워볼은 흰색 공의 숫자 1부터 69 중 5개를 뽑고 파워볼 26개 중 하나를 뽑아서 나오는 숫자 6개를 맞추는 방식으로 로또와 비슷하다. 이번에는 미국 복권 사상 최고액인 7억5870만 달러가 당첨금으로 걸려 관심이 집중됐다.

미국 파워볼 역대 최고액 당첨자 메이비스 웨인치크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AP/연합

웨인치크는 기자회견에서 “내 몽상이 이뤄졌다”며 소감을 밝혔다. 당첨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일찍 은퇴할 계획이라며 이미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32년 동안 병원에서 근무한 웨인치크는 31살 딸과 26살 아들을 두고 있다.

당첨금은 일시금과 30년간 연금 형태로 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웨인치크는 세금을 제외하고 4억8000만 달러를 일시금으로 받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1인 당첨금으로는 최고액이다. 역대 최고 당첨금은 지난해 1월에 나온 16억 달러였으나 당시에는 3명이 나눠 받아 1인 당첨금 최고액을 기록하지 못했다.

이번 당첨금이 최고액을 기록한 것은 2015년 10월 흰색 공의 숫자를 59개에서 69개로 늘리면서 당첨 확률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최근 당첨 확률은 2억9200만 분의 1이다.

한편, 당첨복권을 판매한 프라이스스테이션스토어의 주인 밥 볼듀도 축하금으로 50만 달러를 받는다.

이주혜 기자 winjh@

이재현(왼쪽) 유럽 대표와 박주만 亞太 대표

이베이, 유럽·亞太 총괄에 한국인 전문경영인 임명

이베이가 유럽 지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 자리에 모두 한국인 전문경영인을 임명했다. 이베이는 이재현(53) 이베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괄대표를 유럽 지역 총괄대표로, 박주만(50) 이베이 호주 사장을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괄대표로 각각 임명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재현 대표는 한국과 호주 등 주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이베이가 1위에 오르는 데 기여했다. 박주만 대표는 호주 현지 전자상거래 1위 사업자로 위상을 공고히 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현대百, 소외계층 아동 희망기금 5.5억 기부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어린이 복지향상 지원’ 업무협약

현대백화점그룹이 소외계층 어린이 복지 향상을 위해 5억5000만 원을 기부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24일 서울 중구 정동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소외계층 어린이 학습 및 영양 지원 등 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소외계층 아동 학습, 영양,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5억5000만 원을 전달했다. 장호진 현대백화점그룹 기획조정본부 사장은 “2006년 현대백화점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한 이후 소외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매달 생계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번 희망기금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가 꿈과 희망을 품고 건강하게 자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사단법인 사랑의달팽이와 협약을 맺고 5년째 저소득층 청각장애 어린이에게 인공와우(달팽이관) 수술비와 언어치료비도 지원하고 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장호진(오른쪽) 현대백화점그룹 기획조정본부 사장이 24일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윤영석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에게 소외계층 아동 희망기금 5억5000만 원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백화점그룹

“사전규제에 국내 벤처 생태계 뒤처져”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스타트업 유연성 발휘하려면 네거티브 규제 대전환 필수적”

“스타트업·벤처 생태계의 규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전 규제’다. 미국과 중국처럼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고 사후 징벌을 강화하는 구조로 가야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는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은 24일 제주 하얏트리젠시호텔에서 열린 벤처포럼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대전환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의 연결고리는 클라우드와 데이터인데, 한국은 클라우드와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원천봉쇄돼 있다”며 가장 기본적인 규제로 데이터 공유를 지적했다.

그는 “오프라인 데이터를 모아 클라우드에 올려야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 등으로 후속 사업화와 창업이 가능하다”면서 “국내의 경우 금융과 교육 데이터를 올릴 수 없고, 헬스케어 데이터도 접근이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단계의 규제로 산업 간 ‘융합’을 관리하는 행정적 규제를 꼽았다. 이 이사장은 “4차 산업은 본질이 융합인데, 예컨대 헬스케어와 통신의 융합을 살펴보면 헬스케어는 보건복지부가, 통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해 규제가 복합적으로 작동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스타트업이 가볍게 뭔가를 내놓으면 큰 기업들이 빨리빨리 변화해야 하는데 규제들이 가로막고 있으면 스타트업들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24일 제주 하얏트리젠시에서 개최된 연례벤처포럼에서 “2000년대 초 한국 벤처 생태계는 미국을 제외하곤 세계 최고였다”면서 “새 정부 5년은 그 생태계를 복원해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 벤처기업협회

이 이사장은 벤처 생태계 구축 과정이 대기업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작은 기업들이 대기업을 대체해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은 오해”라면서 “모든 경제 시스템은 소기업의 혁신과 규모 있는 대기업의 효율로 이뤄진다. 혁신과 효율 사이의 결합이 잘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2000년대 초 한국 벤처 생태계는 미국을 제외하곤 세계 최고였다”면서 “새 정부 5년은 그 생태계를 복원해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전효점 기자 gradually@

인사

◆**대법원** 〈법원장 전보〉 △대법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김용빈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및 겸임〉 △서울고법 부장판사 유상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겸임 심준보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겸임해임 서울고법 부장판사 홍승면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 강성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총무과장 천승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장 이재유 △주몽골대사관 주재관 길강묵 △주일본대사관 〃 장희정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구윤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전보〉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장 신현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이선희

◆**소방청** △차장 우재봉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장 서중해

◆**한겨레신문** 〈편집인석〉 △참여소통에디터 이종규 △참여소통데스크 이동구 〈편집국〉 △애니멀피플팀장 남종영 〈광고국〉 △광고기획팀장 신의상

부음

▲**정동순**씨 별세, **조기형**(한풍제약 회장)씨 부인상, **성한**(동국대 회계학과 교수)·**성민**(평원ENG 대표)·**성옥**씨 모친상 = 23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6일 오전 7시, 02-3410-6912

▲**이한석**씨 별세, **성명**(화성 수영초등학교 교장)·**동영**(화신엔지니어링 부사장)·**진영**(모닝시스템 사장)씨 부친상, **문왕곤**(SBS 영상취재 선임기자)씨 장인상 = 24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6일 오전 8시, 02-3010-2231

▲**정지환**(대구 수성경찰서 상동지구대장)씨 부인상 = 24일, 대구 모레아장례식장, 발인 26일 오전 7시 30분, 053-801-9999

▲**김기수**씨 별세, **이창식**(중도일보 호남본부장)·**최홍석**(다인그룹 비서실 차장)씨 장인상 = 24일, 순천 정원장례식장, 발인 26일 오전 10시, 070-4858-0476

이순원의 **세상풍경** 소설가

개를 키워보면 알게 되는 것들

어릴 때, 집 마당에서 개를 키웠다. 요즘 집 안에서 키우는 작은 애완견이 아니라 집을 지키고, 나중에는 팔려 가기도 하는 큰 개였다. 바로 옆에 사는 작은집도 개를 키웠다. 두 집의 할아버지가 형제니까 할아버지들도 늘 왕래하시고, 가족들도 늘 왕래했다.

사람이 친하니 당연히 개들도 친해져 사람 따라 왔다 갔다 했다. 어떤 때는 먹이도 같이 먹었다. 더러 밥그릇 때문에 으르렁거리기도 했지만, 큰집, 작은집 왕래가 빈번하니 개들도 두 집이 친척인 걸 아는 것 같았다.

식구가 많으면 늘 잔반(殘飯)이 나오니까 개를 키우는 집이 많았다. 그런 집 아이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올 때면 개들도 사람을 따라 마당 바깥까지는 따라와도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았다. 왔다가도 이내 자기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선지 마당을 벗어났다. 남의 집 개 밥그릇엔 큰 개도 작은 개도 얼씬하지 않았다. 음식을 같이 먹고 나누는 큰집, 작은집 개들만 저희들도 친척처럼 지냈다. 잔치 때는 밤에도 집에 돌아가지 않고 마루 밑에서 같이 잤다.

어른이 되어 집에서 개를 길러보니 개가 사람을 참 많이 닮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 오래 같이 살다 보니 가족들이 쓰는 말을 개도 귀신처럼 알아듣는다. 아이들에게 "강아지 먹이 좀 줘라" 하면 그 말을 먼저 알아듣고 빨리 먹이를 내놓으라고 아이들에게 매달린다. 오래 키우던 개는 목욕하는 걸 참 싫어했는데, "목욕 좀 시켜라" 하면 그 소리가 나오기 무섭게 어디론가 숨어버렸다.

"오빠들 오는가 내다봐라" 하면 현관으로도 뛰어가고 출입구 쪽 베란다로도 뛰어간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개가 3년만 지나면 여우가 되고 구렁이가 된다고 했나 보다.

사람 말만 잘 알아듣는 게 아니다. 하는 꼴도 사람과 거의 비슷하다. 사람만 상상 임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도 상상 임신을 한다. 인형이나 작은 베개와 헛바람이 난 개는 수시로 침대 밑과 책상 밑, 장롱 구석을 파고든다. 실제로 헛배가 부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건 생리적 현상이라 하더라도 개는 또 천성이 사회적 동물이어서 서열 따지기를 사람만큼이나 좋아한다. 어느 집이나 개의 서열은 그 집에서 제일 끝이다. 그러나 부부만 사는 집이 아닌 다음엔 어느 집 개도 자신의 서열을 제일 끝에 두지 않는다. 이른바 서열 파괴와 서열 착각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 집의 아들딸보다, 특히나 그 집의 막내보다 자신의 서열이 더 위인 줄 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막 대들기도 한다.

왜 그런 착각을 하는 걸까. 개는 그 집 대장에 대해 정말 개처럼 충성을 다하며 대장으로부터 받는 귀여움을 남다른 총애와 권력으로 여긴다. 그러니 자신이 그 집 아들보다 더 총애를 받는 줄 여기게 되고 여기에 바로 자기 서열과 권력에 대해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 사회라고 해서 개 사회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권력자의 곁을 지키는 위치가 되면 자신이야말로 권력자의 마지막 방패와 같은 수호자이며 최측근인 동시에 모든 권력이 다 제 손 안에서 나오는 줄 알고 설치게 된다. 멀리 갈 게 어디 있겠는가. 지금 이런저런 국정농단 사건으로 줄줄이 재판을 받고 있는 지난 시절 최측근이라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본분 착각에 빠진 개의 모습과 무엇이 크게 다르겠는가.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그들의 사회성인 것이다. 사람이 잘못한 일로 괜히 개들만 이렇게 억울한 비유를 당한다. 이 세상에 나쁜 사람은 있어도 나쁜 개는 없다는데 말이다.

貨殖具案 (화식구안)

하태형 수원대 특임교수 前 현대경제연구원장

문재인 케어가 실시되면

정부는 MRI(자기공명영상), 심장초음파 등 종전에 비급여 항목이었던 3800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건강보험 개편안을 내놓았다.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의료서비스 개편 정책인데, 이 정책이 실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답을 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의료보험 정책의 역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 의료보험제도는 사실상 제도를 실시할 경제적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1977년에 시작되었다. 당시 국민소득이 1000달러를 겨우 넘는 수준이었으므로, 국민건강을 챙길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다.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 저부담, 저보장, 저수가의 이른바 3저(低) 시스템의 원칙하에 의료보험이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돈이 없다 보니 공공 의료기관을 정부가 설립하여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민간 의료기관에 의료서비스를 위탁하고 그 비용을 통제하는 구조가 되었다.

낮은 의료보험수가(酬價)가 적용되는데도 민간 의료기관들은 그동안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었을까? 의료보험제도가 처음 실시될 때 의료기관들은 당연히 불만이 컸지만 심하게 반발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당시 의료보험이 500인 이상의 대기업 직장인만 대상이 되었으므로, 가입자가 전 국민의 5%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89년부터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되어, 의료보험 대상자에 제한이 없어졌다. 그러자 병원들은 낮아진 의료수가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을 계속 늘려왔고, 그 결과 비급여 항목이 4000여 개에 달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또 이처럼 비급여 진료비가 커지자 환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실손(實損)의료보험 판매를 허용했다. 그 와중에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슬그머니, 그리고 꾸준히 올려 2016년 기준 20조 원이 넘는 누적 흑자를 기록하게 된다. 이제 정부는 이 돈을 사용하여 4000여 개에 달하는 비급여 항목을 거의 전부 보험 항목으로 적용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이러한 문재인 케어가 작동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 현재의 건강보험제도는 일종의 '의료서비스의 평준화' 정책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즉, 국내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자랑하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이나 동네 병원이나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한 의료수가가 적용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느 병원으로 가게 될까? 과거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실시하자, 지방의 똑똑한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모두 강남 8학군으로 몰리는 사태가 벌어졌고, 그 결과 서울과 지방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결과를 낳고 말았음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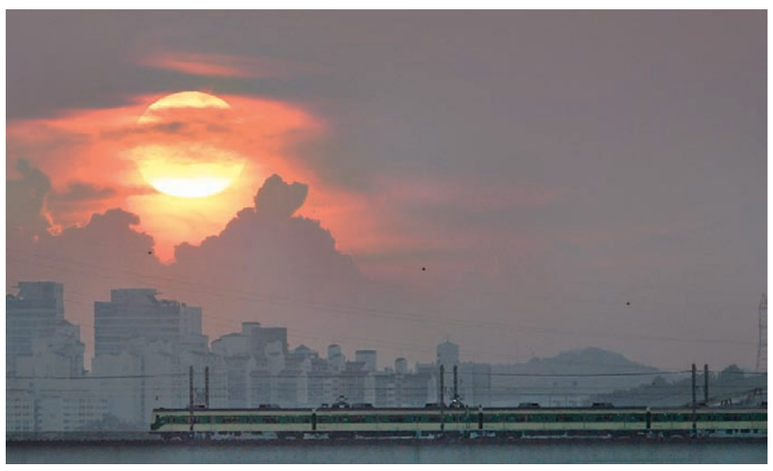
문재인 케어라는 의료서비스의 평준화 정책이 실시되면 그 결과는 자명하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병원 및 아산병원 등 소위 빅4로 환자들은 더 집중될 것이고, 이들 병원의 예약은 아마도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질 것이다.

수요가 몰리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경제학의 이치, 결국 세월이 지나면 강남 8학군의 집값이 폭등하듯이 정권이 교체된 몇 년 후에는 이들 빅4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료비용은 현실화해 크게 오를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는 또한 연쇄반응을 일으켜 결과적으로 이들 의료기관을 필두로 의료비용의 전국적 상승을 또 한번 불러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 현재의 의료보험은 말이 보험이지, 사실상 세금이나 다름없다. 현행 의료보험체계는 유지하되, 민간 의료보험을 확대하여 개인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본연의 보험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최선책이라 믿는다.

한 컷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아침에 왔던 길, 돌아가는 퇴근길. 석양빛으로 물드는 전철 안의 공기를 타고 '소곤소곤' 삶의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내일 하루는 어떨까요? 덜컹덜컹 덜컹덜컹…. 우리네 삶을 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카드로 보는 세상

'모자'의 영어 단어 'hat'은 영국에선 '뇌물'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집에 가다가 모자나 사서 쓰라"며 공무원들에게 푼돈을 주던 관습에서 유래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떡값'이 뇌물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인류의 역사와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뇌물에 얽힌 이야기도 다양합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열리는 오늘, '뇌물의 역사'는 오늘의 재판을 어떻게 기록할까요?

카드뉴스 전문을 보시려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래 주소로 접속하세요.
https://goo.gl/YZonga

온라인 와글와글

30대 그룹 1인당 매출 1.8%↓·인건비 4%↑ "이러니 일자리가…"

최근 6년간 30대 그룹 상장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은 떨어진 반면, 인건비는 매년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1~2016년 30대 그룹 164개 상장사의 재무실적 분석 결과 종업원 1인당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연평균 1.8%, 3.0% 각각 감소한 반면 인건비는 4.0%씩 상승했다.

1인당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2012년 10억7368만 원·7248만 원에서 2015년 9억5495만 원·5512만 원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9억5684만 원·6312만 원으로 소폭 개선됐다. 반면 종업원 1인당 인건비는 2011년 7522만 원에서 2016년 9169만 원으로 뛰었다. 대내외 여건 악화로 기업 매출과 이익은 축소됐지만, 인건비는 기업 실적 부진과 상관없이 올랐기 때문이다.

네티즌은 "강성 귀족 노조의 폐해인가", "이러니 신규 채용하겠나", "임원 인건비 빼고 다시 조사하자", "외국 기업이 한국에 오지 않는 이유"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진희 기자 jh6945@

이슈&인물

"LTV·DTI 규제 강화 맞지만… 청년층 내집마련 지원정책도 필요"

8·2대책과 청년주거복지

김 현 아

자유한국당 의원

젊고 자산 없으면 사지 마라?

LTV 규제 일부 풀 수도

보증금 지원·월세카드 도입

'청년 주거지원 특별법' 추진

8·2대책으로 과열세 꺾였지만

아직 예단하기 어려워…

정보 불균형 문제 해결 위해

'통합안내센터' 운영 필요

학자 출신 부동산 정책 전문가

김현아 의원은 20년간 주택·도시계획을 연구해온 건설·부동산 정책 전문가이다. 새누리당 마지막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이며, 경원대 도시계획학과 겸임교수 등을 지냈다. 현재 주택 정책을 중심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회의원 중 유일한 '부동산 전문가'인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최근 청년 주거 문제 해결과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정책적인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 의원은 주거 문제를 단순히 주거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주거복지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궁극적으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주택 정책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최근 김 의원은 네이버 오디오클립을 통해 '김현아의 집과 도시이야기 : 도시Rock'이라는 팟캐스트를 선보이고 있다. 그는 이 방송에서 신혼부부의 첫 임대차 계약부터 재계약 작성과 대리계약에 이르기까지 유의해야 할 점을 세밀히 알려 주는 등 실수요자들을 위해 주거 관련 '꿀팁'을 전하고 있다. 이 밖에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소통 창구를 열어 다양한 민원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입법 활동으로는 '청년주거지원 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4월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 국민의원 편에서 국민이 제안한 법안으로, 학자금 대출처럼 청년들에게 '주택보증금'을 지원하는 게 골자이다. 또한 장애인, 한부모 가정, 탈북민 등 소외계층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주담대 한도 축소…선의의 피해자 없어야

김 의원은 23일 이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투기지역 지정 △대출규제 강화 △양도소득세 강화 등 크게 세 가지이다. 그는 "심리적인 과열세를 꺾었다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한다"면서도 "진정세가 보이는데 이게 계속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으로 인한 시장의 반응은 두 가지이다. "한두 달 뒤 다시 반등할 것"이라거나 "강력한 정책이어서 계속 침체될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부동산 시장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며, "예단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려면 언론과 시장 간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무리한 예측이 없어져야 한다"며 "추가 대책보다는 시장에서 무엇을 정상화하느냐, 이런 쪽으로 논의를 가졌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번 8·2 대책으로 인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강화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든 데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일단 김 의원은 "LTV, DTI 규제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단순히 가계부채 측면에서는 엄격하게 운영하는 게 맞다"면서도 "그런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젊고 자산이 없으면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인데,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이 있다"며 "집이라는 게 자산 형성에 중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LTV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진국의 사례를 비춰 보면 강한 규제라는 이유에서이다. 그는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모기지 대출을 보통 20년에서 30년까지 한다"며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자기 소득에서 특별히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DTI가 엄격한 것 같지만, 대출 기한을 늘리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보 불균형'의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궁금한 게 있는 사람들이 답답해서 국토교통부에 전화하면 국토부에서는 금융위원회에 전화하라고 하고, 금융위에서는 은행에 연락해 보라고 떠넘기고, 은행에서는 시공사와 계약할 때 물어보라고 한다"며 "너무 답답해서 의원실로 연락하는 분들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민해 본 결과 한시적으로라도 '통합안내센터'를 만들어 부처 간 동일한 대답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에 이 같은 안을 제안했고, 국토부는 "검토하겠다"고 답한 상태이다. 그는 "주택 대책은 생활밀착형 정책이기 때문에 각각의 민원과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데 그걸 누가 친절하게 설명을 안 해주면 정보에 밝은 기회주의자들은 (법망을) 피해 가고, 정보에 무지하고 먹고살기 바쁜 사람들만 정보의 혜택을 보지 못하면서 피해를 보게 된다"고 현실을 꼬집었다. 또 "투기세력을 잡느냐, 안 잡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아무리 좋다고 해도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아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청년들은 일자리를 얻어서 세금을 내는 산업의 일꾼들이고, 신혼부부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주거와 복지를 결합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동근 기자 foto@

보증금 없어 감옥보다 못한 집에서…

김 의원은 작금의 주택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중산층이 많이 붕괴되고 소득이 양극화(兩極化)하고 있다"면서 "사람들의 요구 수준은 집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쾌적한 삶의 공간이나 주변의 편의시설 등 많은 공간을 원하는,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특정 지역에 공급을 늘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이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 문제는 영원히 풀 수 없는 숙제"라고 규정지었다.

한마디로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은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선의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주택 정책에 있어 청년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김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주거복지 대상으로 보면 사실 왜 이들을 우선순위(優先順位)에 두냐고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이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잠재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들은 일자리를 얻어서 세금을 내는 산업의 일꾼들이고, 신혼부부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주거와 복지를 결합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택 전문가 출신 국회의원인 만큼 김 의원은 입법을 통해 이 같은 구상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현재 준비 중인 '청년주거지원 특별법' 입법화 작업이 바로 청년들을 주거 정책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작업이다.

지원 방식은 '보증금 대여'를 검토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청년 주거 현장에 가봤더니 보증금이 전혀 없는 주택, 같은 원룸이나 고시원이더라도 보증금 여부와 크기에 따라 주거의 질이 달랐다"라면서 "보증금 지원책은 법적인 장치만 잘 마련하면 나중에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보증금을 무이자나 저리로 빌려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주택자 임대사업 투명화 효과도

그는 보증금 지원과 함께 '월세 카드'도 제안했다. 청년들이 월세를 신용카드로 지불하게 되면 신용도에도 좋고, 카드 마일리지도 쌓여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카드를 사용할 경우 집주인의 월세 소득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일부 기업형 임대사업자들은 월세 카드를 통해 관리비를 납부하게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어떻게 집주인들한테 이런 안을 인식하게 하느냐가 관건인데, 다행히 정부가 다주택자의 임대업자 등록을 유도하고 있어 방법이 있을 거라고 본다"면서 "청년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보조금을 주고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확산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장애인, 한부모 가정, 탈북민 등 소외계층의 어려움도 살필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소외계층은 기업이 짓는 민영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에 거주한다. 그런데 임대주택에서 일정 소득 이상이 발생해 자격 요건을 넘어서면 시중 임대료의 벽에 마주하게 된다. 김 의원은 "장애인, 한부모 가정, 탈북민도 민영주택에 갈 수 있어야 한다"면서 "주거사다리가 명확하지 않고, 주거 실태가 어떤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현장에 가서 실제 현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면서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의 이점이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하며 웃음 지었다.

이광호 기자 khlee@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길정우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박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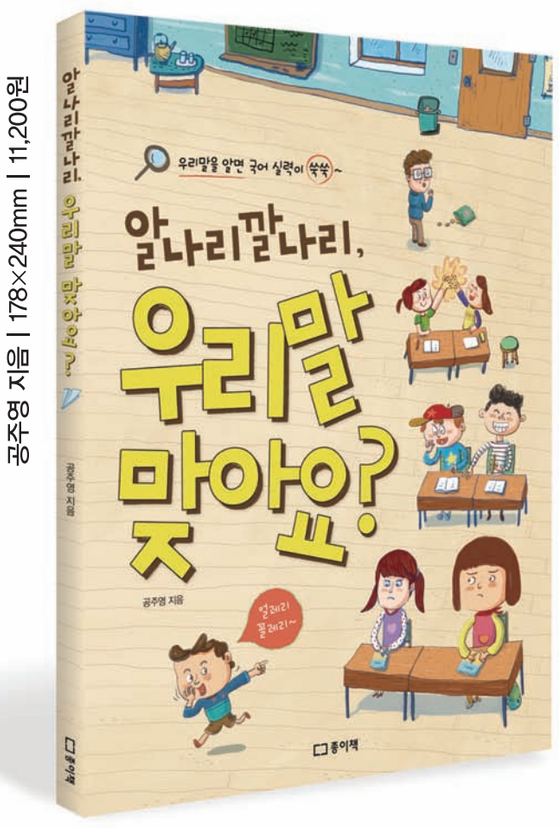
논설실 (02)799-6701 온라인뉴스부 (02)799-6741 사진팀 (02)799-2646
정치경제부 (02)799-2665 정책사회부 (02)799-2663 자본시장부 (02)799-2664
기업금융부 (02)799-2648 산업1부 (02)799-2612 산업2부 (02)799-2641

광고접수·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 10. 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공주영 지음 | 178×240mm | 11,200원

세 살 버릇 여든 가듯, 초등학생 국어 실력 평생 간다!
이번 여름방학, 포켓몬 잡으러 go? 내 아이 어휘력 잡으러 go, go!

1~4학년 교과서 수록 단어 포함!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낸 재미있는 우리말!

- 교과서 수록 단어를 포함한 우리말 160여 개 풀이
- 반복 학습을 돕는 <은솔이가 내는 쏙쏙 우리말 퀴즈>
- 자주 써서 오래 기억하는 <생활 속에서 우리말을 써 봐요>

온 · 오프라인 서점 절찬리 판매 중!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79길 2, 4층 | Tel. 02-540-5192 | Fax. 02-540-5194 리스컴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

신한금융그룹

오늘 배우는 내일의 디지털 금융

디지털로 만나는 **신한어린이금융체험교실**

학교에는 없는 교실이 신한은행에 열렸습니다

내일의 금융을 미리 체험해보는 디지털 금융 교실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보고, 느끼고, 깨달으며

지금보다 더 놀라운 금융의 주인공이 되도록

신한은행이 앞선 디지털 금융으로

아이들의 미래와 함께합니다

신한어린이 금융체험교실이란?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금융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올바른 경제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실제 은행 영업점과 동일한 환경에서 **'눈으로, 머리로, 몸으로'** 배우는 신한은행의 체험형 금융 교육입니다.

교육신청 : 신한은행 사회공헌 홈페이지 '아름다운 은행(www.beautifulshinhan.co.kr) – 청소년금융교육센터'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신한은행

당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樂園

Australia

❶울루루 낙타투어
❷울루루 캠핑
❸케언즈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❹케언즈 경비행기투어
❺케언즈 리프팅

세계서 6번째 큰 나라 – 호주

거대 산호암초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2000㎞ 이상 펼쳐진 옥빛 바다
따뜻한 온도 다이빙·스노쿨링 굿~

희귀 동식물의 보고인 '퀸즈랜드'
해안을 따라 450㎞ 트레킹·캠핑 딱!

세상의 중심·배꼽 애칭 가진 '울루루'
사막 한가운데 348m 거대 바위산
시간대별로 다른 빛깔…디너파티를

호주의 정식 명칭은 '오스트레일리아연방'이다.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나라이지만 인구는 2200만 명밖에 되지 않아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나라이기도 하다. 오페라 하우스가 있는 시드니, 그레이트 오션 로드가 있는 멜버른은 우리에게 친숙하지만, 호주에는 우리가 몰랐던 숨겨진 여행지가 많다. 하나투어는 국내에 덜 알려진 호주 여행지를 소개한다.

작은 해안 도시였던 케언즈는 현재 전 세계 관광객 사이에서 휴양지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한 지역에 두 곳이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등재돼 있기 때문이다. 케언즈의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퀸즈랜드 열대우림'이 그 주인공이다.

세계에서 가장 광대한 산호암초인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Great Barrier Reef)는 우주에서 유일하게 보이는 자연구조물이다. 오스트레일리아 북동 연안에 있는 아름답고 다양한 산호초 유적이다. 400종의 산호, 1500종의 어류, 4000종의 연체동물 등이 있는 세계 최대의 산호초 콜렉션으로, 멸종위기에 있는 초록거북, 듀공(海牛類) 같은 종이 서식하고 있어 과학적으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의 가장 경이로운 점은 옥빛 파란 바다가 2000㎞m 이상 펼쳐져 있다는 것이다. 따뜻한 바다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바다 낚시 코스와 다이빙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제공한다. 산호초 속 거북이와 다채로운 색상의 물고기들 틈에서 다이빙과 스노쿨링을 즐기다 보면 호주 여행이 더욱 특별해진다.

수많은 희귀 동식물의 보고로 불리는 퀸즈랜드 열대 습윤 지역도 장관이다. 오스트레일리아 북동쪽 해안을 따라 약 450㎞에 걸쳐 뻗어 있는 열대 지역이다. 오랫동안 고립돼 있었기에 멸종위기에 처한 다양한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최초의 육상식물부터 고등식물까지 진화의 주요 단계를 보존하고 있다.

울창한 열대우림에서 트레킹과 캠핑을 하거나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스컨 협곡에서 계곡물을 따라 리프팅을 하는 등 다양한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다. 협곡과 열대우림을 거쳐 해안선으로 나가면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가 펼쳐진다.

세상의 중심인 울루루에서 디너 파티를 즐겨보는 것도 추천한다. 동명의 소설을 바탕으로 만든 인기 멜로 영화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에 등장해 많은 연인들의 희망 여행지가 된 이곳은 세상의 중심, 세상의 배꼽으로 불리며 전 세계 많은 여행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해 질 녘 울루루를 바라보며 즐기는 디너파티는 잊지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초대 수상 헨리 에어즈의 이름을 따 '에어즈 록(Ayers Rock)'으로 불리지만 본래 이름은 울루루(Uluru)이다. 원주민 언어로 '그늘이 지난 장소'라는 의미이며, 원주민들에게 매우 신성시되는 곳이다.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에 우뚝 솟아 있는 에어즈 록은 에펠탑보다 48m 높은 높이 348m의 거대한 단일암체 바위산이다. 단일 암체(岩體)로는 세계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바위산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 겉으로 드러난 규모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땅 속에 묻혀 있는 부분이 더 클 것으로 짐작되는 에어즈 록은 지금으로부터 약 5억 년 전에는 바다였던 이 지역이 오랜 세월 동안 육지로 바뀌는 과정에서 형성됐다고 한다.

시간대 별로 각기 다른 빛을 반사하며 특히 해질녘 붉게 타오르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3만 년 전 인류가 거주했다는 증거가 남아 있으며 암각화를 비롯해 5000년 전 원주민이 거주했던 증거도 곳곳에 남아 있다. 문화적 가치와 자연경관의 특이성을 인정받아 1994년 유네스코 세계 복합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순수함을 간직한 타즈매니아에서 트레킹을 한 후 와인 한 잔의 여유를 누려 보자. 호주의 동남쪽에 위치한 섬 타즈매니아는 흔히 '버드나무가 줄지어 선 개울과 푸른 초원이 융단처럼 깔려 있는 곳' 이라고 묘사된다. 그만큼 아름다운 전원 풍경을 간직하고 있다.

호주의 전원생활을 체험해보고 싶다면 타즈매니아를 여행 일정에 챙겨 넣을 만하다. 타즈매니아는 호주에서 가장 독특한 생활 분위기를 간직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운전자들이 서로 손을 흔들며 지나가고 자동차 문을 잠그고 다닐 필요도 없으며 한가롭고, 단순하며, 정겨웠던 과거의 그 시절이 여전히 아로새겨져 있는 곳이다.

영국의 시골 마을 같은 정겨움이 있으며 아직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원시림도 있을 정도로 때 묻지 않은 순수 자연을 자랑하고 있다. 또 타즈매니아는 호주에서 알아주는 와인 산지로, 피노(pinot)와 샤도네이(chardonnay) 품종은 호주에서도 으뜸으로 친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날씨와 생활

기초체력 떨어진 피부 찬바람 불 때 지키려면

❶에스트라 '아토베리어 로션'
❷나인위시스 '라이스 파우더 폴리쉬'

세라마이드 보습제로 '수분' 충전하고
저자극 각질제거로 '피부장벽' 높여야

늦여름에는 피부 건강을 위협하는 적이 많다. 오락가락하는 일교차가 피부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심하게 만드는가 하면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져 유분기로 표면은 번들거리는데 속은 건조할지도 모른다.

여름 내내 끈적임을 피하기 위해 산뜻한 느낌의 제품 사용을 늘리다 보니 표피를 통한 수분 충전에 소홀해 피부 기초체력이 떨어져 있기 쉽다. 다가오는 환절기에 급격한 피부 손상을 막기 위해서는 늦여름부터 피부를 튼튼하게 가꿔야 한다. 외부 유해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피부 장벽에 우선 신경써 보자.

피부 장벽은 표피층에서도 가장 바깥쪽인 각질층에 위치하며 피부 장벽이 있는 각질층은 천연 보습인자를 함유한 각질 형성 세포와 그 세포 사이사이를 메운 세포간 지질로 구성된다. 피부 장벽이 무너지는 원인은 선천적 요인과 환경 변화, 스트레스, 과도한 알코올, 고함량의 AHA와 BHA 혹은 계면활성제가 함유된 화장품을 사용하는 습관 등이다.

여름철에 급격하게 높아진 온도와 강력한 자외선으로 손상되기 쉬운 피부 장벽을 강화하려면 보습과 각질 제거가 필수다. 세라마이드와 지방산으로 불리는 세포간 지질 성분은 피부 표면을 매끄럽게 해주는 동시에 수분 손실을 막아준다.

에스트라의 아토베리어 로션은 세라마이드를 고함유해 건조하고 약해진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보호해준다. 피부 지질 성분을 함유한 소프트 캡슐 제형의 더마온은 피부장벽이 손상된 부위에 부족해진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등의 지질성분을 효과적으로 집중 공급한다. 부드럽게 바르기 쉬운 로션 타입이라 바르는 즉시 건조한 피부에 빠르게 흡수돼 촉촉함을 오래 유지시켜준다.

피부 장벽이 무너졌다는 건 각질세포간 지질이 탄탄하게 붙어 있지 않고 느슨해진 상태다. 피부가 민감해진 상태를 의미한다. 그렇다고 눈에 보이는 각질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클렌징이나 물리적 마찰을 가하면 오히려 표피가 예민해져 증상이 악화되는 역효과가 발생한다. 부드러운 저자극성 각질 제거제를 활용해 묵은 각질은 정리하고 프로폴리스 추출물을 함유한 제품을 발라 피부 장벽을 강화해야 한다.

나인위시스의 라이스 스크럽은 미세한 쌀가루 입자로 자극적이지 않아 부드러운 스크럽이 가능한 제품이다. 피부 자극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미세한 쌀가루 입자가 피부에 부드럽게 녹아 피부 자극이 적어 민감한 얼굴외 피부, 입술 등에도 사용 가능하다. 또한 쌀가루 속 비타민과 미네랄, 아미노산 등은 수분 흡수력과 미백 효과가 뛰어나 촉촉하고 환한 피부로 가꿔준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상품의 속살

스타벅스 '디카페인 에스프레소' 출시…진짜 카페인이 없을까?

원두에서 카페인 함량 90% 이상 제거
일부 남아… 계속 마시면 적정량 초과

커피전문점 업계 1위 스타벅스가 디카페인 커피 음료를 판매하면서 디카페인 관련 시장이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카페인 중독, 불면증 등 건강을 염려하는 현대인들 사이에서 디카페인 커피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디카페인 커피에도 카페인이 소량 남아 있으며, 공정상 화학물질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들은 꼼꼼히 따지고 음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스타벅스는 22일부터 전국 1060개 매장에서 카페인을 제거한 '디카페인 에스프레소 음료'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스타벅스 디카페인은 원두 기준 99%의 카페인이 제거돼 카페인에 민감한 이들이나 임신·수유 중인 사람,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하기 적합한 음료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커피전문점 업계 1위 스타벅스는 22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디카페인 에스프레소 음료'를 판매하고 있다.

디카페인 커피 시장은 미국, 일본 등에서 매년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디카페인 원두 수입량이 2010년 124만㎏에서 지난해 300만㎏으로 6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디카페인 커피라고 해서 무조건 카페인이 없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식품의약안전처의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따르면 원두에서 카페인 함량을 90% 이상 제거한 경우 '디카페인'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즉 디카페인 커피라고 해도 최대 10%의 카페인이 남아 있는 셈이다. 카페인이 없다고 무심코 계속 마셨다간 오히려 하루 섭취 적정량을 넘길 수도 있다.

또 디카페인 커피를 만들 때 주로 염화메틸과 에틸아세테이트라는 유기 용매를 사용하는 화학적 방식을 쓴다. 특히 염화메틸은 커피의 카페인을 씻어내지만, 독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돼 국내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사용해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1985년 식품의약국(FDA)이 디카페인 커피 제조에 사용되는 용매들의 안정성을 확인했다. 이에 화학 잔여물을 기준치 이하로 제거하는 조건으로 화학물질을 용매로 사용하도록 허가하고 있다. 미국 스타벅스에서는 오래전부터 디카페인 커피를 판매해왔지만 국내 스타벅스에서는 출시가 늦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

스타벅스 측은 "식약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이산화탄소로 카페인을 제거하는 방식을 개발해 사용했다"며 "일반적인 카페인 제거 공정보다 투자비가 많이 들어 원두 가격이 조금 비싸지만 커피의 맛과 향을 완벽하게 유지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산화탄소를 이용하는 방법은 비용이 많이 들어 업계에서는 사용을 꺼려왔다. 그동안 국내 커피전문점 중에선 커피빈의 서울 일부 매장과 탐앤탐스 프리미엄 매장 등에서 디카페인 커피를 취급해 왔다. 커피빈은 생두를 물에 넣어 커피 성분을 용해한 후 탄소 필터로 카페인을 제거하는 100% 비화학처리 친환경 공법을 사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디카페인의 안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고, 식품 제조자들이 지켜야 할 위생 규정만 있다"며 "결국 소비자 스스로 디카페인을 구입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우아진役 김희선

“박복자役 탐냈는데… 난 타고난 우아진”

‘시청률 여왕’인데… 1회 2% 성적 보고 충격
“곧 사람들이 알아볼 것” 작가 믿음대로 대박
우아진 보며 ‘좋은 아내·엄마’ 모범답안 찾아
25년간 부침없는 연기… ‘제2의 전성기’ 만끽

“안녕하세요!”

어느덧 불혹을 넘긴 나이지만, 왕년의 하이틴 스타는 여전히 상큼했다. 인터뷰 장소에 들어서면서부터 하이톤의 목소리로 인사를 건넨 배우 김희선. 그가 재벌가 며느리에서 남편의 외도로 이혼 후 새 삶을 개척하는 우아진 역으로 열연한 JTBC ‘품위있는 그녀’는 해당 방송사 드라마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작품의 화제성 순위는 1위에서 떨어질 줄 몰랐고, 김희선 역시 쏟아지는 연기 칭찬과 관심에 행복한 비명을 질렀다.

“반응이 좋으니까 저도 좋죠. 사실은 주위 사람들이 더 좋아해요. 시댁 식구들도 그렇고, 다들 예뻐해 주시니까 기분이 좋죠. 심지어 제 아이 친구들도 알더라고요. 배우로서는 제일 행복한 순간이죠.”

사실 ‘품위있는 그녀’가 처음부터 흥행가도를 달린 것은 아니었다. 첫 방송 시청률은 2%(닐슨코리아)에 불과했다. 좀처럼 실패를 맛 본 적 없는 김희선이었기에, 시청률 파이가 잘게 쪼개져 종편이나 케이블 채널의 경우 5%만 넘어도 ‘대박’이라 불리는 최근의 드라마 환경이 그에게는 다소 적응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1회 시청률 보고 은퇴하려고 했어요.(웃음) 실망한 정도가 아니었죠. 저는 드라마가 잘된다 싶으면 시청률 40%도 넘던 시기에 활동했으니까요. 집계 방식에 의문이 들 정도였다니까요.”

김희선을 생각하며 ‘품위있는 그녀’의 우아진 캐릭터를 만들었다는 백미경 작가에게는 확신이 있었다. 저조한 초반 시청률에 자책하던 김희선에게 ‘곧 사람들이 다 알아 봐 줄 것’이라고 용기를 북돋워 줬던 것이 백 작가였다.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는 박복자 역할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런데 백 작가가 ‘넌 우아진이야. 언니 말 들어’라고 하더라고요. 자신을 믿어 달라는 말에, 백 작가만 따라가기로 했죠.”

김희선은 극중 우아진과 같은 ‘강남 엄마’다. 부담스러울 법도 했을 수식을 쿨하게 인정한 그가 엄마로서의 자신에게 몇 점이나 줄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아이랑 같이 있으면 100%로 잘 해요. 저와 아이 사이에는 확신이 있어요. 제가 곁을 비워도 아이가 저를 찾지 않을 때 사랑의 크기가 큰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딸과 노는 모습을 보면 마치 아빠와 아들을 보는 것 같다며 호탕한 웃음을 지어 보인 김희선은 아내로서의 자신이 ‘품위있는 그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늘 성숙하고 품위있는 모습의 우아진을 연기하면서 캐릭터의 좋은 점들을 배워가고 있었다는 소리다.

“드라마 속 상황에 실제 저를 대입시켜 볼 때가 있어요. 김희선이라면 절대 그렇게 못 했을 현명한 처신들을 보면서 ‘이럴 땐 이래야겠구나’ 싶은 거예요.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 좀 더 노력하게 됐어요.”

‘품위있는 그녀’를 통해 김희선이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는 평들이 가득하지만, 사실 그는 정상에서 내려온 적이 없다. 김희선은 25년 동안 부침 없이 활동할 수 있던 비결로 미모 만큼이나 변치 않는 솔직함을 꼽았다. 여배우에게 주당 이미지가 치명적이었던 시절에도 그는 술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이전보다 더 솔직해진 김희선의 이야기들은 그의 진일보를 보여주기 충분했다.

“제가 딱 하나 잘 했다고 생각하는 건 늘 솔직했던 거예요. 어릴 때는 술이 좋아서 마셨다면, 이제는 사람과 분위기가 좋아서 마셔요. 아이가 술 마시는 얘기 좀 그만하라고 하지만…(웃음)” 라효진 기자 thebestsurplus@

사진제공 힌지엔터테인먼트

JTBC 드라마 ‘품위있는 그녀’

박복자役 김선아

“박복한 그녀 덕에… 내 연기 인생은 다복”

교생·형사·임원·백수… 그러다 만난 박복자
독한 여자의 속사정… 감정이입하니 ‘울컥’
“무조건 해야겠다” 제작·출연진과 열혈작업
‘내 이름은 김삼순’ 바꿀 ‘인생 캐릭터’ 찾아

파격적인 연기 변신을 선보인 여배우를 꼽으라면 단연 김선아다. 그는 교생, 형사, 기업체 임원, 동네 백수 등 다양한 캐릭터를 제대로 소화했다. 그중 MBC ‘내 이름은 김삼순’의 김삼순 역은 김선아의 필모그래피 뿐만 아니라 한국 드라마 여성 캐릭터 가운데서도 독보적이다. 하지만 이제는 JTBC ‘품위있는 그녀’의 박복자를 김선아의 인생 캐릭터라 불러도 좋을 듯하다.

“‘삼순이’ 이후 ‘복자’로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두 캐릭터 모두 이름이 촌스럽네요.(웃음) 또 다른 이름이 있는 것도 그렇고요. 박복자는 어렸을 때부터 성격도, 성장 과정도 계속 바뀌는 인물이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재밌게 봐 주셨던 것 같아요.”

청춘물이 유행하고 있는 최근 드라마 업계에서 김선아와 김희선, 두 여성 배우를 투톱으로 내세운 ‘품위있는 그녀’의 등장은 확실히 신선했다. 대박 사례보다는 쪽박 사례가 많은 100% 사전제작 드라마인데다가 유난히도 더웠던 올여름 작품 배경이 겨울이었다는 것은 악재로 작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품위있는 그녀’는 이 모든 우려를 기우로 만들며 보기 좋게 성공했다.

“40대 여배우 두 명이 등장하기도 하고, 우리 드라마에 유독 여자 배우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캐릭터들도 천편일률적이지 않고 다양해서 이야기할 거리도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인지 드라마 시작하고 나서는 연락이 끊겼던 분들에게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박복자가 무섭다고들 했지만요.”

김선아가 박복자에게 완벽히 감정을 이입할 수 있던 배경에는 ‘연민’이 존재했다. 캐릭터 전사(前史)를 설명하면서 그는 문득 감정이 복받친 듯 눈시울을 붉혔다.

“드라마 20부를 통틀어 박복자가 가장 안쓰러웠던 장면은 마론 인형을 사러 갔다가 못 사고 돌아오는 대목이었어요. 어릴 때도 결국 종이 인형밖에 가지고 놀지 못했는데…. 이 인물에게 정말 필요했던 건 따뜻한 말 한마디였을 뿐이지만 복자는 이런 사소한 것들조차 갖지 못했던 거죠.”

김선아는 SBS ‘여인의 향기’에서 암환자 이연재를 연기할 당시를 떠올리며, 박복자가 느꼈던 애틋한 마음에 대입했다. 캐릭터 설정상 해쓱해 보여야 했기에 식사도 잘 못하고 인물 표현에 몰입했던 그에게 촬영 현장을 지켜 보던 누군가가 주머니를 털어 초콜릿 다섯 개를 쥐어 주고 갔던 기억이 아직도 고마움으로 남아 있다.

“사람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정말 예상치 못한 시점에 인생을 알게 되잖아요. 등산하다가 당이 떨어졌을 때 누가 사탕을 줄 때의 고마움이랄까? 박복자에게도 별것 아니지만 버틸 수 있는 작은 힘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드라마의 화자가 박복자였던 것도 이런 이야기들을 간접적으로나마 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을까 해요.”

이처럼 김선아 자신에게도 오랜 여운을 남긴 박복자를 완성하는 데는 ‘내 이름은 김삼순’에서도 함께했던 김윤철 PD의 도움이 컸다.

“연기를 하는 저도 그렇지만, 전체 조화를 맞추는 건 역시 감독님이세요. 처음에는 박복자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는데,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국에는 ‘무조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작진과 출연진의 신뢰 속에 드라마의 중요한 비밀들은 최종회까지 철통 보안을 유지했고, 시청자들은 드라마에 깊이 몰입할 수 있었다. 혹시라도 결말과 관련된 말을 해 버릴까 사람도 피해 다녔다며 너스레를 떤 김선아는 이제 김삼순이 아닌 박복자의 얼굴로 웃고 있었다. 라효진 기자 thebestsurplus@

사진제공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사진제공 SBS

돌아온 ‘추블리’

SBS 새예능 ‘추블리네가 떴다’
낯선 몽골서 현지인처럼 생활
他 방송사 ‘가족 예능’과 차별화

‘추블리네가 떴다’가 26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다. 가족 예능의 범람 속 ‘추블리네가 떴다’를 바라보는 시선은 다양하다.

SBS 새 예능 ‘추블리네가 떴다’(연출 정순영)는 추성훈, 아내 야노 시호, 딸 추사랑과 악동뮤지션, 김민준 등이 몽골에서 14일간 생활하는 모습을 그린 여행 프로그램이다. 꽉 짜인 여행스케줄 대신 현지 사람들과 어울리며 평범한 일상을 경험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출연진도 화려하다. 몽골 거주 경험이 있는 악동뮤지션이 여행의 가이드로 나서며 추성훈을 중심으로 한 종합격투기 선수 김동현 강경호 배명호, 야노 시호를 주축으로 한 모델 아이린 엄휘연, 모델을 거쳐 배우로 활동 중인 김민준 등 각양각색의 캐릭터가 뭉쳤다.

최근 다양한 형태의 가족 예능이 범람하는 만큼 ‘추블리네가 떴다’의 론칭 소식이 전해지자 대중은 여러 반응을 나타냈다.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포맷이지만 시청자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것 또한 사실인 만큼, 몇몇 네티즌들은 이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가족 예능이 산재해 있는 만큼 후발주자인 ‘추블리네가 떴다’에는 자신만의 확실한 아이덴티티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미 방송을 통해 자신들의 일상 모습을 공개했던 추사랑 가족이기에, 대중의 기본적인 호감도와 기대를 뛰어넘을 만한 새로운 무기가 필요하다. 이에 ‘추블리네가 떴다’가 내세우는 것은 ‘낯선 곳에서 현지인처럼 살아보기’라는 기본 콘셉트다.

‘추블리네가 떴다’는 가족 예능에 여행 예능의 재미를 더하고, ‘거주’의 개념을 집어넣으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이국적 풍광이 주는 시각적 즐거움과 좌충우돌 몽골 거주에서 나오는 재미, 도시생활과는 확연히 다른 삶을 바라보며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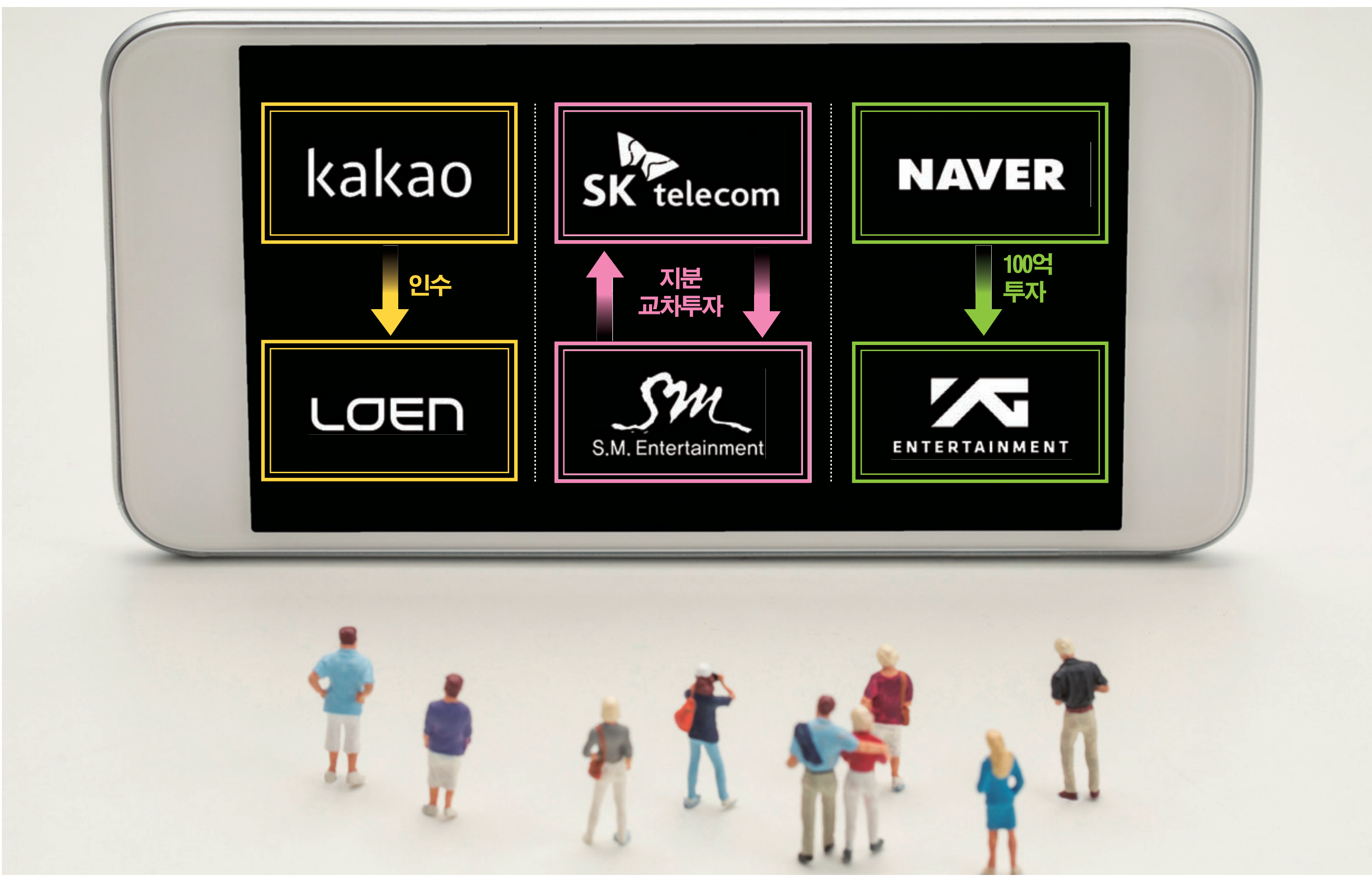
연출을 맡은 정순영 PD의 말은 프로그램의 차별점을 더욱 명확히 설명한다. 정 PD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목적 없이 현지인처럼 사는 여행을 시도했다. 호텔 대신 집을 빌리고, 슈퍼와 전통시장에서 산 재료도 요리를 직접 만들어 먹는 등 그 나라 사람처럼 살아보는 모습을 담은 프로그램”이라면서 “대자연 속에서 동물과 교감하고, 마을 이웃의 대소사에도 참여하는 모습 등 ‘추블리네가 떴다’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도 색다른 여행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추블리네가 떴다’에 대한 관심도는 높다. 과거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개국공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던 만큼 추사랑 가족에 대한 호감도와 기대감은 충분하다. 최근 ‘미운우리새끼’, ‘동상이몽2’, ‘싱글와이프’ 등 가족 예능으로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 SBS인 만큼, ‘추블리네가 떴다’가 또 하나의 히트상품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김예슬 기자 yeye@

콘텐츠 제작사, 플랫폼 기업의 하청업체로 머물까

네이버, YG 지분투자 2대주주로
카카오, 로엔엔터테인먼트 인수
SKT·SM 자회사 지분 교차투자
할리우드처럼 플랫폼 개발 대신
IT 거대 자본에 기대 콘텐츠 유통
윈·윈 관계라지만 ‘갑을’ 변질 우려



디즈니가 넷플릭스와 결별하고 자체 스트리밍 플랫폼 개발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 기술 업체 BAM테크에 15억8000만 달러(약 1조 7800억 원)를 투자했고, 지분 투자율을 33%에서 42%로 늘렸다.

네이버가 YG엔터테인먼트에 1000억 원을 투자했다. 이와 함께 네이버는 단숨에 YG엔터테인먼트의 2대 주주로 올라섰다. 이에 앞서 카카오는 로엔엔터테인먼트를 인수했다. SK텔레콤과 SM엔터테인먼트도 자회사 지분 교차 투자를 통해 협력 관계를 맺었다.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 시장이 나날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 시장과 미국 할리우드의 행보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자체 플랫폼을 개발하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기존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양상이다. 한국의 간판급 콘텐츠 제작사들과 손잡고 콘텐츠 제작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기존 플랫폼의 하청업체로 전락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불거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가입자 수가 올해 초 미국 내 케이블TV 가입자 수를 제쳤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온라인 스트리밍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아직은 온라인 오리지널 동영상을 즐기기보다는 지상파, 케이블의 방송을 TV를 대신해 보는 수준이다. CJ에서 개발해 서비스 중인 티빙(tving)이 대표적인 예다. SM엔터테인먼트에서 자체 SNS 플랫폼인 바이럴(Vyrl)을 개발하긴 했지만 큰 반향을 일으키진 못했다.

그 사이 네이버, 카카오 등 IT 업체들은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웹드라마·웹예능 제작 지원 등을 통해 자체 오리지널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에서 나아가 네이버의 YG 지분 투자, 카카오의 로엔 인수, SK텔레콤의 SM 협력 계약 등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콘텐츠 자원 확보에 나섰다.

로엔이 카카오의 자회사가 되고, 콘텐츠 자체 생산 능력을 갖춘 YG엔터테인먼트와 SM엔터테인먼트가 기존의 플랫폼과 손잡는 상황이 연속해서 벌어지면서 “콘텐츠 하청 업체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IT 업체들의 거대 자본에 상대적으로 영세한 콘텐츠 제작사들이 휩쓸리지 않겠냐는 것이다.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사들은 ‘협업’과 ‘효율성’을 강조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SM엔터테인먼트와 교차 투자 협약을 맺으면서 “혼자서 성공하는 시대는 끝났다. 글로벌 플레이어,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과 함께 단단한 항공모함 함대를 구축해 ICT(정보통신기술) 생태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신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도 2분기 실적 발표 당시 “창작과 사업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도구와 데이터를 제공해서 신뢰받는 기술 플랫폼이 되는 데 모든 노력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직접 투자보다는 킬러 콘텐츠 유통권과 주제형 콘텐츠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SM엔터테인먼트 제작 전문 자회사 SM C&C 관계자는 “콘텐츠 사업자는 플랫폼을 넘나들면서 수익을 만드는 게 사업의 핵심 전략”이라며 “콘텐츠 특성에 가장 잘 맞는 플랫폼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언급했다. 김소연 기자 sue123@

영국 형님·미국 형님 한자리에… 록의 영웅들 한국서 “로큰롤”

‘리브 포에버 롱’ 콘서트 열띤 무대
리암 갤러거 ‘강남스타일’ 맞춰 등장
푸 파이터스, 강렬한 카리스마 발산

푸 파이터스의 보컬 데이브 그롤(왼쪽), 리암 갤러거.

록의 영웅들이 한국을 찾았다. 브리티시 록의 살아 있는 전설 리암 갤러거와 미국 그런지 록의, 마찬가지로 살아 있는 전설인 푸 파이터스가 그 주인공. 여기에 한국 인디 록의 자존심 모노톤즈가 가세해 ‘리브 포에버 롱(Live Forever Long)’ 콘서트를 완성했다.

국내 인디 신을 이끈 차승우가 만든 팀이건만, 30년 가까이 음악을 쓰고 만든 ‘형님’들 앞에서 모노톤즈는 막내를 자처했다. “뒤에 지금 영국에서 온 형님도 계시고 미국에서 온 형님도 계신데, 여기서 막내가 재롱 좀 부리겠습니다.” 보컬 훈조의 익살로 시작된 모노톤즈의 공연은 짧고 굵게 마무리됐다.

리암 갤러거는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에 맞춰 등장했다. 노래의 후렴구에서 그가 말춤을 타는 모습을 잠깐 상상했지만 아쉽게도 상상에서 그쳤다. 대신 그는 특유의 뒷짐 진 자세로 공연에 임했다. 이따금씩 겉옷의 모자를 눌러쓸 때면 ‘간지 작살’이라는 환호가 절로 터져 나왔다.

리암 갤러거는 솔로곡과 오아시스, 비디아이의 노래를 고루 섞어 들려줬다. 한때 오아시스의 노래를 전혀 부르지 않았던 그는 한 팬의 울음 섞인 항의에 마음을 고쳐 먹었단다. 덕분에 ‘로큰롤 스타(Rock ’n’ Roll Star)’, ‘슬라이드 어웨이(Slide Away)’, ‘모닝 글로리(Morning Glory)’ 등의 명곡을 직접 라이브로 듣는 호사를 누렸다. 앙코르곡 ‘원더월(Wonderwall)’을 함께 부를 때에는 황홀한 기분마저 들었다.

푸 파이터스는 가장 마지막 주자로 등장했다. 2년 전 내한 당시, 다리 부상으로 인해 의자에 앉아 공연해야 했던 데이브 그롤은 그때의 한풀이라도 하듯 첫 곡 ‘올 마이 라이프(All My Life)’부터 힘차게 달렸다.

푸 파이터스는 그런지 록의 세계를 제대로 펼쳐 보였다. 데이브 그롤이 기세 좋게 기타 연주 속도를 높이면 드러머 테일러 호킨스가 호전적으로 따라붙었다. 첫 음반 수록곡 ‘빅 미(Big Me)’에서부터 가장 최근 발매한 ‘런(Run)’, 히트곡 ‘더 프리텐더(The Pretender)’, ‘워크(Walk)’, ‘베스트 오브 유(Best Of You)’ 등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들려줬다.

“마지막 곡입니다. 작별인사는 하고 싶지 않군요. ‘굿바이’라는 말 대신 이 노래를” 공연명과도 일치하는 ‘에버롱(Everlong)’이 연주됐다. 듣고 있으니 90분의 공연 동안 푸 파이터스와 깊고 진한 우정을 쌓은 기분이 들었다. “우리가 한국에 다시 온 이유는 여러분이 퍼킹 어메이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 한국에 오면 여러분도 우릴 보러 다시 와줄래요? 그땐 저 스타디움에서 더 긴 공연을 보여 줄게요.”

이은호 기자 wild37@

윤식당·삼시세끼·효리네 민박… 도넘는 중국의 프로그램 베끼기

tvN·JTBC 담당 제작진 中 연락 못받아
사드 핑계로 교류 봉쇄… 항의조차 못해

“우리 포맷이 비싸지 않아요. 제품을 구매하면 디테일까지 가이드해 드리겠습니다.”

tvN ‘윤식당’과 ‘삼시세끼’가 중국에서 무단 도용됐다는 소식에 나영석 PD가 전한 뼈 있는 한마디다. 담당 연출자까지 나서 정식으로 판권을 구매해 달라고 나섰지만 중국의 한국 프로그램 무단 표절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엔 JTBC ‘효리네 민박’마저 표절됐다는 의혹이 빚어졌다. 물론 이번에도 담당 제작진은 중국 측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

중국 채널에서 한국 예능프로그램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빚어진 것은 근래의 일이 아니다. KBS2 ‘개그콘서트’, ‘안녕하세요’, MBC ‘무한도전’ 등도 몇 년 전에 표절 논란이 불거졌다. 그렇지만 당시엔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중국 강소위성TV가 ‘개그콘서트’의 인기 코너 ‘시청률의 제왕’을 표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KBS는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간은 흘렀지만 상황은 후퇴했다. 중국 내 표절 소식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지만 항의조차 할 수 없다. ‘삼시세끼’, ‘윤식당’뿐 아니라 Mnet ‘쇼미더머니’, ‘프로듀스101’ 포맷까지 도용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지만 CJ E&M 측은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강구 중”이라는 답변만 몇 달째 반복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7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재배치로 불거진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때문이다. 한류 콘텐츠 유입을 막는다는 취지로 중국 내 한국 프로그램 방영, 한국 연예인들의 출연, 공연까지 모두 막힌 틈을 타서 중국 TV들이 한국 인기 프로그램을 무분별하게 베끼고 있다.

‘한한령’에 앞서 SBS ‘런닝맨’, ‘정글의 법칙’, MBC ‘아빠 어디가’, tvN ‘꽃보다 할배’ 등의 포맷이 중국에 수출돼 높은 인기를 얻었다. 한국의 제작진이 직접 중국으로 건너가 제작 노하우를 전수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이 한국과의 교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면서 정상적으로 항의하고, 해결책을 찾는 물꼬마저 막혀 버렸다.

JTBC ‘효리네 민박’

‘효리네 민박’의 정효민 PD는 “아직 프로그램이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절 여부를 말할 순 없지만, 설사 표절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포맷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 지금 상황이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sue123@

음반의 변신

생화로 꾸민 태양 솔로 음반 커버.

USB앨범 지디 생화 넣은 태양

단순한 음원유통 넘어
기념품 수준 의미 지녀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은 솔로 음반 ‘권지용’의 수록곡을 USB에 담아 출시했다. USB는 음원 다운로드가 가능한 링크와 시리얼 넘버를 제공했다. 구매자들은 음원, 사진, 뮤직비디오 등 음반과 관련한 콘텐츠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콘텐츠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다. 음반이 출시된 지 두 달 만인 이달 18일 지드래곤은 수록곡 ‘개소리’의 뮤직비디오를 업데이트했다. 해당 뮤직비디오는 오로지 USB를 통해서만 공개됐고, USB를 구매한 팬들은 환호를 질렀다.

비슷한 시기 솔로 음반을 낸 같은 그룹 멤버 태양은 음반 커버에 생화를 넣었다. 일본에서 활동할 당시 생화로 만든 휴대폰 케이스를 보고 홀딱 반한 그는 현지 디자이너를 수소문해 음반 제작을 맡겼다. 커버 제작은 모두 수작업으로 이뤄졌다.

비용을 생각하면 하지 못할 일이다. 태양은 왜 수작업을 택했냐는 팬의 질문에 “기계가 하지 못하는 일이니까”라고 답했다. 약점은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점인데, YG엔터테인먼트는 초도 생산하는 버전이 ‘완판’된 이후에는 커버 사양을 변경해서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언급한 두 가지 사례는 음반 기능의 발전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같지만 가리키는 방향성은 확연하게 다르다. 지드래곤의 USB는, 가온차트에 의해 음반이 아닌 디지털 서비스로 분류되는 수모(?)를 겪었지만, ‘유통’이라는 음반 본연의 역할에 깊숙이 관여했다. 소비자들은 USB를 통해 음원을 소유하고, 소유 가능한 콘텐츠는 뮤직비디오, 사진 등 음원 외의 콘텐츠로 확장되며, 심지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다. 유형물에 음원을 고정해 제공하던 음반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탄생한 것이다.

반면 태양은 음반의 대안적 가치인 ‘기념품’으로서의 기능에 더욱 충실하다. 음반 커버에 담긴 생화는 보는 재미를 더하는 장식일 뿐만 아니라 태양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태양은 “내 이름과 음악적 연관성이 있는 것을 찾아가 생명력이 있는 꽃이 떠올라 음반 작업에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요컨대 팬들은 태양의 음반을 구매함으로써 생화에 담긴 그의 음악적 지향점에 공감과 지지를 보내게 되는 셈이다.

주지하다시피 음반 시장은 무서운 속도로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3년 전 디지털 스트리밍 시장의 규모가 CD 음반 시장의 규모를 앞질렀다. 사라지고 싶지 않다면 대안이 필요하다. 스스로 플랫폼이 된 지드래곤의 USB나 하나의 상징이 된 태양처럼. 이은호 기자 wild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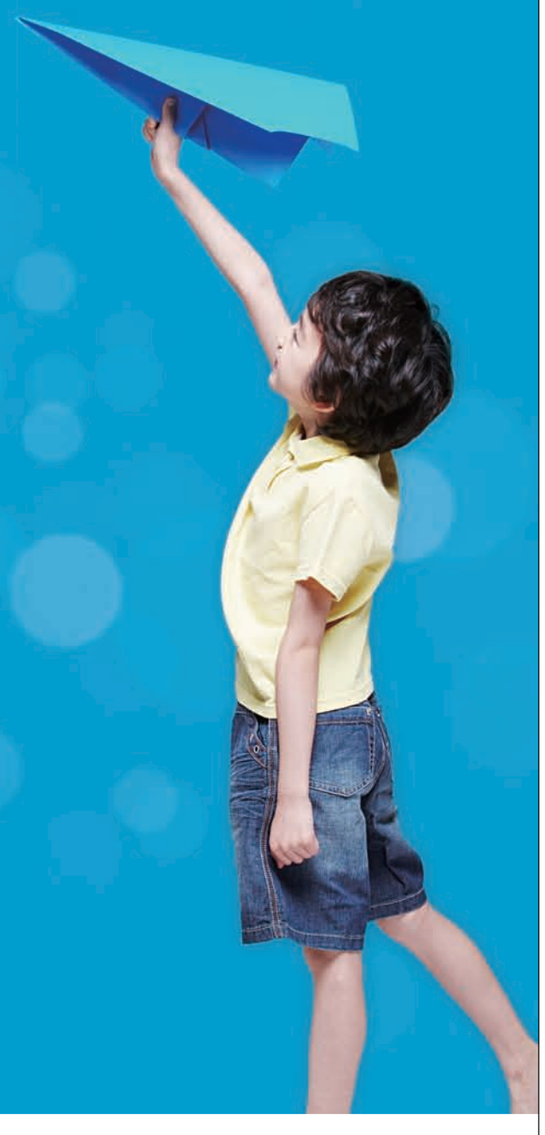
태양 지드래곤

www.LH.or.kr

100만 가정의 생애파트너,
LH가 있잖아요

서민의 주거안전망 구축 노력으로
LH가 임대주택 100만호 관리 시대를 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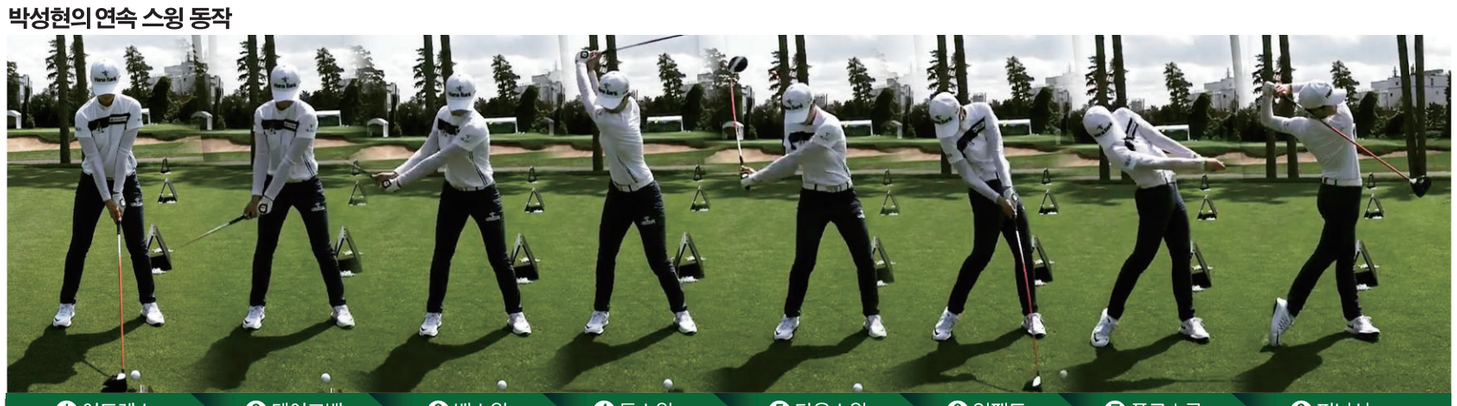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주택으로
국민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국민의 집걱정을 해결하는 생애파트너 임대/분양 등 약 300만 가구에 보금자리 제공(국내 총가구의 약15%)
| 도심과 지역을 재창조하는 개발플래너 16개 신도시, 세종시 · 혁신도시 등 서울시 면적 규모의 도시 개발
| 국가의 재도약을 함께하는 경제서포터 판교테크노밸리,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경제기반시설 개발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성현의 연속 스윙 동작



① 어드레스 ② 테이크백 ③ 백스윙 ④ 톱스윙 ⑤ 다운스윙 ⑥ 임팩트 ⑦ 폴로스루 ⑧ 피니시

'메이저 퀸' 박성현, 완벽한 스윙하고도 어머니에게 뒤통수 맞은 이유는…

'메이저 퀸' 박성현(24·KEB하나금융그룹)이 어머니에게 '뒤통수' 맞은 사연을 공개해 그의 팬들을 즐겁게 했다.

국내에서 2주간의 달콤한 휴식을 취한 박성현은 24일(한국시간) 개막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캐나다 여자오픈에 출전 중이다. 대회를 앞두고 완벽한 드라이버 샷을 동영상으로 공개한 박성현은 스윙을 찍고 나서 '엄마에게 "스윙이 좋다고 생각한 경기 때는 볼이 잘 맞지 않더라"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뒤통수를 때렸다'는 것이다.

이를 본 한 네티즌은 '박성현, 프로… 이전에 시크한 엄마의 딸이었네요ㅋ'(donggil.yi)라는 반응을 보였고, 또 다른 네티즌은 '너무 멋지십니다. 프로님~ 항상 감탄한답니다. 왜 저는 안 될까요?'(eommi6803)라며 부러워했다.

US여자오픈에서 우승한 박성현은 이달 초 브리티시여자오픈을 마친 뒤 8일 잠시 한국에 들어와 프로필 사진 촬영과 소속사인 하나금융그룹 방문, 팬 사인회 등을 가졌다.

안성찬 골프대기자 golfahn58@
사진 출처 박성현 인스타그램

골프회원권 '미다스의 손'…자타공인 '톱'

골프&골퍼

김영일 동아회원권그룹 회장

"회장님, 계약금이 없으시다고요? 카드 주세요." 눈보라가 치는 한밤중이었다. 신용카드를 손에 쥔 그는 강릉 시내를 한걸음에 달려갔다. ATM(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뽑기 위해서다. ATM을 찾기가 쉽지 않았던 시절이다. 그것도 산속 콘도에서는 더욱 그랬다. 눈을 맞고 뛴 탓으로 온몸이 땀범벅이 된 그를 지켜본 회장은 혀를 내둘렀다. 그러고는 기꺼이 회원권 매입 계약을 했다.

한번 마음을 먹으면 끝장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다. 또한 된다 싶으면 일단 일을 저지른다. 하다가 안 되면 바로 접는다. 이것이 그를 오늘날 동종업계에서 1위에 오르게 한 비결이다. 동아회원권그룹 김영일 회장이 창업 21년 만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업계 최고의 기업인에 올랐다. 이는 '하면 된다'는 그의 생활신조와도 잘 맞물려 있다. 특히 동아회원권그룹은 동종업계에서 국내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상장을 했던 기업이다.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세일즈맨이다. 한번 물으면 절대로 놓지 않는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아니다 싶으면 포기한다. 이것이 그가 지닌 최대의 강점인 '동물적 감각'이다.

그가 레저업계에 발을 들여 놓은 것은 취업 시기를 놓쳤기 때문. 제대하고 이것저것 해보다가 대학 졸업이 조금 늦었다. 그때 생각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또한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업종이 있을까.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회원권이었다. 80년대 초 막 붐이 일기 시작한 것이 콘도와 스키였다. 그는 결심했다, 이 업계에서 반드시 랭킹 1위를 하겠다고. 일단 레저 관련 기업에 입사했다.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였다. 대학시절에도 영업을 해본 터라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다.

"스키 이용권을 갖고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부산은 사실 1년 내내 눈을 볼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 때문에 이곳을 택한 것이지요. 남들은 스키라는 단어도 생소한 부산 사람들에게 어떻게 판매가 가능하겠느냐고 회의적이었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하지 못하거나, 하기 어려운 일을 동경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잘 맞아 떨어졌지요." 그의 영업력은 뛰어났다. 남이 하지 않는 방법으로 시장을 개척했던 것이 주효했다. 영업실적으로 순위를 매기는 레저업계 특성상 회사에서 그는 매번 1위를 차지했다.

90년대 들어 레저업계의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스키와 콘도에서 골프장회원권으로 옮겨간 것이다. 영업이 익숙해지자 창업을 머릿속에 그렸다. 발품을 판 만큼 실적이 비례하는 시장 상황을 잘 판단한 것이다. 말이 창업이지 직원 서너명과 책상 몇 개 놓고 일단 일을 벌였다. 그것이 1996년도다. 동아는 2000년 초까지만 해도 겨우 직원이 10여 명에 불과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원권 업계에서 잘 나가던 에이스회원권 거래소와 '양강 구도'를 형성했다. 그러다가 이제는 자타 공인 업계에서 톱 위치에 올라 있다. 이전에는 회원권 거래를 한 번이라도 해본 골퍼라면 10명 중 9명은 "동아요?, 에이스요?"라고 물었다. 그런데 이제는 '동아'를 먼저 떠올릴 정도가 됐다.

김영일(오른쪽) 동아회원권그룹 회장이 홍보대사 및 모델인 가수 태진아(왼쪽), 동아회원권그룹 골프단소속 박신영 선수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스키 회원권 시작 골프로 '최고의 세일즈맨'
동물적 감각·승부 근성·열정으로 신뢰쌓아
골프장 철저히 사전조사한 뒤 홍보에 집중
골프레저전문사 '에머슨퍼시픽그룹'과 윈윈
남녀 골프단 창단·운영…프로대회도 열어
스페셜 올림픽 기부·소외계층 돕기 앞장서

그만큼 회원권 업계에서 동아는 '신뢰의 브랜드'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동아의 눈부신 성장에는 두 가지 공존한다. 김영일 회장의 미래를 바라보는 탁월한 감각과 승부근성, 그리고 직원들의 열정이다. 일을 맡으면 날밤을 새워서라도 한다. 그도 퇴근을 하지 않는다. 직원들과 함께 야식을 하며 일을 한다. 바쁠 때는 말단 직원이 해야 할 일도 도맡아 한다. 이 때문에 직원들이 한눈을 팔지 못한다. 회장이 옆에서 일하는데 누가 딴 짓을 하겠는가. 야근을 하고 일을 마치면 전 직원들과 어울려 포장마차도 찾고, 더 늦으면 찜질방에서 새우잠을 자기도 한다.

"정말 직원들과 밤새워 일할 때 신바람이 났습니다. 하면 할수록 업계가 살아 있는 '생물'처럼 느껴졌지요. 시장이 황무지였으니까요. 먼저 일을 하는 사람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우리 직원들과 마음을 합쳐 하면 안 될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가 성공가도를 달린 것은 뛰어난 분양능력이 한몫했다. 상장을 하고 그룹사로 잘 나갈 때 지사직원까지 합쳐 300여 명 정도였다. 이때 회원권을 전문으로 하면서 골프투어 여행사와 골프엔지니어링은 자회사로 두고, 골프전문지까지 발행했다.

특히 그는 유능한 직원뿐 아니라 파트너도 잘 만났다. 바로 골프레저전문기업 에머슨퍼시픽그룹(대표이사 이만규)이다. 골프업계에서 전형적으로 '윈-윈(Win-Win)'한 사례로 꼽힌다. 골프회원권 시장이 막 눈을 떴을 때 동아회원그룹은 당시 에머슨퍼시픽이 운영하는 충북 진천의 진천 에머슨컨트리클럽(구 중앙)의 회원권 분양에 성공했다. 이어 경기 가평의 아난티서울(구 리츠칼튼)과 세종 에머슨, 힐튼 남해 골프앤스파리조트, 그리고 현재는 문을 닫았지만 금강산아난티 골프앤온천리조트까지 회원모집을 순조롭게 모두 끝냈다. 이때 에머슨퍼시픽 그룹 이중명 회장은 "동아가 하루에 5억 원씩 벌어줬다"고 밝힌 바 있다. 분양회사는 일반적으로 분양가의 일정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동아도 함께 성장하는 발판이 됐다.

동아의 분양방식에는 독특한 점이 있다. 대부분 회원권거래소가 주먹구구식으로 하던 것을 탈피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도입했다. 일단 분양할 골프장에 대해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서 장점을 찾아냈다. 특히 골프장 인근 지역을 찾아 골퍼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 분양 가능한 금액을 산출해 냈다. 그런 뒤 홍보 마케팅에 집중했다. 동아에서 직접 발행한 골프잡지와 일간신문에 홍보를 총동원했다. 그리고 관련 책자를 만들어 동아의 수십만 명을 갖고 있는 DB를 활용해 발송했다. 대기업과 최고급 아파트에도 홍보물을 직접 돌렸다. 주말에는 전 직원이 골프장 입구에서 홍보물을 나눠주기도 한다. 주말에 홍보하는 곳은 동아직원 외에는 없었다는 것이 업계의 전설처럼 돼 있다. 골프장 내에는 분양 데스크를 마련하고 본사에서 파견한 직원이 상주했다. 이런 작업은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하는데, 일을 빨리 끝내기 위해 한꺼번에 상상, 그 이상의 홍보마케팅 비용에 쏟아부었다. 또한 서울, 부산, 호남, 충남지사의 분양팀 전 직원이 매달렸다. 성공하면 반드시 직원들에게 보상을 했다. 이것이 오늘날 동아를 있게 하고, 동아만이 가진 독특한 기업문화가 됐다.

그는 회원권 시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국내 회원권 시장이 일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레드오션'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하지만 이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시장을 만드는 것도 기업이 할 일이지요. 때문에 저는 회원권 시장이 핑크빛 '블루오션'은 아니더라도 절대로 '레드오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내는 나름대로 '그들만의 리그'가 있어 회원권을 반드시 갖고 싶어 하는 골퍼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거래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규 회원권이 등장하면 새로운 소비층이 생깁니다."

동아는 프로골프 발전을 위해 남녀 골프단을 창단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프로골프 대회도 개최한다. 한국프로골프(KPGA)투어 카이도시리즈 동아회원권 다이내믹 부산오픈을 연다. 스페셜올림픽에 기부를 했고, 전 직원이 체육대회에서 봉사활동도 했다. 대회 때 '사랑의 온그린'으로 기부금을 만들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돕기에 나서고 있다.

김영일 회장은 "국내 경기침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소비감소 등으로 기업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더 큰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도 이루어져야 하고요.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한다면 발전이 없습니다. 항상 직원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개개인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회사가 할 일 이지요."

최근 보다 공격적인 경영을 위해 동아는 가수 태진아를 홍보대사 및 모델로 발탁했다. 김영일 회장이 이끄는 동아회원권그룹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는지 궁금하다. 안성찬 골프대기자 golfahn58@

재채기할 때 허리 찌릿…디스크 내장증?

조보영의 골프와 척추건강

늦깎이 티칭 프로인 A(32)씨는 운동 마니아다. 골프는 기본이고, 학창 시절 축구선수로도 뛰었고 동호회 활동을 하는 스쿼시도 수준급이다. 최근 몇 개월간 A씨는 근력운동에 심취해 있었는데, 가끔씩 허리 통증이 생겨 파스를 붙여보고 물리치료를 받아도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엑스레이상으로도 이상이 없었지만 정밀검사 결과 디스크 내장증이었다.

다양한 운동을 즐기는 골퍼들 중에 외상이나 충격이 없었는데도 꾸준히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는 오랜 기간 운동을 하면서 꾸준히 쌓인 충격이 허리에 누적돼 요통이 생기는 디스크 내장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

티샷을 하고 있는 김소이 선수.

디스크는 척추 뼈와 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시켜 주고 완충 역할을 한다. 허리 디스크라고 불리는 수핵탈출증은 디스크가 튀어나와 신경을 눌러 허리를 굽힐 때 요통과 하지통이 발생하는 반면, 디스크 내장증은 내부가 손상 받아 앉은 자세에서도 요통이 생기는 차이가 있다.

특징적인 것은 디스크 내장증이 X-RAY만으로 진단이 어렵다는 점이다. 디스크가 정상처럼 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며 이상한 허리통증으로 여긴다. MRI 검사를 통해 디스크 내부를 확인해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디스크 내장증은 시간에 따른 노화가 주원인인 여타 허리질환과 달리 내장증은 대부분 누적 손상 때문에 생긴다. 골프, 축구, 배드민턴이나 스쿼시 등 척추 회전이 큰 운동이나 스쿼트. 데드리프트 등의 중량을 이용한 운동, 집안일에서 받은 사소한 충격이 디스크에 축적된다. 격한 운동을 하는 젊은 층이나 가정주부에게도 흔히 나타난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할 때 통증이 느껴지거나 땅바닥에 앉거나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는 게 힘든 경우,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를 바로 펴지 못하고, 특정 자세에서 통증이 생기거나 재채기를 크게 할 때 허리가 찌릿한 느낌이 있으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자칫 증상 구분이 어려워 장기간 통증을 방치하기 쉽다. 이때 수핵 압력이 올라가 디스크 수축이나 파열로 이어질 수 있어 불편이 생기면 전문의 진단과 검사를 정확하게 받는 게 좋다.

누적된 손상에 의한 디스크 내장증은 평소 생활 속 간단한 관리만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 일단 척추에 무리를 주지 않는 바른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의자나 바닥에 앉았을 땐 허리를 곧게 펴고 다리를 꼬지 않도록 한다.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들 때에는 양손으로 드는 것이 좋으며 무릎이 구부린 상태에서 물건을 바짝 끌어당긴 다음 들어올리는 것이 좋다. 라운딩을 할 때 평지 걷기를 많이 하고, 평소 수영과 고정식 자전거 타기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연세바른병원 원장

'프로 잡은 아마추어' 최혜진 김효주·김해림과 '롯데 한솥밥'

31일 개막 한화클래식서 프로데뷔
내달 LPGA 에비앙챔피언십 출전

프로 잡은 아마추어 최혜진(18·부산학산여고3·사진)이 프로 세계의 신인으로 나선다.

최혜진은 아마추어 자격으로 출전한 프로 대회에서 1999년 임선욱(34) 이후 18년 만에 2승이라는 대기록을 작성한 주인공이다. 그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초정탄산수·용평리조트오픈과 보그너 MBN 여자오픈에서 우승했다. 특히 7월에는 아마추어 자격으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 대회인 US여자오픈에서 준우승을 차지해 대회 관계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중학교 3학년 때 국가대표에 발탁된 그는 지난 4년간 프로대회 외에도 다수의 아마추어 대회에서 우승했다.

1999년생인 그는 23일 만 18세가 되며 24일 프로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28일 롯데그룹과 메인스폰서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계약금은 연간 10억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최혜진은 김효주(22)를 비롯해 김해림(28) 등과 '한솥밥'을 먹게 됐다.

지난 7월 초정탄산수·용평리조트오픈에서 우승하며 KLPGA 투어 시드를 확보한 그는 31일 강원 춘천 제이드팰리스 골프클럽에서 개막하는 한화 클래식에서 프로 데뷔전을 갖는다. 현재 세계랭킹 22위에 올라 있는 최혜진은 9월에 열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에도 세계 랭킹 40위 자격으로 출전한다.

최혜진의 매니지먼트사인 YG스포츠는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선수가 될 최혜진을 위해 경기력 향상, 스폰서 유치, 그리고 해외투어 진출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선수의 스타성을 높이기 위해 YG 차원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안성찬 골프대기자 golfahn58@

캘러웨이, 직진성 향상시킨 '오디세이 오웍스 퍼터'

여성 골퍼 위한 32인치 모델도

캘러웨이 골프가 퍼트에 약한 골퍼에게 눈길을 끄는 퍼터를 선보였다. 아마추어부터 투어 프로까지 폭넓은 인기를 자랑하는 퍼터 브랜드 오디세이의 오웍스 퍼터이다.

오웍스 블랙<사진>은 투어 프로들이 가장 선호하는 올 블랙 컬러로 디자인 한 퍼터로, 깔끔한 블랙 PVD 피니시 헤드에 블랙 파우더 코팅된 샤프트를 장착하여 세련된 외관을 자랑하며 퍼팅 시 눈부심까지 방지해준다. 인서트 페이스는 완벽한 볼 구름을 선사하는 마이크로힌지 인서트가 장착돼 최상의 퍼포먼스를 제공해준다.

오디세이 R&D 팀은 오디세이를 대표하는 일반적인 헤드 모델 외에 투어 선수들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한 새로운 헤드 타입을 추가해 국내외 선수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기존 오웍스 퍼터의 완벽한 터치감과 볼 구름을 이번 추가 라인업에서도 그대로 경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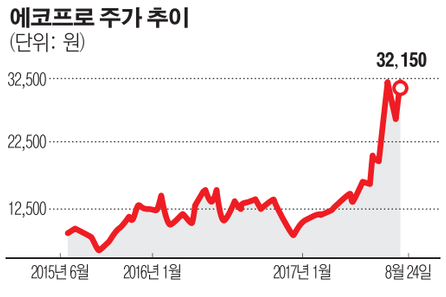
스테인리스 스틸 플레이트와 열가소성 엘라스토머로 구성된 마이크로힌지 인서트가 부드러운 타구감은 물론 볼이 페이스에 닿은 즉시 탑스핀을 생성해 똑바로 직진하는 볼 구름을 제공해준다는 것이 캘러웨이측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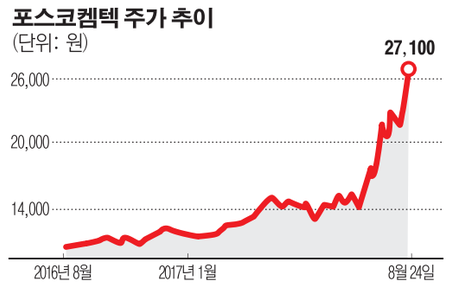
이번 추가 라인업에는 아시아 여성 골퍼들을 위한 오웍스 여성용도 만나볼 수 있다. 여성의 퍼팅 스타일과 신체적 특징을 고려해 설계된 오웍스 여성용은 여성 골퍼가 그립을 편히 쥘 수 있도록 슈퍼 스트로크사의 울트라 슬림 그립을 장착하였고, 길이 또한 여성들에게 맞는 32인치 모델로 출시됐다.

캘러웨이골프 김흥식 전무는 "오디세이 오웍스 퍼터의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이번에 블랙과 여성용 라인업을 추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성찬 골프대기자 golfahn58@

전기車 따라 2차전지 관련株 '씽씽'

美 신규 모델 도입, 유럽은 의무판매
국내 배터리업체 동반성장으로 연결
에코프로·포스코켐텍·일진머티리얼즈
부품업체들 무더기 신고가 경신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무더기 신고가 행진을 기록했다.

24일 NCA 계열의 2차전지 양극재를 생산하는 에코프로는 장중 한때 전날보다 7.41% 오른 3만3350원에 거래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더불어 포스코켐텍(2만7200원), 일진머티리얼즈(4만4700원), 피엔티(1만7500원)가 모두 신고가를 경신했다. 후성은 3.64% 오른 1만1400원에 장을 마감하며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갔고, SK이노베이션도 4.09% 급등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4443대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무려 407.2% 급증했다.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다양한 친환경차 출시를 앞다투고 있어 향후 전기차 성장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미국의 7월 전기차 누적 판매량은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중국도 41% 성장했다. 미국은 신규 모델들이 도입되면서 판매량 증가가 일어나고 있다. 중국은 축소된 보조금의 적용이 지역별로 늦어지면서 상반기에는 부진했으나, 최근 고속 성장 추세로 재진입했다.

유럽의 성장세도 이목을 끈다. 같은 기간 독일의 전기차 판매 대수는 2만6234대로 전년 대비 110% 증가했다. 최근 총선 과정에서 디젤차가 주요 정치 이슈로 등장하면서 전기차 의무판매제도 도입이 제안되고 있다. 재집권이 유력한 메르켈은 2020년까지의 전기차 누적 판매량 목표치를 100만 대로 유지할 것을 밝힌 바 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유럽 시장의 고성장세는 국내 배터리업체들 전체의 동반 성장으로 연결된다"며 "특히 중국 시장의 성장은 최대 전기차 업체 파트너인 일진머티리얼즈와 현지에서 증설을 진행 중인 후성에 긍정적이다"라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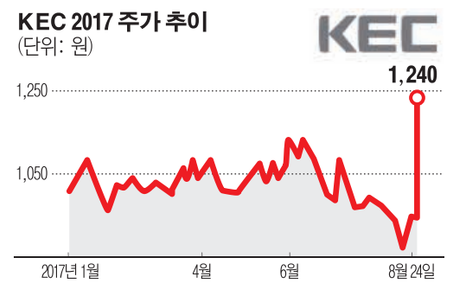
한편, 일부 증권 전문가들은 국내 부품업체 중 에너지 효율성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한온시스템과 친환경차용 모터 제작업체 S&T모티브에 대한 관심도 촉구했다. 한온시스템의 주가는 이날 5.19% 오른 1만2150원에 거래를 마쳤고, S&T모티브 역시 4.72% 오른 5만3300원에 장을 마감하며 시장 전망을 고스란히 반영했다.

정용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친환경차 시장에서 완성차 및 부품업체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데 반해, 주가는 현저히 저평가받고 있다"며 "친환경차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개화하면서 기존 완성차·전기차 제품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들의 선점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최두선 기자 sun@

자사株 매입, 주가 방어 효과 '톡톡'

글로벌 전기車 부품시장 진출 KEC
적자 지속되는 바이오기업 젬백스
경영진 책임경영 의지 표명에 반등



최근 대내외적인 악재로 인해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자, 주가 방어를 위해 일부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까지의 주가 흐름을 볼 때, 이들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전기전자 업체인 KEC 황창섭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은 2일부터 17일까지 자사주 17만4930주를 장내 매수했다.

KEC는 상반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42억 원, 당기순이익 36억 원을 달성하면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227%, 125% 증가했다. 특히 7월에는 LG화학과 손잡고 '전기자동차용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다이오드 모듈' 공동 개발을 완료하고, 글로벌 전기차부품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하지만 사업 호조와 실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KEC 주가가 곤두박질치면서 11일에는 최저점인 888원까지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자 경영진들이 자사주 매입에 나선 것. 이후 KEC의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고, 24일에는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으며 124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 IT기업인 라이트론도 24일 자사주 매입 소식에 급등세를 보였다. 라이트론은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18만 주를 장내 매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적 하락으로 인해 21일 주가가 연중 최저점인 5000원 초반까지 떨어지자 주가 방어 차원에서 자사주 매입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날 주가가 반등하면서 장중 677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또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바이오기업 젬백스 역시 주가가 1만 원 밑으로 추락하자 경영진들이 자사주 6만6000주를 장매 매수하면서 주가를 다시 1만 원대로 끌어올렸다.

성시종 기자 ssj@

KB, 홍콩 은행·증권 지점 통합…亞 금융허브 구축

해외 시장정보 공유·역할 분담
업무 효율성 높여 시너지 창출

24일 홍콩 현지에서 진행된 'KB 은행·증권 홍콩 코-로케이션' 기념식에서 KB금융지주 김옥찬 사장(왼쪽 네 번째), 전병조 KB증권 사장(왼쪽 세 번째), 전귀상 KB금융지주 CIB담당 부사장(오른쪽 세 번째) 및 임직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KB증권

KB금융그룹이 아시아권 비즈니스 확대를 위해 KB증권 홍콩법인과 KB국민은행 홍콩지점의 사무공간을 통합(Co-location)했다. 양사 간 업무 효율성을 높여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KB증권은 아시아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첫 단계로 홍콩법인의 사무실 이전을 완료하고, 24일 'KB 은행·증권 홍콩 코-로케이션'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옥찬 KB금융지주 사장은 "한국의 대표 금융그룹인 KB금융그룹이 글로벌 최고의 금융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해 계열사 간 협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병조 KB증권 사장도 "KB금융그룹의 국내외 고객들에게 최상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 KB증권 홍콩현지법인을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KB증권은 5월 글로벌사업 확대와 초대형 투자은행(IB) 진출 전략에 따라 홍콩법인에 8000만 달러 증자를 결정, IB와 채권사업 확장을 추진 중이다. KB국민은행 역시 올해 초 홍콩법인을 지점으로 전환하면서 일반 기업금융업무와 투자금융업무를 확대·진행하고 있다.

향후 KB증권 홍콩법인과 KB국민은행 홍콩지점은 현지 시장정보를 공유하고 은행·증권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과 협업을 통해, KB금융그룹의 아시아권 비즈니스 및 기업투자금융의 거점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1월 2일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이 통합해 출범한 KB증권은 '아시아 금융을 선도하는 글로벌 금융투자회사'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아시아 최고의 투자은행으로 발전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자산관리(WM)와 기업투자금융(CIB) 사업을 핵심 축으로 하는 2020년 성장로드맵이 제시된 가운데, 은행-증권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 WM부문과 IB부문장 겸직 체계로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이주의 수급동향

"사자" 돌아온 外人… 삼성전자는 덜어내

IT·금융·게임株 중심 1674억 순매수
기관은 삼성SDI 등 대형株 집중 매수

코스피 시장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억 원)

순위	종목명	매수액	순위	종목명	매수액
1위	넷마블게임즈	835	6위	우리은행	191
2위	NAVER	495	7위	SK하이닉스	189
3위	삼성SDI	339	7위	이마트	163
4위	KB금융	269	9위	한샘	159
5위	카카오	216	10위	삼성에스디에스	157

이달 들어 내내 매도폭탄을 던진 외국인이 '사자'로 돌아섰다.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귀환을 반기며 2370선에 안착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21일부터 전날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총 1674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기관은 709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개인은 2119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이번 주 코스피 지수는 21일을 제외하고 사흘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전날 지수는 2375.84에 마감, 전주 대비 0.74% 상승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2370선을 되찾은 것은 8일 이후 11거래일 만이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아직 강한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 증시의 또 다른 수급 주체인 기관과 어울려 지수 하락을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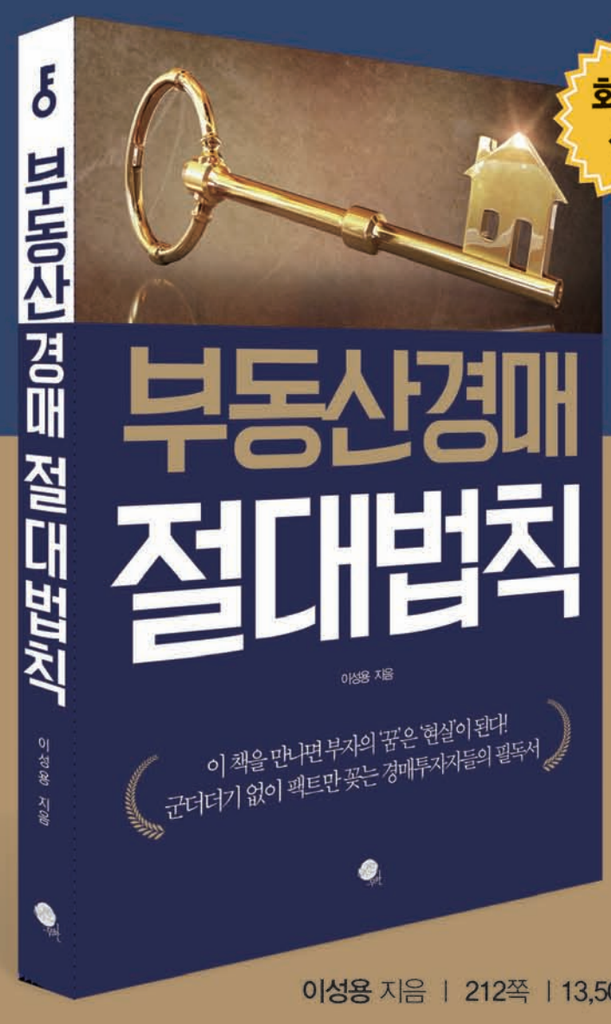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넷마블게임즈(835억 원)였다. 넷마블게임즈는 '리니지2 레볼루션'의 일본 흥행 기대 속에 나흘간 12.3% 상승했다.

IT·금융주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이어졌다. 이들은 △네이버(495억 원) △KB금융(269억 원) △카카오(216억 원) △우리은행(191억 원) △SK하이닉스(189억 원) 등을 쓸어 담았다. 반면, 삼성전자(-374억 원)는 덜어내기 바빴다. 이와 함께 △효성(-266억 원) △두산인프라코어(-253억 원) △한온시스템(-179억 원) △호텔신라(-177억 원) 등도 팔아 치웠다.

한편, 기관은 대형주를 집중 매수했다. △삼성SDI(785억 원) △LG화학(596억 원) △SK하이닉스(457억 원) △SK이노베이션(405억 원) △LG전자(382억 원) 등에 러브콜을 보냈다.

유혜은 기자 euna@

이 책을 만나면 부자의 '꿈'은 '현실'이 된다!
군더더기 없이 팩트만 꽂는 경매투자자들의 필독서



경매의 신으로 가는
문을 열어 줄
황금열쇠

〈입찰 시 명심해야 할 4가지〉

1. 네 번 중 한 번 낙찰받는다는 생각으로 입찰하기
2. 법원 분위기에 들떠 계획한 금액보다 더 쓰지 말기
3. 지금 당장 투자를 통한 양도(자본)수익이나, 임대수익 욕심이 난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된 선생에게 제대로 배워서 조금 특수한 물건 다루기
4. 내가 갈고 닦은 분야의 물건에만 지속적으로 입찰하기

이성용 지음 | 212쪽 | 13,500원

www.muhan-book.co.kr | 원고 투고 muhanbook7@naver.com | 전화 (02)322-6144 | 팩스 02-325-6143

바이오로그디바이스 '갤노트8'에 카메라용 손떨림 보정부품 공급

바이오로그디바이스가 삼성전자의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노트8'에 OIS(광학식 손떨림 보정) 핵심 부품을 공급한다. 삼성이 세계 최초로 듀얼 카메라 모두에 OIS 기능을 적용하면서 스마트폰 1대당 이 회사의 OIS 부품도 2개씩 탑재된다.

바이오로그디바이스는 갤럭시노트8의 후면 듀얼카메라에 'OIS FPCB(연성인쇄회로기판) Assy' 2개를 공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 회사는 휴대폰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는 AF(자동초점)/OIS FPCB Assy와 ISM(이미지 센서 모듈)을 생산하는 삼성전기의 2차 벤더업체다.

회사 관계자는 "OIS FPCB Assy는 갤럭시노트8 출시 2개월 전인 6월 말부터 생산을 시작했다"며 "시장 반응에 따라 제품 생산 물량을 조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바이오로그디바이스가) OIS FPCB Assy 공급 물량의 절반 정도를 맡고 있고, 2~3개 업체가 나머지 공급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OIS FPCB Assy는 휴대폰 카메라 모듈의 액추에이터(Actuator)에 적용되는 부품이다. IC 및 칩 커패시터(Chip Capacitor) 등을 FPCB에 실장하고, 자체 권선(피복 절연전선) 생산한 코일을 융착해 생산한 제품이다.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자기장의 힘이 렌즈모듈을 미세하게 조정해 손 떨림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삼성전자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파크 애비뉴 아모리에서 언팩 행사를 열고 갤럭시노트8을 처음 선보였다.

이번 모델의 특징은 후면 카메라다. 삼성은 플래그십 스마트폰 최초로 듀얼 카메라를 적용했다. 후면 듀얼 카메라는 1300만 화소 광각렌즈와 1200만 화소 망원렌즈로 구성되며, 듀얼카메라 모두에 OIS 기능이 적용되고 광학 2배 줌이 지원된다.

이윤상 교보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고사양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듀얼 카메라의 채택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며 "고객사의 듀얼 카메라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바이오로그디바이스의 AF/OIS FPCB Assy 사업은 가시적인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위너스 클럽 | 토필드 TOPFIELD

동양인 최적화 인공관절 개발 세계 첫 추간체 고정재도 주목

〈고정형 척추 임플란트〉

토필드는 이달 젤리타의 의료용 체내 흡수성 지혈제를 국내 독점 계약 체결했다. 라우라 하우스만 젤리타 메디칼 총괄책임자(왼쪽)와 서문동군 토필드 대표가 계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나사형 플렉시블 임플란트. 사진제공 토필드

차세대형 인공 무릎관절 中 웨이촹 의료와 판매 계약

셋톱박스 전문기업 노하우로 키오스크 시장 공략 잰걸음

IT 기반 '종합 메디컬' 도약

토필드가 세계 최초로 추간체 고정재를 개발하고 중국 웨이촹(微創)의료와 국내 독점 총판계약을 체결하는 등 주력 사업인 IT 사업을 기반으로 한 종합 메디컬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안용준연구소와 천연물 바이오 사업에 진출함에 이어 올해 체내 흡수성 지혈제, 차세대형 인공관절 개발 등 의료기기 유통 및 종합 메디컬 사업을 시작한다. 새롭게 진출한 신규 사업 관련 국내외 매출이 올해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실적 성장세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차세대형 인공무릎관절 등 인공관절 시장 공략 = 토필드는 최근 국내 슬관절 전문 의료진과 차세대형 인공무릎관절 기술 공동 개발을 시작했다. 기존 추간체 고정재(척추 임플란트) 판매와 함께 인공관절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차세대형 인공무릎관절은 서양화되는 동양인 골격 구조에 발맞춰 1세대 한국형 인공관절을 구조, 소재 등의 부문에서 개선한 제품이다. 국내 의료진과 협업을 통해 차세대 동양인 체형에 최적화된 구조와 크롬·코발트 합금 소재를 이용한 소재로 인공관절을 설계했다.

차세대 인공무릎관절과 함께 주목할 제품은 현재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추간체 고정재다. 토필드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추간체 고정재는 기존 고정형 임플란트의 불편함을 제거한 나사형 임플란트를 사용한 제품으로 실제 수술에 사용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과 국내 독점 계약… 해외시장 집중 = 토필드는 중국 웨이촹 의료와 국내 독점 총판계약을 체결해 국내외 병원에 인공관절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웨이촹 의료는 미국 임플란트 기업 마이크로포트(MicroPort)와의 인수합병을 통해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으로 거듭났다.

서문동군 토필드 대표는 "글로벌 의료기기사와의 독점 계약을 통해 중국, 미국을 비롯해 다양한 국가로 당사 우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내 인공무릎관절 시장 규모는 2014년 기준 약 722억 원, 세계 시장 규모는 약 7조 원이며 인구 고령화와 함께 시장은 빠르게 성장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토필드는 세계 최대 젤라틴 생산 기업인 독일 젤리타(GELITA AG)와 체내 흡수성 지혈제(GELITA SPON 외 41종)에 대한 국내 독점 계약을 체결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GMP 인증을 획득했다. 젤리타는 1875년 설립 후 식용, 의료용 등으로 젤라틴 및 콜라겐을 생산해온 세계 1위 기업으로 현재 전 세계 70여개국으로 유통되고 총 1억여 곳 이상의 사용처에 이용되고 있다.

◇셋톱박스 사업 노하우로 키오스크 시장 이끈다 = 수십 년간 셋톱박스 전문기업으로서 제조 및 판매 노하우를 쌓아온 토필드는 그 업력을 올해 키오스크에 접목시켰다. 지난 5월 토필드는 종합 발권 키오스크 전문기업 아이오로라와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키오스크 제작 및 공급, 국내 총판, 공동 연구개발 등에 대한 협약을 마쳤다.

아이오로라는 증강현실(AR)을 이용한 사진 촬영 기능이 탑재된 종합 발권 솔루션 사업을 영위 중이며 광원제어기술 및 포토합성장치 기술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중국 1위 극장 체인 완다시네마와 미국 1위 극장 체인 리갈, 국내 메가박스 등 국내외 극장 체인에 키오스크를 공급 중이다.

서문 대표는 "아이오로라의 독보적 기술과 당사 사업력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경우 막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세계 각국 극장 체인 기업들의 잇단 공급 요청에 대한 안정적인 제조 및 공급을 통해 성공적인 키오스크 사업 안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일진다이아, 현대車 수소차에 연료탱크 공급

탄소섬유 감아 강도·안정성 높여

일진다이아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종속 자회사 일진복합소재가 현대차의 1세대 수소전기차(수소연료전지전기차·FCEV)에 이어 최근 공개된 차세대 수소전기차에 수소연료 탱크를 공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완주 공장에 차세대 수소전기차 전용 탱크 설비를 갖춰 양산화에 대비하고 있다.

25일 일진다이아 관계자는 "일진복합소재가 현대차의 차세대 수소전기차에 수소탱크를 납품하고 있다"면서 "앞서 현대차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이다"라고 밝혔다.

일진복합소재는 2012년 11월 설립됐다. 초경량복합재 CNG·수소 탱크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일진다이아가 지분 100%를 보유한 비상장 회사다.

이 회사는 2014년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수소전기차 투싼ix에 연료탱크를 공급해 왔다. 일진복합소재가 납품하는 제품은 초경량 복합소재 연료탱크(TYPE-4 Hydrogen Cylinder)로 탱크에 탄소섬유를 감아 강도와 안정성을 높인 제품이다. 현재 전 세계 5개 업체에서만 생산이 가능하다고 알려졌다.

지난달 일진다이아는 현대차에 대한 수소탱크 독점 공급설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이는 1차 납품업체(벤더)가 아닌 탓에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을 뿐 수소탱크를 현대차에 독점 공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일진복합소재는 2차 벤더 개념으로 현대차와 직접 계약 관계는 아니지만, 현대차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했고 생산된 제품 전량은 현대차로 납품되고 있다"며 현대차에 차량용 수소탱크를 제작 공급하는 회사는 일진복합소재가 유일하다"고 전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잉크테크, 만성적자 FPCB 접고 素材사업 집중

잉크테크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이어온 FPCB(연성인쇄회로기판) 사업을 철수하며, 수익성 강화와 재무구조 개선에 나선다.

잉크테크는 지난 7월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85억 원 규모의 잉크테크 평택사업장 일부 부지 매각과 함께 FPCB 사업 철수를 준비해왔다며 FPCB사업 철수와 인적 구조조정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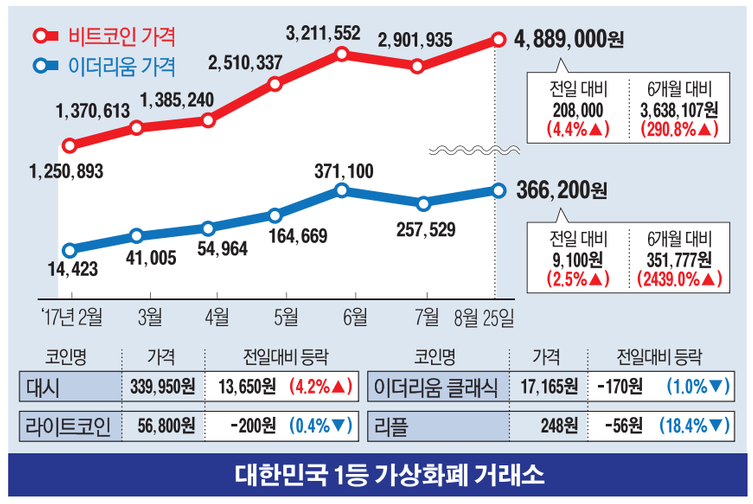
잉크테크는 FPCB사업이 회사 손익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 FPCB 사업을 철수하고 컬러잉크, 산업용 장비 및 소재사업에 집중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잉크테크는 이번 FPCB사업 철수 외에도 올 연말까지 평택사업장 추가매각, 자산재평가 등 추가적인 재무구조 개선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익성, 현금유동성 확보 및 부채비율 감소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17년 8월 25일, 08:00, KST)



코인명	가격	전일대비 등락	코인명	가격	전일대비 등락
대시	339,950원	13,650원 (4.2%▲)	이더리움 클래식	17,165원	-170원 (1.0%▼)
라이트코인	56,800원	-200원 (0.4%▼)	리플	248원	-56원 (18.4%▼)

대한민국 1등 가상화폐 거래소

'이투데이 Media는 브랜드다

젊다! Passion
다르다! Difference
뛰어나다! Premium

이투데이 미디어는 타 매체보다 앞서서 세상의 흐름을 읽습니다.
독자 입장에서 최선의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투데이 미디어 임직원은 항상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미래를 꿈꾸며, '빅 브랜드'를 만들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대표전화 02)799-2600 구독문의 02)799-2684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2010년 10월 4일 일간 창간

고품격 시니어 매거진
브라보마이라이프
2015년 1월 1일 창간

경제접목 연예뉴스
비즈엔터
2013년 10월 15일 오픈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아이오닉만의 찾아가는 충전 서비스.

IONIQ electric

아이오닉만의 '찾아가는 충전 서비스'
고객이 원하는 곳으로 방문하여 무상으로 충전해드립니다

신청방법 : 마이카스토리APP / 블루링크SOS버튼 / 고객센터 080-600-6000
(단, 자동차 전용 도로 등 일부 장소 서비스 제한 가능)
1회당 충전량 7kWh (약 44km 주행가능)
연 4회 무료 이용(블루멤버스 회원 가입일 기준 5년간)

HYUNDAI

bluehands 차량 관리 서비스는 블루핸즈가 책임지겠습니다
보증수리 / 정기점검 / 긴급출동 / 홈투홈 / 견인서비스

■구입 문의전화 및 고객센터, 긴급봉사반 원콜 서비스 080-600-6000 ■정부 공인 표준연비▶아이오닉 일렉트릭(16") : 복합에너지소비효율 6.3km/kWh (도심 : 6.9km/kWh, 고속도로 : 5.8km/kWh) | CO_2 배출량 0g/km | 복합1회충전주행거리 191km (도심 : 206km, 고속도로 : 173km) | 배터리정격전압(전류용량) 360V(78Ah) | 공차중량 1,445kg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형법, 차량적재, 장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운전자의 습관과 도로상태, 외부 온도 및 공조시스템 사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급속 충전(공공장소, 50kW) : 약 30분(0%→80% 충전 시), 완속 충전(홈충전기, 32A) : 약 4시간 25분(0%→100% 충전 시) ※급출발, 급가속 및 급제동을 하지 맙시다 ※정속주행을 합시다 ■현대자동차는 지점/대리점의 카마스터를 통해서만 판매하며,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같은 제품 같은 가격으로 바른 거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